월간 증현

'79 9 월호



* 권두언 *

충현교회의 목표

—교회설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교회마다 각기 정해진 표어가 있고 그리고 교회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어떤 교회는 교회창립 35주년을 향한 우리의 목표라고 하여 북한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로 그 목표를 정한 교회도 있다. 또 어떤 교회는 교회의 표어를 행 2장 말씀으로 하여 초대교회 처럼 생동하는 교회로 설정한 교회도 있는 것이다.

금년 1979년 9월 첫주일은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태어난 지 만26주년이 되는 해이다. 교회 나이가 26세라는 말이다. 26세라고 하면 성년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젊은 때이요, 가장 원기 왕성하게 뛰고 활동할 수 있는 나이임에 틀림이 없다 하겠다. 그러면 교회설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현교회의 교회목표는 무엇이며 해야 할 주요과업은 무엇이겠는가.

이미 당회장 목사님을 통하여 수차 밝히신 바 있는 내용이기에 온 성도 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바이겠지만 본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밝혀 두고자 함은 의미가 있는 일인줄로 생각한다.

첫째 새 성전을 짓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운데 이미 10년 전인 1970년도에 지금의 강남구 논현동에 성전을 위한 건축부지 9000여평을 마련한 바 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정지작업을 끝내고 이미 성전기공에배를 드린 바 있다. 또한 골조공사를 위한 건축자재도 거의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안타까움게도 아직 성전건축공사는 진척이 없이 중단되어 있는 것이다. 행정당국의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제한 문제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앞으로 멀지않은 시간 내에 곧 해결이 될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 문제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합심기도 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것이다. 우리는 오로지 더욱 힘써 기도하고 또 준비에 힘쓸 뿐이다. 일을 이루어 주실 이는 하나님이신 것이다. (슥4 : 6)

둘째 천국일꾼의 양성문제인 것이다.

교회의 여러 기능 중 가장 주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교육문제인 것이다. 마28 : 19-20 에 주님의 위대한 명령(The great commission)이 있다. 그 내용은 곧 전도와 교육인 것이다. 말씀을 전도하여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주의 분부하신 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것이다. 새해에는 교회기구 개편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그 조직과 기능면에서 더욱 강화된 느낌을 받는다. 교육위원회의 사명은 너무나 막중하고 큰 것이다.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쓰고 있는 교회임에는 틀림없을 것이다. 많은 교회들보다 앞서 가고 있는 점도 없지 아니할 줄로 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할 것은 하나도 없고 더욱 더 연구와 노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본다.

세째 민족복음화의 문제인 것이다.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다. 북한 공산주의를 이길 수 있는 길도 오직 이 길밖에는 없다. 남한의 3700만 인구 가운데 2000 만명 이상만 크리스챤이라고 하면 공산주의자들은 감히 내려올 생각조차 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다.

네째는 세계선교(world mission)이다. 이미 우리 교회가 파송한, 그리고 피땀을 흘리며 수고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여덟 분이 계신다.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내어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 특히 저개발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우리 교회의 선교구역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다섯째는 북한선교인 것이다.

이미 이 문제를 위하여 북한선교회가 조직되어 있다. 국내에 많은 지부가 조직이 되어 있고 해외에도 여러 지회가 조직되어 이 일에 협력하고 있음을 본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말할 수 없이 애를 쓰시고 계심도 또한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대열에 참여하여야 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이상의 5대목표 혹은 5대과업이야말로 교회설립 26주년을 맞는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최대의 목표요, 과업이요, 기도의 제목들인 것이다.

그 어느 것이 먼저이고 어느 것이 나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모두 모두 꼭같이 중요하고 그리고 우선적인 과업들인 것이다. 주여! 이 일을 완성케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주간〉

월간충현의 목적

1. 개혁신앙의 전파
2. 말씀의 생활화
3. 성도의 교제

제 7 권 제69호

월간 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편 1절

* 9 월호 목차 *

권 두 언	충현교회의 목표	주 간	2
이달의말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김창인	4
기념설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정상우	10
지상특강	공산권 선교전략과 그 대책	이종윤	14
편 지 글	중공에서 온 편지		21
초청 대답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육성할 것인가	김득룡	22
평신도를 위한 특별논단	바울의 선교관	김영휘	37
	사이비 종파의 현황과 문제점	손경수	42
	산업청소년 전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언	김순애	48
만 난 사 람	김연순·이명달공로 전도사	고제원	54
탐 방 기	수해지구 교회 탐방기	김창배	58
기 도 문	여름성경 학교에서 쓴 기도문	조유라	60
특집화보	1979년 여름 계절학교	편집실	61
일 기 문	고등부 하기 수양회에서	이광재	74
평가와제언	1979년 농어촌 파송전도를 마치면서	김석원	75
농어촌전도	성실히 전하는 일에만 전념	한정배	78
결 과 보 고	1979년 여름 계절학교	정은표	80
기독교윤리	윤리적 척도로서의 양심	김하진	90
편집실칼럼	하나가 되자	고제원	92
찬송가감상	이 땅에 왔던 왕들은	김중석	92
도 서 정 보	8월에 들어온 도서	도서실	93
책 소 개	계시록강해	조준상	93
독자의글	삶	조현명	94
	십자가	감경자	90
	동방박사의 여정	김수진	96
	몽학선생	정영남	98
주간의만나	시편62편	김창인	99
선교월보	선교지 소식·기도제목	선교회	100
구역소식	새 교우·결혼·별세자 명단	권찰회	102
성경통신	성경통신 모범답안(8월호)	성경학원	102
권찰수첩	주제대심방에 관하여	김재창	103
구역공과	제 23·24·25·26·27과	이성봉	104
주교소식		교육위원회	109
교회소식		편집실	110
답 한 다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김하진	115
실 로 암	교회의 이름을 충현으로 한 이야기	편집실	116
9월의행사		편집실	114
편집을 하고나서			114
광 고			112

표지설명 : 26년전 18명으로 시작되던 충현교회. 머지않아 이 교회당을 떠나게 되는 날 우리는 또 새역사를 창조하는 일꾼들이 될 것이다.

이것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18 : 1

김 창 인 목사
(본 교회 당회장)

교회설립 26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의 한 부분으로 이달의 말씀난에는 우리 교회의 영구 표어인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인 시편 18절 1편의 말씀의 설교를 발췌없이 전문으로 소개합니다.

이것은 시편 18편 1절을 교회의 표어로 결정한 1963년의 정월 첫주일에 말씀하신 당회장 김창인목사의 설교입니다.

오늘은 1963년 정월 첫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은혜 받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시다.」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왕이 지은 것인데,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시골에서 그 아버지 이새의 양을 치던 목동으로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에서 큰 공을 세우고 구국공신으로 높임을 받는 장군이 되었읍니다.

그런데 이 급작스러운 성공은 다윗의 큰 영화가 되었으나 그 큰 영화는 몇달이 못되어 사울왕의 시기를 받아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십년이라는 긴 세월을 망명생활을 하게 되었읍니다. 여름에는 비바람에 온몸이 젖고 겨울에는 찬바람에 손발이 얼고 어떤 때는 산골짜기 동굴에서 어떤 때는 거치른 들판에서 잠을 자며 외국 블레셋 땅에 까지 도망다녔읍니다.

그러나 다윗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이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의를 따라 행했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산 다윗은 오래지 않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시기심과 질투로 죄없는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전쟁터에서 아들과 함께 전사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읍니다.

그리하여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다윗은 높은 보좌에 앉게 되었고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온 세계에 명성을 떨치는 용감하고 지혜롭고 보물을 많이 간직한 부한 왕이 되었읍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에서도 다윗은 교만하거나 경솔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생활을 하였읍니다. 그리고 자신의 지난날의 고생스러웠던 과거와 현재의 자신을 생각해 보니 너무도 감개무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고마왔읍니다.

원수 골리앗을 이긴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십여년 동안 온갖 위협을 당하면서도 생명이 보전된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거듭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의를 지키며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힘이요,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열방 왕들의 존경을 받는 오늘의 영광을 받게 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생각하니 무엇이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읍니다.

이 모든 성공은 자기의 노력이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힘이었다는 것을 더욱 뼈저리게 느끼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무엇보다도)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신앙고백을 하게 되었읍니다.



저는 지난해 1월부터 "1963년에는 우리교회의 영구한 표어를 무엇으로 정하오리까?"하고 기도하던 중에 12월 중순에 세가지 응답을 받았읍니다.

"너희 교회의 영구한 표어는
하나님으로 힘을 삼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인이 되어라."

저는 이 응답을 받고 곧 이 말씀을 우리교회의 영구한 표어로 정하기로 생각하였다가 그 후에 당회에서 시편18편 1절의 말씀「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교회 표어로 결정을 하였읍니다.

오늘은, 앞으로 우리교회의 표어가 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만 자라나는 어린 시절에는 부모님의 충분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야 사람노릇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식은 커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경할 줄 모를 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의 천대를 받을까 보아 겁납니다.

그러므로 자라나는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여러 사람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나는 가운데 뼈가 굵어지고 지식이 풍부해지며 기술이 능숙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람은 자랄만큼 자란 다음에는 힘과 실력을 갖춘 선한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역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모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선한 일꾼이 될 수 있읍니다

이렇게 실력을 갖추어서 일하는 일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며, 후손들에게 복을 물려주며, 자신에게도 행복이 깃들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1.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생각해 봅시다

(1) 나에게 힘이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① 사람에게 힘이 되는 길이 있읍니다

오늘은 힘(실력)이 있는 일꾼이 되자고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할 때에, 힘은 우선 인간적으로 세가지 면에서 얻어집니다.

첫째, 나면서부터 힘이 있는 사람이 있읍니다. 튼튼한 몸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머리가 명석한 두뇌를 선물로 받아 가지고 태어났읍니다. 건강한 몸과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에게 큰 힘이 되며 대단히 행복된 여건이 될 수 있읍니다.

둘째, 다른 사람이 받은 복을 물려받아 그 복을 자기의 힘으로 삼는 사람도 있읍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부모님이 부자이면 자식은 돈 한푼 못 버는 어린애라 해도 좋은 옷을 입고 근사한 집에서 날마다 맛있고 영양있는 음식만 먹으며 구김살 없이 자라납니다. 또 자기는 아무런 권력도 없지만 아버지가 대통령이거나 임금님이라면 잘 먹고 잘 입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대접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위에서부터 물려받는 복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인데 부잣집에 장가를 들어 처가의 도움을 받아 잘 사는 사람도 있읍니다. 그걸 가지고 처덕이라고 그러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집에서 자랐지만 큰 아버지가 부자인데 아들딸이 없어 그 큰 아버지의 양자로 들어가 재산을 물려받아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읍니다. 그것을 양덕이라 합니다. 그런데 옛 사람이 말하기를「처덕은 허덕이요 양덕은 망덕이라」고 하였읍니다. 아내의 재산으로 잘 사는 것은 핫첫 것이고 양아들로 들어가 잘 사는 것은 인격을 잃기 쉽고 마지막에는 영욕갈에 망하기가 일쑤니 망덕이라고 했읍니다.

이제 무슨 뜻인가 하면 자신의 노력으로 얻지 않고 남에게서 거저 받으면 당장은 좋은 것 같으나 나중에는 좋은 법이 거의 없다는 말입니다.

세째, 참 힘은 자기가 키운 힘이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잠잘 때에 깨어서 공부하여 지식의 힘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들은 쓸데없는 일에 두리번거리며 눈을 팔지만 정신을 집중하고 정성을 다해 기술의 힘을 키웁니다. 이렇게 자신의 노력과 정성을 쏟고 또

쌓아서 부자가 됩니다. 권세가 당당한 정치가가 됩니다. 나의 땀과 눈물을 쏟아 키운 힘이라야 나에게 복이 됩니다. 지식도 내가 배운 것이라야 하고, 기술도 내가 연마한 것이라야 하고, 권세도 내가 터를 닦아 쌓은 권세라야만 아름답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돈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놀며 쓰기에 정신없을 때에 열심히 일하면서 번 돈을 아끼고 또 아껴서 어떤 때는 구두쇠라는 별명을 들으면서까지 아껴서 재산을 쌓아야 그 재산이 힘이 됩니다.

또 먹을 음식 못 먹을 음식 잘 가려 먹고 피곤할 때에 적당히 쉴 줄도 알아 건강관리를 잘 하여 튼튼한 몸을 유지하는 것도 힘입니다. 또 다른 사람과의 약속을 잘 지킵니다. 자기에게는 손해가 나더라도 약속을 꼭 지켜서 신용을 얻으면 그 신용도 또한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이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얻은 큰 힘을 가진 사람을 실력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노력하고 노력하여 아무리 큰 실력을 갖추어도 사람과 사람끼리 비교하여 나는 남보다 좀 낫다고 교만해서는 안됩니다. 인간은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튼튼한 몸을 가진 천하장사라 할지라도, 아무리 권세가 당당하여 천하를 호령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재물이 많아 세상 일을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지 할 것 같아도 인간은 병들기 쉬운 몸을 가진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의 몸뚱이 얼마나 약합니까? 조금 지나치게 먹어도 고장이 나고, 조금 못 먹어도 고장이 나고, 조금만 힘에 겨우면 쉬어야 합니다. 인간은 한정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절대로 교만하여서는 안됩니다.

내가 실력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마저도 만홀히 여기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은 자기도 무시당할 날이 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아무리 내가 인간적으로 볼 때 실력을 잘 갖춘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 꿈에라도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리고 실력을 올바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가지고 있는 실력을 선한 일에 쓰면 아름다운 보배이나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사용하면 큰일납니다. 반드시 남에게 손해를 입히게 됩니다. 자기에게 권세가 있다고 개인의 욕심을 채우는 데 사용하면 의인을 죽이는 자가 됩니다. 내가 얻은 실력을 선한 일에 써야 보배이지 악하게 쓰면 도리어 실력이 없는 사람만도 못한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모든 실력을 갖춘 다음에 욕심 때문에 양심을 팔아먹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되겠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양심을 올바로 지키면서 실력을 올바로 사용해야 되겠읍니다.

②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는 길이 있읍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나 인간들 가운데 아무리 뛰어난 실력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그 실력으로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조심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러한 힘도 힘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영광의 꽃을 피우고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아무리 큰 지식·권세·기술·재물을 가지고 있는 실력자라고 해도 인간 스스로는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읍니다.

식물이 뿌리를 통해 진액을 받아야만 잎이 돋고 꽃피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과 같이, 힘의 근원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박고 은혜를 보급받을 때 우리 얼굴에는 영광의 꽃이 피고 마음에는 아름다운 평화가 깃들고 생활에는 승리와 성공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2) 하나님의 힘은 위대하십니다

근년에 우리나라에 심한 가뭄이 든 해가 있었읍니다. 그때 지방에 다녀오다 보니 양동이·대야·양재기 등 별것을 다들고 나와 시민·학생·군인·경찰 등 할것없이 총동원되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있었읍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러한 수고로는 가뭄을 이길 수 없었읍니다. 그러나 아무리 심한 가뭄 때라도 하나님께서 한번 구름을 날려 보내 주시고 비를 주시면 아주 간단히 해결됩니다.

서울 시민 가운데 남산의 무게를 저울에 달아 볼 사람은 없읍니다. 이 지구가 과연 몇근이나 되는지 태양이 몇근이나 되는지 그 무게를 그 누가 달아볼 수 있읍니까? 이 거대하고 무거운 지구와 태양을 끈도 매지않고 공중에 띄워 놓고 매일 수억만리씩 달리게 하시는 그 힘, 우주의 삼라만상을 움직이시는 그 놀라운 큰 힘, 지극히 작은 꽃 한송이 풀 한포기에까지 섭리하시는 그 세미하신 힘,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힘입니다. 이와같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우리는 그저 머리를 숙이고 아멘 하고 복을 받아야 옳습니다.

그런데 인간 가운데는 가증하고 악독하고 교만한 자가 있어서 하나님과 등을 돌려대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 안타깝고 탄식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신 우주의 주인이시며, 우주의 모든 질서를 유지시키는 우주의 섭리자이시며,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반드시 보응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며, 약한 자가 올바로 살려고 할 때에 크신 능력으로 구원하시며 도우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우십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하였으니, 나를 위하여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놀라운 힘으로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진정한 복은 능력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힘이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믿을 때에 과거의 죄에서 용서하시고 믿고 순종할 때에 현재와 장래의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여주십니다. 또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십니다. 양심의 자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는 모든 일에 성공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담대한 마음을 품고 근심·걱정은 모두 주께 맡기고 선한 일에만 충성합니다. 요셉은 종의 몸으로, 죄수의 몸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며 선한 일에 충성하여 하루 아침에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영광을 받게 되었읍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어 주시니 내가 여호와를 힘입고 악마와 싸워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겠읍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서 싸웠던 모세·다윗·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승리를 하였읍니다. 그들을 이길 나라도 단체도 개인도 없었읍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시 118 : 6)

2.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앞에 취할 태도를 생각 하겠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를 지으시고, 살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천국까지 주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취할 태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열심으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러한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당연히 하여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읍니다.

(1)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가 넘칩니다. 계속하여 샘물이 솟아나면 샘물 웅덩이가 가득차게 되고 그 웅덩이가 넘치면 졸졸졸 소리를 내면서 시내를 이루어 흘러가게 됩니다. 이처럼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 감사함이 넘치게 됩니다. 그리하여 입을 열면 감사·찬송이 절로 흘러나옵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식은 불효자가 되는 법이 없읍니다.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마음 속으로 고마와하는 학생은 낙제하는 법이 없읍니다. 임금님의 은총을 감사하는 신하는 반역자가 되는 법이 없읍니다.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식은 효자가 되고,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학생은 모범생이 되고,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신하는 충신이 되듯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니다.

우리 쓰는 만물 다 주의 것일세

오늘도 우리는 모두 아침밥을 먹고 예배당에 모였읍니다. 오늘도 이 지구덩어리 위에는 인도·파키스탄·벵글라데시처럼 때를 따라 먹을 것을 먹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있읍니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렇게 못 사나 하고 원망해 본 적은 없읍니까? 원망은 벌써 반역의 시작입니다. 파괴의 시작입니다. 마귀는 원망하는 사람을 이용하여 개인과 가정을 뒤집어 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읍니다. 오늘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 하나님 앞

에 감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쏟으신 예수님께 감사하고, 나의 나그네 생활에 있어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여 주실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숨이 끊어지고 이 세상 이별하는 날 황금보석으로 꾸민 집을 예비하여 놓고 나를 기다리실 하나님, 죽음 정거장까지 마중나와 영접하여 주실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 드립시다.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의 만가지 은혜를 받은 줄 생각하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감사가 언제나 끊어지지 않고 항상 넘친다는 말입니다. 감사가 가슴 속에 넘치면 입으로 감사·찬송이 터져나오고, 생활의 충성이 뒤따르게 됩니다. 겉으로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생활에서 충성이 모자랍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공의 힘을 주십니다. 오늘부터라도 우리는 여생을 불평을 모르는 감사의 사람이 되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겠읍니다.

(2)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믿고 머뭇거림이 없이 앞으로 전진합니다. 홍해가 앞을 가로막아도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담대히 앞으로 나아갑니다. 태산처럼 높은 여리고 성을 만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는 남편을 믿고 남편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갑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은 아내를 믿고 아내를 기쁘게 해 주려고 애를 씁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선생님을 사랑하는 제자는 선생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곧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믿음은 곧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그럴까?" 하고 의심하는 법이 없읍니다. 그저 아멘입니다. "이것은 악이니 떠나라!"하시면 아멘 하고 떠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읍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만 가면, 홍해는 육지가 되고 여리고성은 평지가 되고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까지 하늘의 만나를 먹으며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쓸 것 미리 아시니 주 너를 지키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해치려는 원수의 모략도 미리 아시고,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지도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믿고 인내하면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쉬지 않고 앞으로 앞으로 나아갑니다. 결코 중간에서 의심의 안개에 싸여 머뭇거리는 법이 없읍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약해질 수밖에 없읍니다. 굳센 믿음을 가진 자만이 전진할 수 있읍니다. 인간의 지혜를 앞세워 마귀가 놓은 의심의 올무에 걸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맙시다.

가데스바에서 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읍니까? "모세 선생님,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가나안 복지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죠? 우리가 가나안 복지를 점령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좋겠는지, 어떤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백성이 어떤 무기를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높은 산성이 어디에 몇개나 되는지 미리 조사해보고 실수 없이 가서 점령해야 되지 않겠읍니까?" 이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로운 말입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백번 옳은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는 반역심이 움크리고 있었읍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길이 열릴 것을 믿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면서 자기의 지혜를 믿던 무리들이 마침내는 반역자가 되었고 그결과 40년이나 모래 광야에서 헤매다

가 가나안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시체가 되었읍니다.

우리 충현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일하려 할 때에 광야에서 쓰러진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너무 인간적인 지혜를 앞세우다가 자기 할 일도 하지 못하고 남이 일하는 것까지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까 보아 염려가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3) 형제끼리 화목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은 결코 서로 싸우는 일이 없읍니다. 서로 사랑합니다. 어머님의 환갑날이라고 큰 아들은 좋은 비단옷을 지어오고 큰 딸은 소를 잡아 음식을 준비하였다 해도 아들과 딸이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반목하여 소송을 하고 있다면 그 옷이 가시옷이 되고 그 음식은 쓴 나물보다 더 써서 목에 넘어가지를 않을 것입니다. 형제끼리는 서로 물고 뜯고 싸우면서 어머님께 비단옷을 입혀드리면 그 비단옷은 가시보다 더 아프게 어머님의 마음을 찌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들은 형제간에 서로 붙들어주고 사랑으로 돌보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성도들끼리 다투는 법이 없으며 서로 화목하며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피차에 저주를 못하고 축복해 주며 붙들고 나갑니다. 성도의 입에서 성도를 저주하는 말이 나온다면,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피차에 축복만 하지 결코 저주를 할 수가 없읍니다.

한피 받아 한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은 백성이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성도간에 하나가 되어 피차에 용서하고 피차에 붙들어 주고 피차에 축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시다. 돈·권세·명예·지식 뿐만이 아니라 내 생명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요셉처럼 절대로 죄와 타협하지 말고 차라리 감옥을 택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다니엘처럼 선한 일에 후퇴하지 말고 차라리 사자굴을 택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드락·메삭·아벳느고처럼 우상에 절하지 말고 차라리 풀무불을 택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일편단심을 바치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말씀을 마치겠읍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안에 우리의 주소를 정하고 그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교회와 가정과 개인이 되시기를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꿈에라도 하나님의 원수 악마와 의논하며 진리를 거스리는 자가 되지 맙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는 견딜 자가 없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형제간에 화목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복 성공의 복, 승리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디오 방송설교 안내

매주 3부예배 실황

-음파를 타고 가는 복음 -

• 매주일 오후 7시 15분

아세아 방송 1566KHZ

* 교회설립26주년 기념설교 *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사야 / 60 : 1—9〉



정 상 우목사
〈부목사 · 교육위원회위원장〉

오늘은 우리 충현교회가 설립된 지 만 26년이 되는 매우 뜻깊은 주일입니다. 신약시대에 예루살렘교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처음 시작된 것과 같이 만 26년전, 1953년 9월6일 고 한명덕집사님댁 2층에서 열여덟명이 모여 첫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충현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6·25의 전란으로 폐허가 된 바로 이곳은 전에는 조선극장과 대원각이라는 유명한 요리집이 있던 곳이었는데 6·25전란으로 모두 불타버리고 폐허 위에 몇채의 집만이 덩그라니 남아 있던 곳입니다. 이곳의 대지를 성전 대지로 매입하고 1953년 10월 28일 수요일 저녁 이곳에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일년 후인 1954년 10월에는 성전건축 기공예배를 드리고 일년 후인 1955년 12월 16일 수요일 저녁에는 성전건축 공사의 일부가 완성됨으로 바로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교회설립 만 26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받은 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주신 바 사명을 새롭게 각성하면서 어떻게 오늘에 받은 사명을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내일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1. 하나님의 세가지 명령과/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0장 본문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주신 사명과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는 명령형으로 된 세가지의 하나님의 명령이 있읍니다.

첫째는 "일어나라"

둘째는 "빛을 발하라"

세째는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와같은 3가지 명령은 바로 빛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아주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더구나 오늘 교회설립26주년을 맞이 하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우리는 겸손히 받아 들여야 될 줄로 압니다.

먼저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세가지 명령을 하셨는지 또 왜 우리는 일어나야 하고, 빛을 발해야 하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 우리가 먼저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일어나야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라고 했읍니다. 우리는 먼저 빛을 받았읍니다. 하나님의 빛을 받았읍니다. 그러므로 일어나야 되겠고, 빛을 발해야 되겠고 또 눈을 들어 사방을 봐야 되겠읍니다.

캄캄한 밤이 지나 동녘 하늘에 태양이 떠 오르면 온 누리가 밝아집니다. 아침이 오면 사람들은 일어나 일할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태양빛이 환하게 비추고 아침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잠자리에 있는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성실한 생활인도 아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병든 사람 아니면 게으른 사람일 것입니다.

빛을 받은 사람은, 새 아침을 맞이한 사람은 일어나야 하고 그리고 또 빛을 발해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교회는 큰 빛을 받은 교회입니다. 큰 은혜의 빛을 받은 교회입니다. 26년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장을 했읍니다. 처음의 18명의 교인이 약 3200세대에 장년교인수만 8000명이 되었고, 6명으로 시작한 주일학교가 15부 주일학교에 4,500명의 학생으로 성장했읍니다. 그 뿐 아니라 인도네시아, 홍콩, 서독, 애굽, 호주, 아르헨티나, 일본 등으로 선교사

바뀌었읍니다

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주 떨어지는 법이 없읍니다. 죽은 자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병든 자는 제 구실을 못합니다. 어떤 경우는 교회에 암적인 존재가 됩니다. 욕심에 병이 든 환자들, 교만의 병이 든 환자들, 시기와 질투에 병든 사람들, 원한의 독이 가득찬 사람들, 허영심과 악한 습관, 혈기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병든 사람들로 인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러워졌는지 모릅니다.

이런 병든 자를 향해 주님은 일어나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중에 "나는 병들었구나. 신앙에 병들었구나. 믿음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의 병을 한번 진단해 보십시요.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병든 자를 향하여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일어나거라 건강한 사람이 되어라"는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 건강한 성도가 됩니다. 이것은 성령의 권능이요, 말씀의 권능이요, 그리스도 사랑의 권능입니다.

③ 잠든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5절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잠만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새벽녘에 그들에게 "일어나거라, 같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도, 병든 자도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죽은 자와 같읍니다. 자기 할 일을 하지 못합니다. 자기 의무도 모르고 환경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자기 이웃이 어떠한 형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거치장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오늘날 영적의 잠을 자고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의 발전에 장장을 가져 오고 있지나 않는지요. 과숫꾼이 졸면 성안의 많은 사람이 위험을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처럼 자는 사람을 향하여 "일어나거라, 깨어라" 분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잠자고 있는 자가 없읍니까?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자는 성도가 없읍니까? 성전건축, 세계선교, 북한선교, 천국일꾼 양성 등의 중요한 주의 사역들을 맡아 놓고 잠꼬대로 그저 말만하고 실상은 잠만 자고 있는 주의 종들은 없읍니까? 성도들은 없읍니까? 이 시간 "잠에서 깨어 일어나거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살고 이 시대가 살고 교회가 발전합니다. 물론 병든 성도들이 있으면 병상에서 벌떡 벌떡 일어나서 건강한 몸이 되어야 되겠지만 보다 더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어떠한 빛을 발해야 합니까.

밤에 비치는 달은 본래 발광체가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하는 것이 달의 빛입니다. 우리도 실상은 우리가 발할 수 있는 빛은 하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는 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빛을 받은 우리가 비추어야 할 빛은

① 진리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 진리의 빛, 신앙의 빛, 오로지 보수신앙의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캄캄하고 어두움이 짙어져도 우리 신앙은 진리에 굳게 서야 할 것이고 우리의 진리의 빛도 찬란히 빛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빛을 바로 간수하고 바로 발하는 것, 이것이 참되게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진리의 빛이 자유주의 신학으로, 극단적인 신비주의로 흐려지고 있읍니다. 이는 어두움이 짙어지는 마지막 때에 되어지는 하나의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이 진리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진리의 보수, 또 진리의 바른 말씀을 빛나게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읍니다.

② 선행의 빛을 발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취어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선행의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과 믿음은 선한 행실이 반드시 따라 가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 같다."고 했읍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행실로써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열정을 발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③ 복음의 빛을 발아야 합니다.

세상이 어두워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 빛을 받은 교회는 복음의 빛을 힘써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되게 영혼을 사랑하는 길이요, 이것이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달란트를 받은 교회로서 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북한선교, 세계선교에 더욱 더 힘써야 합니다. 복음의 빛을 철의 장막 안에 복음이 비추어져야 할 지역에 그 어떠한 지역이라도 우리는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세째로 눈을 들어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한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땅 위에 살 때 비록 환난, 핍박이 많이 있지만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네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보아라"하

를 과송하는 교회가 됐읍니다. 놀라운 축복을, 놀라운 은혜의 빛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일어나야 하고 빛을 발해야 되고 눈을 들어 사면을 보아야 합니다.

둘째는 어두움이 더욱 깊어졌기 때문입니다.

2절에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라고 했읍니다. 오늘날 세상은 겉으로 보기에는 매우 밝아지는 것 같읍니다. 고도로 발달하는 과학 문명은 세상을 점점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 갑니다. 정말 이 땅 위에 낙원이, 유토피아가 이루어지는 것 같읍니다. 분명히 우리의 겉생활은 좋아지고 있읍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우리의 양심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 볼 때에 어두움은 그전보다 더 짙게 짙게 깔려 있읍니다. 음란, 방탕, 살인, 강도, 온갖 죄악이 이전보다 엄청나게 더 많아 지고 이 세상을 어두움으로 이 사회를 꽉 누르고 있읍니다. 도덕의 밤은 점점 깊어 가고만 있읍니다.

공산주의 정권은 사람들의 자유와 인권을 여지없이 짓밟고 있읍니다. 그리고 그 판도가 점점 넓어져 가고 있읍니다. 심지어 자유와 인권을 존중한다는 민주 진영에서도 정치의 어두움이 날로 더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의 정치현실이 아닙니까? 영적인 밤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20세기 후반기에 사는 현대 문명사회 속에서도 각종 우상숭배가 성행하고 있읍니다. 이 서울 대도시에도 커다란 우상이 이곳 저곳에 서 있읍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복음을 흐려놓고 있읍니다. 심지어는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의 이름으로 들어와서 복음을 더럽히고 있읍니다. 기독교 안에 무신론이 있읍니다. 기독교 사신론(死神論)이 있읍니다.

이렇게 어두움이 짙어졌기에 빛을 받은 우리는 더욱 일어나야 되겠고, 빛을 발해야 되겠고 눈을 들어 사방을 볼 줄 알아야 되겠읍니다. 빛은 어두움이 짙을수록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을수록 빛은 빛나야 하는 것입니다.

세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왔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과 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짙어지면, 밤이 깊어지면 반드시 오는 것이 있읍니다. 그것은 새벽입니다. 그러므로 밤이 깊을수록 어두움이 꽉 찰수록 성도는 낙심하는 대신에, 자포자기 하는 대신에 도리어 새벽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성도는 등불을 밝혀서 신랑 영접할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선한 청지기로 충성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빛을 받은 성도는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될 것이고, 또 눈을 들어서 사방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2. 세가지 명령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한 3가지 명령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부터 일어나야 하며, 어떠한 빛을 발해야 하며, 무엇을 볼 것을 분부하고 계십니까.

첫째 우리는 어디에서 일어나야 합니까.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일어나거라" 분부하신 세 종류의 사람을 찾아 볼 수 있읍니다.

①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들어 갔을 때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외아들의 슬픈 장례행렬을 보고 그 죽은 청년을 향하여 "청년아 내가 이르노니 일어나거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사람같지만 생명의 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은 벌떡 일어났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죽은 자를 향하여 일어날 것을 명하실것입니다. 육체적 죽은 자도 마지막 날에는 일어날 것을 분부하실것입니다. 또 지금 영적으로 죽은 자를 향해 일어날 것을 분부하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참 복있는 사람입니다. 이 음성을 듣는 자는 영적 죽음에서 살아납니다. 중생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생명에 참여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입니다. 아니 보다 더 근본적으로 창세 전에 우리를 택정해 주신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서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일 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영적 죽음에서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생명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일어나거라"고 분부하십니다.

② 병든 자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못가에서 38년된 병자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분부하십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읍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권능이었읍니다.

병이 든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식구들도, 자신도 괴로운 일입니다. 자기 할 구실을 못하는게 병입니

고 명령하시는 것은 내일에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환상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① 많은 사람들이 회계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환상입니다.

이는 본문 4절과 5절 상반절에서 찾을 수 있읍니다. 이는 예수님 재림 전에 있어지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승리의 비젼입니다.

② 풍요한 부요를 누리게 하는 축복의비젼입니다.

5절 하반절에서 9절에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재물을 싣고 이방사람이 들어 오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읍니다.

③ 영화로운 하늘 성전의 비젼입니다.

이는 10절에서 14절에 나타나 있읍니다.

④ 메시야 시대의영광스러운 도성의비젼입니다.

성도는 내일의 비젼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 19절에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읍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간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여기에 참된 성도의 기쁨이 있으며 성도의 참된 소망이 있읍니다. 이러한 내일의 영광스러운 비젼을 바라 보는 사람은 오늘에 끊임없는 충성이 따르게 될 것입니다.

교회설립 26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충현교회 성도들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눈을 크게 떠서 사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이 증거하는 복음의 승리를 바라봅시다. 홍콩과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와 중동지역, 유럽, 남북미, 호주의 전세계가 복음화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광경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 봅시다.

또한 새 성전 건축이나 세계선교를 여유있게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재물의 환상을 봅시다. 분명히 이 시간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제 신령한 눈으로 강남구 논현동에 세워지는 새 성전의 환상을 봅시다. 이제 우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의 환상을 바라봅시다.

3. 세가지 명령을 어떻게 실천합니까?

일어난다는 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일어나라"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믿기만 하면 죽음의 자리에서도, 병든 자리에서도, 잠에서도 벌떡 일어날 수가 있읍니다. 믿음은 일어나는 생명의 힘이 됩니다.

빛을 발한다는 것은 사랑의 역사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 우리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는 진리의 빛을 발할 수가 있는 것이고 불신자의 영혼을 사랑할 때 우리는 복음의 빛을 발할 수가 있읍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은 빛을 발하는 능력이며 운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들어 사방을 본다는 것은 소망의 역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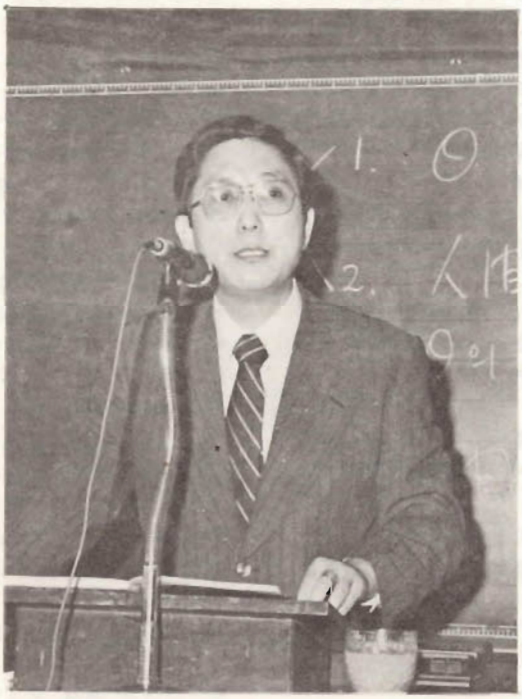
소망이 없을 때 눈을 들어 사방을 볼 수가 없읍니다. 눈이 감겨지고 맙니다. 눈을 들어 내일의 비젼을 바라 보는 사람은 아무리 오늘의 현실에 절망적인 것이 있을찌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에 책임에 충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내일의 축복을 바라 보게 하는 눈입니다. 안약입니다. 믿음으로 일어나고 사랑으로 빛을 발하고 소망으로 눈을 크게 떠서 사방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생활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믿음으로 일어나야 하고 사랑으로 오늘의 역사를 해야 되고 소망으로 내일의 축복을 바라 보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믿음, 사랑, 소망, 이것은 항상 있어야 된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읍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눈을 크게 떠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십니다.

특히 교회설립 26주년을 맞는 충현교회는 오늘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함차게 일어나야 합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잠에서 일어나서 우리는 기도하여야 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뜻을 같이 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한 사랑으로 힘있게 빛을 발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리의 빛을 발해야 될 것이고 불신자의 영혼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복음의 빛을 발해야 될 것입니다. 진리를 보수하고 선교에 힘쓰는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눈을 들어서 사방을 좀 넓게 바라 봅시다. 오늘의 현실에 급급하지 말고 내일을 바라봅시다. 동남아가 복음화 되고 이 민족이 복음화 되는 이 놀라운 비젼을 바라 봅시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지는 풍성한 재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모든 축복, 넉넉히 성전 건축도 감당할 수가 있고 세계선교도 감당할 수 있는 이 풍성한 재산 등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바라 보고 전진합시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내일의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승리, 이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충현교회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공산권 선교전략과 그 대책

이 종 윤목사 〈철학박사·아시아 연합 신학원 교수 중현성경학원 강사〉



오늘 저에게 주어진 제목이 「공산권 선교전략과 그 대책」이라는 좀 엄청난 제목이 주어졌는데 사실은 제가 공산권을 연구한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봉사하고 있는 아시아 연합 신학원이 아시아를 복음화 하겠다고 세워진 국제적인 신학교이기 때문에 이 아시아 인구의 55%를 차지하고 있는 공산권을 무시할 수가 없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 4년 전에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과 함께 북한 선교회를 시작하면서 부터 공산권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된 것입니다.

공산권의 선교전략을 이야기 하기전에 앞서 먼저 아시아의 과거, 현재의 상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것이 도움이 될 것 같읍니다. 세계인구의 65%가 아시아에 살고 있고 이 아시아 인구의 55%가 공산권에 속해 있읍니다. 55%라는 이야기는 지금 아시아는 공산권으로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중공에는 현재 9억5천만이 살고 있읍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발표한 것이고 중공 정부로서는 알지를 못 합니다. 이는 약 10억을 말하는데, 전세계의 인구를 40억이라고 볼 때 1/4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월맹에는 2천2백만이 통계로 나와 있읍니다. 또한 가장 무서운 공산 국가로 알려진 몽고가 1백3십만 또 캄보디아에 약9,700만만, 월남에 1천9백만. 북한에 1천5백만이 최근에 공산국가로 변질된 라오스가 약300만이 살고 있읍니다.

확대되어 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읍니다. 따라서 아시아에서 가장 큰 선교의 대상은 공산권이라 볼 수 있읍니다. 아시아 선교의 대상을 몇가지로 나누어 보면 공산권, 불교권, 유교권, 모슬렘권, 그리고 또 극도로 팽창된 물질주의자들이 또 하나의 선교대상이 될 수 있읍니다. 이러한 몇가지 선교 대상권 중에 가장 크면서도 어려운 대상이 공산권입니다. 모슬렘 국가 안에도 현재 기독교가 있고 또 기독교는 모슬렘국가 안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읍니다. 모슬렘을 국교로 믿는 나라에서도 기독교가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지는데 공산권에서는 기독교를 가장 큰 원수로 보고

있읍니다. 그래서 선교대상으로 공산권을 이야기 할 때 가장 어려운 대상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아시아의 공산국가들을 좀 더 세분해서 살펴볼 때 공산국가 중에서도 기독교를 가장 악랄하게 핍박하는 나라가 세나라 있는데 그것은 캄보디아, 몽고, 그리고 북한입니다. 이 세나라는 다른 어떤 공산국가와도 비교가 안될 만큼 무섭게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북한의 공산주의자를 한번 살펴 봅시다.

「월간북한」이라는 잡지의 지난 12월호에 제가 북한의 종교가 30년 동안 어떻게 변질되어 왔는가를 투고한 것이 있읍니다. 북한에서는 세단계로 나누어 종교정책을 폈읍니다. 첫째로 제한정책이 있읍니다. 1955년까지 이 정책을 썼읍니다. 이것은 예수 믿으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고등학교 입학허가를 안해 준다던가, 더 높은 자리에 진급이 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되도록 믿지 못하게 하고 믿으면 손해가 되게 하는 것을 제한정책이라고 합니다. 1955년에 와서 이것이 박해정책으로 바뀌었읍니다. 이는 재산을 몰수한다던가, 심한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는 반동분자로 몰아 붙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1972년에는 종교말살 정책으로 까지 발전했읍니다. 1972년은 북한에서는 중요한 해로 계산됩니다. 이 1972년에 북한의 헌법이 바뀌었읍니다. 「인민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동시에 반 종교의 자유도 있다.」라고 바뀌었읍니다. 이처럼 헌법을 바꾸어 놓고 종교말살정책을 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말살정책이 매우 심하게 일어났읍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하나가 잡히면 자신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아는 사람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이것을 말살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북한에는 종교가 없느냐? 기독교가, 교회가 없느냐? 말살정책에 의해 뿌리채 뽑혔느냐? 뿌리채 뽑힌 것은 아닙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종교가 있읍니다. 그러나 표면상으로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지하로 들어간 지하교회가 남아 있읍니다.

Ⅰ. 공산권 선교전략

이처럼 지하로 숨어버린 공산권에 선교하기 위해서는 소위 전략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산권의 선교전략을 세우는데는 우리가 전제로 할 것이 있읍니다. 그 첫째가 해당국가의 정치분위기와 세계 정세에 따라서 제한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하려는 공산국가의 정치분위기가 자꾸 변합니다. 세계 정세가 바뀌는데에 따라 선교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세계 정세를 무시하고 교회에서 독자적인 전략은 있을 수 없읍니다.

최근에 중공이 서방에 문호를 개방했읍니다. 북경에 교회가 열려 있읍니다. 개신교회가 하나, 카토릭이 하나 그리고 모슬렘교회가 하나 열려 있읍니다. 또한 상해에도 교회가 하나 열려 있읍니다. 또한 월맹에도 아직 교회가 닫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는 중공이 서방사회나 종교에 대해서 더 이상 문을 닫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이처럼 공산국가의 정치 분위기가 변해가는 상황에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인가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크게 나누어서 가능한 방법과 불가능한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읍니다. 또 가능한 방법을 직접적인 방법과 간접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읍니다. 직접적인 방법은 공산권에 있는 사람에게 직접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는 방법이고 간접적인 방법은 직접선교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여건을 만드는 전략을 말합니다. 또 불가능한 방법은 직접 공산권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것이나 교회를 세우는 것 등은 아직 상태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 직접선교의 방법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선교를 금하고 있읍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국가에서 선교를 한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는 일이 됩니다. 여기에서 갈등이 생기는데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서 선교를 해야 되느냐 하는 갈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명령 곧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하신 것과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가서 세상의 모든 사람을 제자를 삼고 그들에게 세례를 주라는 복음명령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문화명령은 복음명령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문화명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또 동시에 복음명령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명령은 절대명령입니다. 그래서 복음전파는 어디서나 감행해야 합니다. 그나라 국법이 예수를 못믿게 할찌라도 우리는 복음명령을 순종하여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이처럼 직접선교는 나라의 법을 어겨 가면서도 해야 하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몇가지 방법이 있읍니다.

1) 방송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북경에 가서 북경호텔에서 라디오 다이알을 맞추었더니 "여기는 서울 중앙방송국입니다"하고 나와요. 또 아세아방송 설교도 나옵니다. 방송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이 방송을 통한 방법은 지금까지 해오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에 몇가지 문제점이 있읍니다.

첫째는 정치적인 이야기를 안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 목사님들이 방송을 통해 설교를 하시는데 제일 먼저 인사의 말이 "여러분들 오늘도 얼마나 고생을 하셨읍니까? 철의 장막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읍니까?"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중공에 가보니 그 사람들 별로 고생을 안해요. 말하자면 이북방송 같은데서 우리들에게 하는 방송에 "오늘도 미제국주의자들에게 얼마나 노동

에 시달렸읍니까?"라고 말할 때 그 다음 이야기는 전부 거짓말로 들립니다. 이와같은 효과를 가져 올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방송설교를 하실 때는 그런 정치적인 이야기는 하지 말고 순수하게 복음만 전해야 된다는 것 입니다.

둘째는 용어가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중공과 북한은 말이 많이 바뀌었읍니다. 요즈음에 새로운 사전이 나왔읍니다. 우리가 쓰는 말과 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아무리 이야기 해도 그들은 다르게 이해를 해버립니다. 여기서 방송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신 원고와 같이 하시면 그들은 50%도 이해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언어를 연구해야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쓰지 않는 용어를 쓰기 때문에 전혀 이야기가 안됩니다. 그들중에는 종교라는 말조차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읍니다. 이처럼 용어이해가 안되니 언어에 갭이 생기게 되고 이 갭을 어떻게 없애느냐 하는 것이 방송설교의 중요한 숙제가 되고 있읍니다.

문화명령은 복음명령을 위해서 있는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을 정복해야 할 책임이 있읍니다. 문화명령과 복음명령을 동시에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공의 경우에는 영어방송을 하면 됩니다.

중공에는 지금 영어학습이 대단한 붐을 타고 있읍니다. 중공에는 밸레비젼이 별로 없어서 호텔 같은 데에 있는 텔레비젼 앞에는 늘 사람들이 모여 있읍니다. 텔레비젼에서 사람이 "I am a boy"하면 둘러선 사 이 모두"I am a boy"하고 따라 합니다. 이 정도로 중공에는 영어학습에 열을 올리고 있읍니다. 그런데 다가 영어를 가르쳐 주면서 전도하는 방법, 이것은 백발백중입니다. 영어로 설교를 하고 또한 영어 강좌도 하면서 영어로 방송을 하면 됩니다.

세째는 라디오를 보내야 합니다.

북한은 아직도 라디오 다이알을 고정시켜 놓고 있기에 북한 사람들은 우리방송을 듣고 싶어도 들을수가 없읍니다. 또한 그나마 라디오가 없읍니다. 이것은 중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중공에 가서 집단농장을 갔더니 집집마다 스피커가 있고 본부에서 고정 다이알을 틀어 주고 있는 것을 봤읍니다. 그러면 라디오는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느냐?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읍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중공이나 북한선교를 위해 방송설교를 아무리 해도 별 효과가 없읍니다. 들을 기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라디오 보내기 운동을 해야 합니다.

2) 성경을 밀입국시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있읍니다. 조수간만을 이용해서 바닷물이 들어 갈 때에 집어넣기도 하고 일본 인도나 혹은 다른 지역을 통해서 성경을 보내고 있읍니다. 또한 풍선에 매달아서 펑 터지면서 흩어져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쓰지만 그 성공율이 매우 희박한 방법들입니다.

새로운 방법을 하나 제시하자면 우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주소는 중공 같은 데서 나온 전화번호부를 이용하면 됩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를 통해 전화번호부를 입수하여 리스트를 만들고 필체가 똑같으면 안되니까 수백명이 앉아서 각각 다른 필체로 써서 보내면 됩니다. 지금 일본이나 홍콩에서 하루에 한 권은 얼마든지 들어갑니다.

3) 사람이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영어선생이 되어서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중공은 영어붐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영어선생이 필요합니다. 제가 항주에서 어떤 유학생을 만났는데 그 대학생이 뭐라고 하냐하면 최근에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영어선생님이 한 분 오셨는데 자기들에게 영어 이름을 지어 주었다고 해요. 그 이름이 뭐냐 하니까 스데반, 마르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스데반은 크라운(Crown)이라는 뜻인데 하면서 개인전도를 했읍니다. 아마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들어 간 그 영어선생은 선교사일지도 모릅니다.

또 그 다음에 물리학교수, 화학교수 등으로 들어갈 수 있읍니다. 중공사람들은 지금 다른 나라의 문물을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 아주 무서울 만큼 열기가 차 있읍니다. 상해거리에 큰 간판에 우리는 2천년을 향해 가는데 과학문명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 아주 엄청난 큰 프레카드로 써 붙여 놓았읍니다. 이런 것을 도처에서 볼 수 있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세계적인 학자가 되어 중공이나 기타 공산권에 교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의사를 원합니다.

제가 중공에서 병원을 가 보았읍니다. 자기들의 시설을 죽 보여 주는데 실험도구, 실험실을 보게 되었읍니다. 실험실에 있는 현미경이 50년 정도 이전에 나온 것인데 맞춰보니까 안맞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의학을 하고 사람을 고친다 하니 참 한심한 노릇이지요. 종합병원의 응급실에 가 보니 환자끼리 이마를 마주 대어 놓았어요. 소름이 끼치는 일이었읍니다. 그들은 의사를 원하고 있읍니다.

또한 비지니스맨 소위 장사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빨리 중공하고 국교를 열어야 합니다. 제가 중공에 갔을 때 북경에서 한 미국사람을 만났읍니다. 그 분은 미국의 남침례교회의 장로님이셨고 농업기계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님이었읍니다. 그래서 중공정부의 초청을 받아 북경에 공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라며 자기는 한달에도 몇번씩 북경을 왕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같은 비지니스맨들이 지금 중공 안에는 많이 있읍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읍니다.

또한 유학생이나 외교관을 생각할 수 있읍니다.

지금 중공에 있는 외교관 가운데 자기 아버지가 예전에 북경 선교사였던 사람이 있읍니다. 그 사람이 지금 미국대사관 직원으로 가 있읍니다. 이 사람은 대사관에서 월급은 받지만 선교사나 다름 없읍니다. 그 다음으로 공산국가로 부터 제 3 국에 나와 있는 유학생, 외교관 혹은 비지니스맨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지금 제가 있는 아세아 연합신학연구원에 공산권선교연구소가 생겼읍니다. 우리나라에 공산권을 연구하는 기관은 20군데가 넘는데 선교연구소는 저희 학교 뿐입니다. 제가 거기에 소장으로 있읍니다. 그래서 공산권을 선교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느냐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제 3 국에 나가 있는 유학생, 외교관, 비즈니스맨에게 전도해야 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읍니다. 지금 아세아연합신학연구원에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일본, 인도네시아, 심지어는 공산국가인 라오스에서 까지 온 학생들이 있읍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마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도 한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한 관심과 애정은 계속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신학 공부를 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읍니다. 그들이 그런 가운데 북한에서 나와 있는 북한의 외교관들이나 유학생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나라 선교사들은 아무리 만나려고 해도 만날 수 없는사람들을 그들은 쉽게 만납니다. 이런 방법으로도 선교의 길을 찾을 수 있읍니다.

2. 간접선교의 방법

1) 우리나라를 부강한, 살기좋은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산권 선교를 하는데 있어 우리나라를 부강한, 살기좋은 나라로 만든다는 것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읍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부요하게 된다는 것은 선교에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중공이 문호를 개방하게 된 이유는 경제적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계속 발전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그 태도를 바꾸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왕성해지고 성장할 때에 중공은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나라와 국교를 맺자고 먼저 문을 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를 부강한, 실력있는 나라로 만드는 것이 간접선교의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2) 우리 사회를 의로운 사회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나 경제발전은 공산주의 그것보다 빠르다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도 다 알고 있읍니다. 자본주의하고 경쟁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제적인 발전보다도 계급없는 평등한 사회가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사회가 불의한 경우, 불평등할 경우, 사회 격차가 너무 심해서 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을 경우 그들은 항상 우리사회를 향해서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읍니다. 그러므로 경제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사회를 의로운 사회로 변화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교회가 이 불의를 향해서 지적할 줄도 알고 책임을 질 줄도 알고 이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같이 근심하고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교회가 아성을 쌓아놓고서 그 안에서 자기들만 복 받으면 된다고 하는 사상은 오늘 우리가 북한을 선교하고 아시아를 선교한다고 하는 이 처지에서 그럴 수가 없읍니다.

3)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비공산국가에게 선교하는 것도 간접선교의 하나입니다.

공산주의 국가도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수가 없읍니다. 따라서 그들이 접촉할 수 있는 외부세계에 크리스챤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그들에게 선교할 수 있는 외부세계에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선교 활동은 공산주의 국가들에 대한 간접선교가 될 수 있읍니다. 우리들이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다른 나라에게 전도를 해 놓으면 공산국가의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이 크리스챤일 경우에 그들에게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됩니다.

4) 하나님께서 공산주의를 자기의 선교전략으로 사용하실 수 있읍니다.

중공이나 북한의 교회들이 문을 닫은 이유가 어디에 있읍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공산당의 힘에 못이기 쓰러지신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읍니다. 성경을 잘 읽어 보면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읍니다. 예루살렘이 범죄했을 때에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였읍니다. 1949년의 중공의 교회는 타락할대로 타락했읍니다. 이들은 그때 하나님을 두려운 줄 몰랐읍니다. 그래서 중공교회가 선교사들의 앞잡이가 됐고 교파가 분열하고 교회는 온통 세속화 되어

버렸읍니다. 중공교회의 또 하나의 문제는 토착신앙입니다. 중국사람들의 유교사상, 불교사상, 도교사상의 뿌리가 너무 깊어 이것을 뽑을 길이 없었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산당을 통해서 지난 30년 동안 토착사상을 뿌리채 뽑아 버렸읍니다. 그래서 중공은 마치 막 밭을 갈아 놓은 옥토와 같읍니다. 거기에다 우리는 뿌리면 씨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번에 중공에 가서 실제적으로 느끼고 보았읍니다. 바로 하나님이 공산당을 당신의 선교전략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유지해야지 만일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잃어버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이 두렵읍니다. 공산당이, 북한의 괴뢰군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무섭읍니다.

Ⅱ. 공산권 선교전망

제가 보는 중공선교의 앞은 앞으로 한세대가 지나기 전에는 급한 판단일지는 몰라도 서구의 직업적인 선교사를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인 전도자도 공식적으로 받아 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미국사람들은 미국의 선교사들이 활동하기 어려운 곳에서 그 나라 사람들을 이용하는 습관이 있는데 그것을 중공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한 세대안에 직업적인 선교사를 받아들이지 않을 전망 가운데 현재 중공의 변화는 놀랍읍니다. 외부와의 빈번한 접촉, 특별히 여행자에 대한 문호 개방, 나아가 세계와 그들의 종교정책에 까지 변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처럼 한 세대 안에 직업적인 선교사를 받아 들이지 않을 전망 가운데 현재 중공의 변화는 놀랍읍니다. 외부와의 빈번한 접촉, 특별히 여행자에 대한 문호 개방, 나아가 세계와 그들의 종교정책에 대한 태도까지 지금 자꾸 변하고 있읍니다. 그 변화를 최근에 들어온 정보로 알아 보겠읍니다.

첫째 중공에서는 1949년에 공산당들이 기독교 재산을 몰수 했읍니다. 그런데 지난 6월에 30개의 종교단체들에게 그 재산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읍니다. 둘째 중공은 미국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들이 압수했던 교회 재산의 배상금으로 8,500만불을 지불할 것을 약속 했읍니다. 이것은 1불에 대해 41전씩 계산한 것입니다.

세째 미국 연합 장로교의 전신인 감리교회가 중공정부에 손해배상 청구도 하지 않았는데 감리교에 685,200불을 지불하겠다고 통보를 해 왔읍니다. 이것 또한 놀라운 소식입니다.

네째 1953년에 선교사로 있던 이랜 헨슨이라는 부인의 차를 압수했는데 그것은 앞으로 2년이내에 1,400불을 보상하겠다는 편지가 왔읍니다.

이와같은 일련의 일들은 중공이 지금 서구의 종교에 큰 표시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이처럼 종교에 관한 관심이 점차 완화되면서 또 하나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방문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점입니다.

금년 4월 4일부터 홍콩에서 관동으로 들어 가는 기차가 열려 하루에 8회, 매회 640명이 들어갑니다. 공휴일이 되는 주말에는 한번에 20만명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5월부터 홍콩에서 항주과 남경에 전세 비행기가 운행되기 시작했고 앞으로 몇달 내에 중공 주요도시와 인근 주요도시들과 90대의 비행기를 연결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읍니다. 마카오에서는 버스나 택시로 중공에 갈 수 있읍니다. 또 미국의 오하이오 인터내셔날이라는 회사는 중공 정부의 창탁으로 일만개의 방을 가진 호텔의 건축을 맡고 그 계약이 체결됐읍니다. 팬 아메리카나 다른 비행기 회사들이 계속 중공 착륙을 교섭 중에 있읍니다.

이처럼 중공이 문을 열고 여행자를 받아 들이는 것은 사회주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이렇게 잘 산다하는 것을 보여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놀랜것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분수를 모르는 것처럼 불쌍해 보이는 사람이 없는데 중공이 바로 그런 격입니다.

이와같은 변화의 물결 속에서 더욱 조심해야 할 점이 있으니 선교라는 구실 하에 독소가 있는 소위 제국주의가 들어갔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에게 발견될 때 중공내에 있는 크리스챤의 결과는 어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무슨 의미이냐 하면 상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이들이 몰려서 로라스케이트를 타고 있어요. 그 로라스케이트를 어디서 샀느냐고 물었더니 홍콩에 있는 친척이 선물로 갖다 줬다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고 위험한 것입니다. 중공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가장 잘 사는 나라로 알고 있는데 외국 것이 자꾸 들어와서 나중에는 소위 자본주의의 찌끄러기들이 들어와서 공산사회와 다른 것이 있다는 것이 발견될 때는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이 박해를 받을 위험이 있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 사람이나 외국인들의 크리스챤들이 방문자들에게 열려 진 제한된 창구를 이용할 특권을 위장전술에 이용했을 경우 이 복음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겠느냐 하는 신

학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저는 중공에 가서 미국에서 왔다고 말하지 않았읍니다. 대한민국에서 왔다고 분명히 밝혔읍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잡히는 경우에 내가 거짓말을 시켜서 미국의 스파이로 몰릴 수도 있읍니다. 나는 내가 믿는 종교가 생명을 가진 종교이기 때문에 이 종교를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면 내어 쫓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정치스파이로 오해를 받게 됩니다.

이상의 것을 간추려 보면 하나님께서 오늘 2가지 방법으로 중공선교의 길을 크게 열어주고계십니다.

첫째는 외국에 있는 중국인 크리스챤들이 내국에 있는 중국인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외국인 크리스챤들이 중국인에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홍콩에 있는 한 간호원이 아프리카 잠비아에 갔읍니다. 잠비아의 탐잠이라는 곳에 철로를 놓는데 중공 노동자 35,000명이 갔읍니다. 이 간호원은 간호원의 직무를 수행하며 이 35,000명을 대상으로 전도하기 위하여 간 것입니다.

모잠비크에는 지금 250,000명의 중공 사람들이 가서 일을 하고 있읍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교자로 갈 사람을 찾고 있읍니다. 라디오 프로그램을, 성경을 보낼 사람을 찾고 있읍니다. 지금 아시아와 전 세계는 한국 교회를 향하여 손을 흔들고 있읍니다. 마치 바울 선생이 마게도니아에서 자기를 불렀다고 하는 말씀과 같이 지금 아시아는 우리 한국 교회를 부르고 있읍니다.

Ⅲ. 오늘날의 중공 교회현황

오늘날 중공에는 외형적인 형태를 가진 교회는 없읍니다마는 중국 대륙으로부터 기독교 신앙까지는 몰아내지는 못했읍니다. 지금도 농촌에서는 이 교회들이 자유롭지는 않지만 눈치를 봐 가면서 모입니다. 그 눈치보는 방법이 여러가지가 있는데 가장 교인들이 모이기 쉬운 때가 장례식 때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릅니다. 중공에서는 다른 때는 집단으로 모일 수가 없는데 이 장례식 때는 허락을 합니다. 장례식이 있으면 기독교인들은 꽃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보냅니다. 그것을 보고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 나갑니다. 그것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던 기독교인들도 장례식집에 다 모이게 되고 장례행렬에서 찬송을 부르며 자기들의 신앙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중공의 교회를 고난받는 교회라고 합니다. 고난 당하는 교회는 가장 순수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중공의 교회는 가장 순수합니다. 거기에는 세속화 된 것이 없고, 교파주의가 없고 이단이 없고 시기와 질투가 없읍니다. 가장 순수한 교회로, 가장 생명력 있는 교회로 존속되어 있읍니다.

영적면에서 본다면 중공의 교회는 우리 한국 교회보다 훨씬 높은 차원에 있읍니다. 그들은 목사를 잃어 버렸읍니다. 그러나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 있읍니다. 그들은 고딕식 교회당은 즐길 수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속에서 실지로 체험하고 있읍니다.

중공의 교회는 아주 순수 합니다. 선교가 없지만 그들 자신이 스스로 선교사가 되어 보이지 않는 전도가 이어 지고 되어 있읍니다. 약한 자 같으나 그들은 핍박을 이겨내는 자들입니다. 가장 연약한 자 같지만 핍박을 이긴 자 들입니다. 설교를 더 이상 듣지 못했지만 그들의 매일 생활속에서 설교를 나타내는 사람들 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은 많은 설교로 귀만 높아 졌읍니다. 그러나 교리적으로는 고혈압증이 됐는데도 생활에는 빈혈증 환자가 되었읍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읍니다. 중공에는 이와같은 교회들이 조용히 그리고 힘있게 자라나고 있읍니다.

저는 좀 심하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서양인들에게 중국 선교를 위해 100년의 기회를 주셨고 그들은 그 일을 수행했읍니다. 중국 교인들은 복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초기의 선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릴 수 밖에 없었읍니다. 그러나 서양교회는 교파주의, 교리적 싸움, 불필요한 자유주의, 그리고 편협주의 때문에 중국 선교의 특권을 빼앗았고 중국 교회를 동정하여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외에는 알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해, 교회를 순결케 하시기 위해 오늘날 중국 교회에 고통을 주신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교회는 언제나 순수해 지는 법입니다. 외국에 거주하는 중국인이나 서양인들은 중국에서 고난을 당하는 교회에 동정을 보낼 필요가 없읍니다. 우리는 동정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할 필요가 있읍니다. 우리의 교파주의, 편협주의, 그리고 죽은 정통주의로 부터 우리는 크게 회개하여야 합니다.

Ⅳ. 공산권 선교의 대책

중공 선교전략을 말하려면 중공의 인구증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미국정부 발표에 의하면 서기 2000년에는 중공의 인구가 약 15억이 되리라고 합니다, 그들 중 절반 이상이 25세 이하가 됩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중공인들이 자본주의나 자유세계를 경험해 보지도 못하고 공산주의 통치에서만 성장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주 색다른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이처럼 인구문제와 새로운 공산주의 문화 형성은 중공 선교전략에 새로운 차

원의 견해를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외국에 살고 있는 중국 기독교인들이 밖에서 부터 복음을 들고 들어가는 주대행자가 된다면 이들의 인구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재 4,000만명의 외국에 사는 중국인 중에 기독교인이 2·5%인 100만명가량 됩니다. 이 100만명을 평신도지도자로 훈련시켜 (이것은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중공에 살고 있는 인구를 9억을 잡고 그중 10%만 변화시킨다고 해도 선교요원수와 피선교자의 비율이 1대 9000이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이야기 입니다. 또 이 계산은 현재의 계산이고 인구증가를 계속 감안할 때 2000년에는 15,000명을 상대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100만명의 평신도를 훈련시켜 그들을 중공으로 들여 보낸다는 것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그대로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문제이고 머뭇거릴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전략을 다시 제안합니다.

1. 다른 선교기관하고의 연합입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안되니까 공산권 선교를 위한 기관을 빨리 찾아 그들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급한 일입니다.

2. 선교를 위해 집단적인 신학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경학원 같은 평신도 훈련을 많이 시켜야 합니다. 이 운동은 매우 중요한 운동입니다.

3. 특별히 집중적으로 평신도 선교사를 훈련시켜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중공선교의 전략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읍니다.

첫째 중공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정보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특별히 보수교회 교인들과 신학자들은 정치적인 면에서와 같이 중공에 대해서 매우 잘못된 편견을 가지고 있읍니다. 다시 말하면 중공을 반공사상의 입장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처럼 반공하는 사람이 어디 있읍니까? 그러나 반공과 종교를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선교전략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 나라의 정치형태에 대해서 객관적 입장을 취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부작용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만일 미국의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나라의 인권, 민권문제를 따지고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선교사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미국에 있는 중공관계 선교기관과 유대를 갖고 중공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둘째 중공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중재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자극시켜 주는 일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비공산국가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중공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기쁨과 고난에 동참하게 됩니다. 지금 중공에 있는 교인들은 순수하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기쁨을 가지고 살고 동시에 고난을 가지고 삽니다.

기도하기 위해서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기도를 요청하기 위해 조직된 기관이—선교연구소나 선교회 등—필요합니다.

세째 연구하고 계획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오늘날 중공선교를 위해서 아주 값진 정보를 가지고 세밀히 분석, 검토하는 일보다는 하나의 붐을 조성하려는 잘못된 지도자와 기관들이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연구소나 선교기관에서는 중공교회 선교의 패턴을 연구해야 합니다. 지금 중공의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형태가 아닙니다. 정치적 변화가 중공인의 국가적, 사회적 요청에 무엇을 가져왔으며 어떻게 성공하고 실패했는지를 우리는 특별히 연구해야 됩니다.

중공에 있는 오늘날의 공산주의 운동 발전사를 연구하고 분석하고 특히 기독교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연구해야 됩니다. 1949년 이후 1979년 지금까지 중공의 종교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연구하고 그 종교정책에 따라서 중공의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연구해야 합니다. 중공의 새로운 공산주의 문제가 중공인들의 성품에 미친 영향과 복음전도에 미칠 영향을 생각해야 합니다.

네째 문서를 정비 준비해야 합니다.

일반 성도들에게 중공에 대한 재인식을 위한 문서 발간 및 자료제공, 중국사람에게 인식을 시키기 위한 중국어 문헌 발굴, 중공에서 사용될 책자의 출간 등 3가지류의 문서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중공에는 1919년에 단순화 된 한문자로 성경이 나왔읍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중공사회에서 읽혀질 수가 없게 달라졌읍니다.

다섯째 라디오의 구실을 재평가 해야 합니다.

이 중공 선교전략의 기본방향에 맞추어 방송프로와 언어를 선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기본선교전략의 방침은 여러분이 각자 세우실 수가 있읍니다.

정리 / 이형수집사

이 원고는 지난 7월 1일 청년부에서 실시한 이종윤 박사의 특강을 녹음, 정리한 것입니다. 〈편집자〉

** 중공에서 온 편지

민족복음화성회시는 함께 금식하며 은혜를 받았읍니다.

귀하신 구주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또한 성도의 교제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사랑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구령사업에 얼마나 바쁘신 나날을 보내시는지요? 수고하여 주시는 덕분에 이곳에 있는 저희들은 방송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고 있읍니다.

아세아 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또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모든 목사님들이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목자가 없는 외로운 양들과 같은 저희들에게 아세아 방송은 너무나도 값지고 생명력이 풍성한 단샘이 되며 또한 자애로운 어머니의 품과도 같은 사랑의 곳이기도 합니다. 저는 늘 마음속에 어머니방송국이라고 부르고 있읍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나에게 힘과 용기가 되고 잘못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입혀주고 먹여주며 사명감에 불 타있게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주님을 아는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하니 참말로 어머니의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주님께 수없이 감사를 드려도 못내 아쉬운 마음입니다. 믿지 않던 남편 역시 방송을 통해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으니 이 어찌 주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하겠읍니까.

갈급하고 메마른 이 심령에 방송설교라도 들을 수 있는 은혜라도 베풀어 주셨으면 생각하고 간절한 마음에서 라디오 다이얼을 돌리던 중 아세아 방송을 찾게 되었읍니다. 그때가 1973년 5월 이었는데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라는 찬송이 흘러 나왔읍니다. 너무 반가워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참을 길이 없어 감사의 찬양으로 그 자리를 떠날 줄을 몰랐읍니다. 설교말씀은 없었지만 매일 그 시간만 되면 귀를 기울였읍니다. 그후로 지금까지 빠짐없이 청취하고 있읍니다. 빠진다면 외출하여 친척들을 방문할 때 뿐입니다.

이 방송을 통하여 빌리그래함 전도집회, 엑스플로 '74나 민족복음화 성회등의 대집회에서 많은 은혜를 받았읍니다. 특히 민족복음화 성회에서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금식하며 은혜를 받았읍니다. 이곳에 있는 친지들에게도 알리워 모두가 청취하고 있읍니다.

이곳 저희들의 상황을 소개해 드린다면 제가 살고 있는 곳의 집은 약 50호 정도 입니다. 할빈, 목단강 일대와 도문, 연길, 용정, 로두구 일대입니다. 저는 한번 일을 떠나면 약 3개월이 걸려야 다 찾아보고 돌아 올 수 있읍니다.

이곳에서 방송수신 상태는 아주 좋읍니다. 정확하고 똑똑하게 들을 수 있읍니다. 더우기 겨울 한 동안은 겉에서 대화를 나누듯이 맑게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태산같고 바다같이 많고 많지만 더 이상 길게 쓰지 못 합니다. 영육간에 경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1979년 5월 20일 자매드림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육성할 것인가



김 득 룡 목사
〈총신대 교수〉

□… 「어떻게 하면 주일학교 교육을 좀 더 잘 해 볼 수 있을까?」 …□
□… 이런 생각은 주일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꼭 같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다. 더욱이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지도자적인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은 더욱 그러하다. …□
□… 교육위원회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이같은 생각을 늘 해왔다. 그래 주일학교 교육을 좀…□
□…더 잘하기 위하여 우리가 고쳐야 할 점들은 어떤 것일 까도 생각해 보았다. 우리가 고쳐야…□
□…할 점은 하나 둘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교사의 자질향상 문제가 그 중 큰…□
□…문제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따라서 이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고 싶었다. 여러사람…□
□…의 의견을 듣고 싶었다. 더욱 더 듣고 주일학교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의 생각과…□
□…의견을 듣고 싶었다. …□
□… 이러한 우리의 요망대로 여러분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소개하려는…□
□…김득룡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상당히 구체적인 것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용기도 얻…□
□…게 되었다. 또 교사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계획을 어떻게 세울것인가 하는 실마리를 찾…□
□…은 것 같다. …□
□… 이처럼 우리들의 계획은 시작에 불과…□
□…하다. 많은 분들의 좋은 말씀을 염두에…□
□…두고 보다 구체적인 계획에 착수하려고…□
□… 한다. 바라기는 이같은 교육위원회의 …□
□… 뜻이 이 글을 통해 교사는 물론 성도…□
□…들에게 잘 전달되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고 싶…□
□…다. …□

일 시 / 1979년 5월 19일 오후 6시
장 소 / 교육위원회실
초 청 자 / 김득룡 목사
참 석 자 / 정상우 목사 이준교 강도사
황기성 장로 김종석 장로
이형수 집사 정은표 집사
대담정리 / 정은표 집사

항상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 애쓰시며 수고하시는 목사님의 좋은 말씀을 오늘 또 다시 듣게 되어 정말 반갑고 고맙습니다.

실무자가 이미 설명을 드렸고 또 설문지를 통해 오늘 저희가 듣고자 하는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이미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이제 「이상적인 주일학교 교사의 육성」「주일학교 발전의 저해 요인과 그 해결책」「장기 교사 훈련계획의 필수요건」등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질문을 드리고 또 이에 대한 대답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적인 주일학교 교사의 육성은

물음 그러면 먼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교사를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는 첫째 교사의 영력과 개인신앙의 지속적인 성장, 둘째 교사 능력(기술·기능)의 지속적인 발전, 세째 80년대 중현교회가 필요로하는 주일학교 교사, 네째 고도의 산업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80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주일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사, 다섯째 공해, 자원고갈, 사회윤리의 붕괴등으로 혼란해져 가고 있는 80년대 세계에 대처할 수 있는 교사등으로 생각해 보았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러한 저희들의 생각이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답 제가 얼마 전 충현교회에 왔을 때에 앞으로 충현교회 주일학교에서 교사 자질 향상을 위한 장기 교육·훈련계획을 마련하려고 하는데 조언을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그 후에 실무자인 정집사를 통해 지금 질문하신 것과 같은 내용의 구체적인 취지 설명을 들었읍니다. 그리고 또 설문지도 받아 보았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설문지를 중심해서 제가 아는 대로 여러분의 질문에 대답해 보겠읍니다.

1. 교사의 영력과 개인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교사를 어떻게 교육·훈련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교사인가?」라는 이 질문은 상당히 좋은 질문이고 또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 아주 바람직한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주제 하에 먼저 교사의 영력과 개인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어떻게 교사들을 교육하고 훈련시켰으면 좋겠느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세 가지로 함축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즉 교사의 영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말하며 어떻게 훈련시킬 것인가, 교사 그룹활동의 중요성과 활동방법, 교사 전체를 헌신적인 분위기로 이끌어야 할 필요성과 그 방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교사이어야 한다.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도리어 이상하게 들릴는지 모르지만 먼저 주일학교 교사의 영력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그 첫째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확고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확신이 계속적으로 다짐되고 또 깊이를 더해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까지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다고 고백을 하였다 해도, 교회나 목사님 장로님 앞에서는 그렇다고 대답하였다 해도 어떤 어려운 입장에 처하거나 직장에 나가 불신자들과 어울릴 때에는 이러한 고백을 다 내동댕이 치고 언제 내가 그런 고백을 하였느냐는 식으로 사는 교사가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말입니다.

주일학교 교사라고 하면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든지 성령님이 그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시어 가르치는대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담대히 고백하며 이러한 고백을 생활을 통하여 자신있게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 되겠고 이러한 교사가 바로 영력 있는 교사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그저 세례받을 때 뿐이고, 학생들을 가르칠 때 말로만 할 뿐이라면 분명히 이러한 교사는 영력 있는 교사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언제인가 제가 동료 목사님과 함께 택시를 타고 가면서 목사님 어쩌고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함께 합승하여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술냄새를 풍기면서 목사님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그렇다고 하였더니 자기도 교회에 열심히 다니던 사람이었고 또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던 사람인데 이렇게 만취가 되어 목사님을 뵙게 되니 미안하고 부끄럽다는 것이었읍니다.

그래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고 물어 보았더니 교회 안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고백했는데 사회 안에서는 그렇지 못한 결과였읍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일학교 교사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젊은이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주일학교 교사들이 구원의 확신을 교회 앞에서 고백을 하였다 하여도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과 처지에 있든지 생활 속에서 이러한 고백이 표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훈련하고 다짐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2) 날마다 스스로 경건훈련을 쌓는 교사여야 한다.

그러면 왜 교사들이 어디서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지 못하느냐 하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고 넘어가겠읍니다.

저는 그 이유가 교사 자신을 위한 매일의 경건훈련 (Self-Discipline)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즉 교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뜻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대로 실제생활이 따를 수 있는 경건훈련, 자아훈련, 생활훈련이 되어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생활하는 것이 경건생활이며 어떻게 경건훈련을 할 것이냐 하는 점을 이야기 해야될 줄로 아는데, 그 첫째가 개인적인 기도생활입니다. 성령님의 사역이 내 마음 속에서 떠나시지 않도록 개인적인 기도생활을 통해서 계속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신앙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는 생활입니다. 성경 말씀을 매일같이 읽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되 완전히 소화하여 내것으로 만들도록 읽어야지 수박 겉핥기 핥듯이 읽어서는 별 도움이 없읍니다.

이렇게 완전히 소화하며 읽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은혜가 날마다 더욱 더 깊어지게 한다면 교사의 자아수양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성령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고 우리의 육적인 성장과 건강유지를 위해 때를 따라 먹을 것이 필요한 것처럼 내적인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영혼의 양식을 살 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경을 하루에, 아니 한 주일에 얼마씩이나 읽고 있는지 저는 잘 알 수 없읍니다만 이같이 성경 말씀을 읽는 것은 둘째로 치고 자기가 그 주일에 가르쳐야 할 성경 말씀을 얼마나 연구하고 가르치느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라면 최소한 자기가 가르쳐야 할 성경 말씀을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연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가르칠 수 있을까 관심을 쏟아 참고 자료도 수집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이에 앞서 먼저 말씀 드린대로 교사 자신을 위하여 매일 매일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며 읽는 말씀 가운데서 요점이 될만한 말씀을 하루에 한절씩 암송할 수 있다면 더욱 좋겠지요.

이처럼 어떻게 교사의 영적성장을 지속할 수 있느냐 하는 물음에 한마디로 대답한다면 교사가 계속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받고 나아가 말씀의 은사가 충만할 때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독청장년면려회 (Young People Society of Christain Endeavour)의 창시자인 미국의 크라크 (Dr. Francis Edward Clark) 목사도 C·E운동의 첫째로 성경을 날마다 읽는 성경애독운동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번째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가 얼마나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고 생활의 열매, 성품의 열매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요.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갈라디아서 5장22절부터 23절까지 있는 말씀대로 사랑·희락·화평·인내·자비·양선·충성·온유·절제라는 열매가 생활로 나타나야 되겠지요.

이러한 열매가 매일의 생활에서 맺는 교사야말로 이상적인 신앙인격의 교사라고 할 수 있을것입니다.

그러나 통상 주일학교 교사들 뿐만이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일반 성도들의 대부분이 일상생활 가운데 이러한 열매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지적인 수준과 생활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교사의 수준과 영력을 말할 때에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한 요소로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위험상태를 해소시키려면 일상생활에서의 끊임 없는 기도와 말씀을 통한 자기 경건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기 스스로의 경건훈련을 통해서만이 기도와 말씀이 실제생활에 연결될 수 있는 것이며 충실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교사의 영력과 개인신앙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첫째가 되는 구원의 확신과 경건훈련에 대하여



〈1960년대의 교사들〉

결론적으로 요약한다면 교사 스스로가 자신의 신앙이 자라도록 날마다 기도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다지고 또 말씀의 은사로 그것을 더 튼튼히 자라게하여 매일의 생활 가운데서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를 더해가는 성화의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되겠지요.

이를 위하여는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자기 자신을 연단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자기 자신을 필요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평소에 꾸준한 경건훈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3) 그룹의 융화를 통해 자라는 교사이어야 한다.

이렇게 각개 교사의 개인적인 교사훈련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같은 교사들로 하여금 그룹활동을 하도록 권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건훈련보다 한 차원 높여 그룹을 통한 단체적인 경건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 처음에는 한 그룹에 3～5명 정도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경건훈련을 위한 교사 그룹이 일주에 한번 정도씩 모여 개인적인 경건훈련에 있어 대단히 은혜로웠던 점과 어려웠던 점들을 서로 발표하고 또 토의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서로 서로 자극을 주고 격려가 되게 하는 것이며 그 결과 개인적인 경건훈련에 소극적이거나 게을리 하는 교사에게 더욱 힘을 내도록 북돋아 주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요.

다시 말해서 개인적인 경건훈련에다 그룹의 경건훈련의 필요를 강조하는 분위기를 통한 계속적인 자극을 주어 더욱 더 열심을 내도록 하자는 것이며 이러한 적당한 자극이 주어지지 않으면 개인적인 경건훈련에 채 익숙치 못한 교사들이 조금 하는 척 하다가 힘이 들고 맥이 빠져 포기 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교사를 붙들어 매두는 효과를 얻자는 것입니다. 이같은 교사 그룹 경건훈련을 주일학교의 각 부별로 또는 각 부의 학년별로 조직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룹을 통한 경건훈련과 아울러 에비 공과공부도 때에 따라서는 실시할 수 있고 또는 기도모임으로나 성경연구모임으로도 모일 수 있을 것입니다.

(4) 주일학교 전체가 헌신의 분위기로 가득차게 하여야 한다.

이것은 교사가 교사로서 만족 할만한 봉사를 하도록 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즉 전체적인 분위기를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뜨거운 분위기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유년부면 유년부의 분위기가 그러해야 되겠고 고등부면 고등부가 그런 분위기가 되어야 하며 주일학교 전체가, 아니 나아가 교회 전체가 헌신의 분위기로 가득차야 되며 이렇게 될 때에 좀 열심이 적고 아직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교사들도 열심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면에서도 환경요인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전체적인 면에서도 이 환경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일학교 전체를 헌신적인 분위기로 변화시키며 또 이같이 이끌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이를 위하여 교사들을 중심한 헌신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 헌신을 다짐하는 헌신예배를 한달에 한번 정도 드리도록 하고 아울러 전체적으로 또는 주일학교 각 부별로 교사 헌신기도회를 갖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의 기억으로는 아마 15여년 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1963년경이었읍니다. 당시 충현교회 주일학교 각부 부장 장로님들이 중심이 되어 일백여명의 주일학교 전체 교사들과 함께 30일 철야기도운동을 벌인 사실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 모든 교사들이 어떻게 열심이었든지 직장 때문에 철야기도를 할 수 없는 교사들은 밤 열한시까지 만이라도 함께 기도하다가 돌아가곤 하였는데 일

자기가 자기 자신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자기 자신을 연단시킬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자기 자신을 필요에 따라 제어할 수 있도록 꾸준한 경건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백여명의 교사 가운데 30여명은 한달내내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과 같이 철야기도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 30여명이 그 후부터 충현교회 주일학교를 이끌어 나가는 다이나믹한 기관차들이 되어 충현교회 주일학교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데 있어 두고두고 기억될 만한 주역들이 된 사실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저 전체의 삼분의 일 만이라도 불이 활활 붙어서 치달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 분위기에 휩싸여 끌려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한달에 한번, 길어야 한 학기에 한번, 아무리 못해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한번씩 일년에 두번 이상은 전체 교사가 헌신을 다짐하는 특별집회를 가져야 합니다. 이를 교사부흥회라고 해도 좋고 교사수양회라고 해도 좋은데 아무튼 전체 교사가 헌신을 위한 한가지 목적으로 뜨거운 집회를 열어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불을 지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러한 헌신의 다짐을 계속하지 않으면 교사

로서의 사명감이 희미해지고 상대적으로 엉뚱하게 골치아픈 문제만 자꾸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은 교육위원회가 주동이 되어 당회에 건의를 해서라도 꼭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떻게 이상적인 주일학교 교사를 육성할 것이냐? 이같은 물음에 저는 첫번째로 개인적인 신앙성장을 위한 경건훈련(Self—Discipline)을, 두번째 그룹 경건훈련을 통해 상호 자극과 권장을 하여 일체감을 갖도록 하며 마지막 세번째로 전체를 헌신이라는 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가속화 시킴으로써 모든 교사로 하여금 헌신적으로 봉사하게 하며 교사로서의 참된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대답하고 싶습니다.

2. 교사 능력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교사를 어떻게 교육·훈련할 것인가?

흔히 교사의 능력(ability)라고 하면 교사의 테크니컬(technical)한 면만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의 능력을 세가지 면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지력(知力), 감화력(感化力), 의지력(意志力)이라고 보는데 이 지정의(知情意)의 조화가 어느 정도 잘 이루어져 있느냐 하는 것을 곧 교사의 능력의 정도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능력을 성장시킨다고 할 때에 이 세가지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1) 지적인 힘만으로는 교사가 될 수 없다.

지적인 힘만으로는 교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지만 교사가 되려면 지적인 힘이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같은 사실을 지나치게 감조한 나머지 흔히 지적인 힘만 있으면 훌륭한 교사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도 하지만 훌륭한 교사란 결코 지적인 수준 정도만 높다고 하여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사가 되기 위한 전제조건 가운데 하나가 교사는 반드시 자기가 가르치고자 하는 것을 알아야만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아야만 될 줄 압니다. 자기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는 교사가 될 수도 없거니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없지 않겠읍니까?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가 알아야만 될 지식이 어떤 것인지 제가 평소 생각하고 있던 바를 말씀드리겠읍니다.

첫째로 주일학교 교사는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깊어지게 되면 자연히 교회에 대한 지식도 밝아지게 되는데 우리 교단의 교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감리교도 같고, 성결교도 같고, 순복음교회도 같으니 그저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식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교사라면 좀 곤란합니다.

교사로서 교리에 대한 지식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사가 되기 전에 아예 성경학교에서 하듯이 성경통신과라도 거치게 하여 교사가 되려면 성경시험을 치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이처럼 지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성경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교리에 대한 이해력이 있어야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되겠읍니다. 아는 것을 설명할 줄 모른다면 가르치는데 있어서는 모르는 사람과 꼭 같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아는 것을 설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실제 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응용력이 있어야 되겠읍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생활에 나타내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완전한 신앙이라고 볼 수 없을 테니까요.

(2) 교사의 감화력은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 교사 자신의 성품에서 비롯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주일학교 교사는 감화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교사의 정서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이는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서적으로 풍부한 교사는 자기가 가르쳐야 할 상대에 따라 표현을 달리합니다. 어른들에게는 어른같이 점잖게, 청년들에게는 청년같이 기발하게,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린아이같이 부드럽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이 정서력을 키운다는 말은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자기가 가르치는 상대에 따라 강할 때는 강하고 부드러울 때는 부드러워야 되겠는데 자기 성격대로만 하려거나 자기 고집대로만 하려고 들면 이것이 곧 실패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대가 어떤 사람이든 호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기술이라고 하겠읍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대편으로 하여금 좋은 인상을 갖게 하려면 기술적인 문제 이전에 근본적으로는 교사 자신의 성품이 그렇게 가다듬어져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사가 되려면 음악도 해야 되고 좋은 책도 많이 읽어야 된다고 하지요. 인간이 처해서 맞볼 수 있는 여러가지 상황을 간접적으로 폭넓게 경험한다고나 할까요?

감정 자체가 아주 부드럽고 따뜻하여서 말이나 표정이나 몸짓이 아주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느껴질 뿐만이 아니라 어떤 상대이든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 학생들로 하여금 "아, 참 그 선생님은 언제든지 좋더라. 다시 한번 만나보고 싶어."하도록 호감과 감화력이 있어야지 "그 선생님 말이야? 아유, 다시는 얼굴도 보고싶지 않아."이렇게 되면 무엇을 가르쳐 보기도 전에 이미 이야기는 끝난 것입니다.



(3) 순종의 모범이야말로 최고의 산 교육이다.

그 다음 세번째로 교사가 갖추어야 할 능력이 의지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의지력이라고 하는 것은 교사의 생활을 통한 교육을 말합니다. 즉 학생들로 하여금 배운 바를 실제 생활에서 그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사가 먼저 샘플(Sample)이 된다는 말입니다. 교사 자신이 바로 본이 되어 교사의 생활을 통해 시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말에 의한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 의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교사의 능력을 말하는데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사가 말로는 너희는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거짓된 행동을 보인다든지, 너희는 봉사하라고 말하면서 교사 자신은 봉사하는 일에 소극성을 보인다든지, 너희는 남을 도와주라고 하면서 교사 자신은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한 교사의 교육은 완전히 탁상공론처럼 교사의 입에서 시작하여 학생의 귀에서 그치고 맙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 받으라고 한 사도 바울과 같이 교사가 자신의 작고 큰 일상생활의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이 가르치는 말씀 그대로 보여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교사야말로 산 교훈이요 산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가장 크게 반성하고 개선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바로 이러한 점이라고 하겠읍니다. 가르치는 내용과 실제 생활과는 교사나 학생이나 꼭 같이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사의 의지력 즉 실천력을 키워 생활을 통해 학생들에게 교사로서 본이 되게 한다는 것이 교사의 능력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도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는 실제로 체험을 해보지 못한 교사는 동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것은 좀 다른 면의 이야기입니다만 실제생활에 있어 교사가 가르친 그대로 모범을 보였다고 하여 학생들에게 이를 강압적으로 따르도록 요구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그렇다고 흥정하거나 절충을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교사 자신이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깊은 은혜의 체험을 통해 변화된 인격의 감화력으로 해야 됩니다. 사랑의 힘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사역으로 해야 됩니다.

『성령과 교육』이라는 저서에서 주크(Roy B. Zuck) 박사가 말한대로 이상적인 교사로 육성하기 위하여는 일상생활을 통해 지정의(知情意)에 합한 생이 되는 영향력 있는 교사로 철저하게 교육하고 훈련하여

야 되는데 이같은 훈련의 첫 걸음은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훈련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3. 80년대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주일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사로 어떻게 교육·훈련할 것인가?

미국의 텅(Tyang)목사는 교회를 처음 시작하면서 유능한 교사를 확보하기 위하여 아예 처음부터 장래 교사로서 봉사하기에 적당한 인물을 뽑아 가르치고 훈련을 시켰읍니다.

즉 첫째로 교사가 되기 전에 먼저 교사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들을 갖추도록 「예비교육」을 시켰읍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두번째 단계로 매주일마다 예비공과공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켰는데 이 교육은 담임 목사가 친히 담당하였읍니다.

(1) 예비교육, 계속교육, 관심교육 등의 단계적인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충현교회 주일학교도 앞으로 이처럼 교사로 임명하기 전에 예비과정을 만들어 철저하게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도록 한 다음에 교사로 임명되면 이미 마련된 계속교육과정에 따라 계속적으로 교사교육을 실시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계속교육 방법으로는 예비공과공부를 비롯하여 월간지나 도서 등을 통한 간접교육도 생각할 수 있는데 특히 교사로 하여금 좋은 책을 읽고 여러 교사들 앞에서 발표하게 하는 것은 아주 좋은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 텅 목사가 세번째로 실시한 교사교육은 「관심교육」이었읍니다.

목사님이나 장로님 한 두분이 매주일 주일학교 교육에 큰 관심이 있음을 교사들에게 보여주고 또 적당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회 전체가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음을 보여주었읍니다. 이렇게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교인들이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을 보이자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 교육에 모든 관심을 기울이게 된 것은 당연하겠지요.

이처럼 충현교회도 때에 따라서는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전체가 주일학교 교육에 관심이 있음을 교사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교사들로 하여금 자부심과 책임을 느끼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교사 및 학부모 교육을 하는 유치부〉

(2) 미국 복음주의 교사양성협회의 교사 예비교육 내용

미국 복음주의 교사양성협회(ETTA)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사 예비교육 내용을 예로 들어보면 모두 12권의 교재로 되어 있는데 이를 1년과정으로 하여 수료하게 되어 있읍니다.

이 1년과정을 다시 6개월씩 나누어 전기 6개월 후기 6개월로 나누었는데 전기 6개월에는 성경교본 2권, 교리교본 1권, 주교교육교본 3권(기독교교육·아동심리·교수법)으로 되어있는데 각 권마다 4과씩으로 모두 24과가 되게 하였읍니다.

이 24과를 1주에 1과씩 공부하면 꼭 6개월이 걸리게 되며 매 과마다 교본을 읽고 자기 스스로 연습문제의 답안을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게 되면 매주 개인 성적을 누적해 나가도록 하였읍니다.

그리고 후기 6개월 과정으로는 성경교본 2권, 교리교본 1권, 주교교육교본 3권 (전도와 선교의 생활교육·계절학교·상담)으로 하여 역시 매 교본마다 4과목으로 모두 24과목을 6개월에 끝내도록 하였읍니다.

이렇게 하여 교사로서의 예비교육 1년과정을 모두 마치게 되면 성적에 따라 수료와 함께 교사 자격증을 얻도록 하였읍니다.

(3) 주일학교 교사의 계속교육을 위한 전문인양성이 시급하다.

이렇게 예비교육과정을 거치고 교사가 되면 계속교육으로서 교사학교에서 공부하게 되는데 미국 남침례교회(Southren Bapthist)와 같은 데서는 전문적인 지도자훈련(Professional Leadership Training)을 실시합니다.

영아부면 영아부 전문지도자로서의 교육을 시키고 유·초등부면 유·초등부 전문지도자로서 교육을 시키고,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 등 주일학교 각 부별로 전문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을 1년 동안 시킵니다. 이같은 과정을 거친 사람 가운데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1년을 더 공부하게 되면 그 교단에서 박사 학위를 줍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교회마다 주일학교 교육을 위하여 교육전도사를 두어 교육을 전담시키지

만 이들 대부분이 주일학교 교육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임을 볼 때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 앞섭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80년대 충현교회는 적어도 주일학교 각부 전임 지도교역자 만이라도 주일학교 교육을 전공한 전문인들로 전환시켜 이러한 지도자들로 하여금 교사들을 직접 양성하게 하며 교사 또한 이러한 지도자 밑에서 전문적인 교사로서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80년대의 주일학교 교육을 담당할 교역자는 무엇인가 한가지씩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전문적인 영역을 담당해 가지고 주일학교 전체교육을 위해 계속 연구해 나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즉 교수법이면 교수법, 심리학이면 심리학, 교육행정이면 교육행정 등 한 사람이 한 분야씩만 맡아 전문기관에서 3년 정도만 연구하면 전문인이 되리라고 보며 이러한 전문인들에 의해 주일학교 교사의 계속교육이 이루어질 때 이것이 곧 충현교회 개교회의 발전은 물론 나아가 한국교회 주일학교와 한국사회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80년대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위하여는 먼저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의 전문인 양성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관심을 기울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4) 주일학교 교육은 교사 전체의 관심 속에 발전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주일학교의 교사월례회를 보면 대부분의 시간을 행정적인 문제에 있어 가부결정을 하는데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미국의 경우를 보면 60분 회의라면 행정적인 문제는 단 15분 내에 보고와 지시로 끝냅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분은 미리 주어진 주제를 어느 한 교사로 하여금 연구하게 하였다가 발표를 하도록 합니다.

주어지는 주제들이 대부분 다음 달에 실시될 중요한 실질적인 문제들이지만 꼭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가정과 학교, 가정과 교회, 제직교육 등 주제의 범위는 광범위 하며 대개는 이미 전해에 다음해에 매달 발표될 주제와 발표자를 선정하여 내용의 충실을 기하도록 하고 있읍니다.

이를 위하여 참고도서나 자료 등을 제공하기도 하며 발표 후에는 청중과 발표자와 질의응답을 통해 실제적인 문제들을 전문성을 띄우면서도 폭넓게 다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발표 내용과 토의내용을 누적하게 되면 교회 발전을 위한 아주 훌륭한 연구자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80년대 주일학교 교육을 위하여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일학교 전반의 모든 문제를 보다 폭넓고 깊게 연구 발전시키기 위하여 시급히 전문지도자를 양성하여야 되며 이같은 전문지도자 밑에서 양성된 교사들로 하여금 실제문제를 연구하고 발표하게 함으로써 전체 주일학교 교사들로 하여금 주일학교 교육에 보다 깊은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야 될 것입니다.

이러한 과업은 교사 자신을 위해서나 주일학교 발전을 위해서나 실시만 된다면 대단한 진전이요 큰 발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업은 충현교회와 같은 큰 교회가 80년대의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앞장을 서야 되리라고 봅니다.

4. 고도의 산업사회를 지향하고 있는 80년 한국사회와 한국교회 주일학교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현교회 주일학교가 되도록 하려면 어떤 점을 개선하여야 할 것인가?

또 다시 미국교회 주일학교의 예를 든다면 미국교회 주일학교는 이미 일백여년 전부터 주일학교 교육의 여러가지 면을 체계적으로 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여 혁신을 단행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크게 역점을 두었던 세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교육관의 혁신이었고 둘째 교과과정의 개정과 세째는 계절학교에 대한 혁신입니다.

(1)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최소한의 장소가 확보되고 건물은 각부의 특수성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사회적인 발전 추세에 따라 현대교회 건물에 대한 이해가 점차 달라지게 되어 과거는 단순한 주일낮 공집회를 위한 장소만으로 만족했지만 주일학교가 발전되고 그 중요성이 인식되어 이제는 우리나라에서도 교회당 건물을 생각할 때 반드시 교육관도 아울러 생각하고 있다.

적어도 주일학교 각부 전임지도교역자 만이라도 주일학교 교육을 전공한 전문인들로 전환시켜 이러한 지도자들로하여금 교사들을 직접 양성하게 하며 교사 또한 이러한 지도자밑에서 교육받는 것이 좋읍니다.

이같은 합리적인 교육장소의 확보와 배정문제는 미국의 경우 이미 오래 전부터 큰 관심 속에 개선되어 왔는데 특히 주일학교 각부의 학급별로 분반공부를 따로 따로 독립된 자기들만의 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말하자면 초등부 4학년 1반이라고 할 때 이들의

특성과 효과적인 수업을 최대한 보장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독립된 자기들만의 장소를 가지게 된 것이다. 여기에서 초등부 4학년에 가장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한국교회의 주일학교도 앞으로 고도의 산업화된 한국사회구조에 적합토록 충분한 교육장소를 확보하여 주일학교 각부의 학급별로 성경공부나 생활지도를 할 수 있도록 분반공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어요. 이러한 필요성은 사회가 고도로 전문화 되면 될수록 더욱 더 절실하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2) 주일학교 교과과정은 지정의(知情意)의 요소가 조화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은 교과과정의 개정이었읍니다. 기존의 교과과정을 다시 한번 체계화 하면서 새로이 개정함에 있어서 교과내용은 지정의(知情意)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도록 개정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읍니다.

지적인 면에만 지나치게 편중된 듯한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과 비교하여 본다면 생각해 볼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원래 교육이란 인간의 이 지정의(知情意)의 요소가 조화를 이루어 하나처럼 되어져야 되는데 지적인 면 또는 감정적인 면 또는 의지적인 면을 따로 따로 분리한다든가 아니면 그 어떤 것만을 지나치게 확대하여 강조하게 되면 균형있는 원만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감정을 잘 살리고 아름다운 감정으로 키우고 훈련하는데 있어 예배시간을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꼽을 수 있는데 찬송과 기도와 설교 등의 순서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예배하는 순수한 감정이 무엇보다도 귀하다고 볼 수 있겠읍니다.

그런데 요즘 가만히 보면 저의 지나친 기우인지는 모르겠읍니다만 주일학교의 이 예배시간이 좀 소홀하지 않나하는 느낌이 들때가 있어요. 주일학교라고 하면 그저 성경공부 좀 하고나서 무슨 이러저러한 잡다라한 행사나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교사들이 더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일학교 교육의 시작이라고 하면 이 예배의 모범부터 이루어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그 주일학교 교육은 무엇인가 잘못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해도 틀림없을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이 예배의 모범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므로 반드시 교과과정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해야 해요.

그 다음 교과과정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미국의 교회가 두번째 생각한 점은 성경공부의 내용과 방법이었읍니다. 이는 교육의 지적인 면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 현재 미국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경우는 매주마다 최소한 세가지 이상의 성경공부와 연관된 부교재를 받아 가지고 집에서 성경공부를 하고 있읍니다.

즉 그 주일의 공과에 맞춘 성화와 공과의 성경내용을 다른 각도에서 가르쳐 주는 일반적인 이야기로서 동화나 예화 등으로 어린이들이 쉽게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와 공과내용을 복습하도록 되어있는 숙제 등입니다. 여기에다 특별히 공과내용을 흥미있게 꾸밀 수 있는 공작물까지 받는 주일에는 네다섯 가지나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런데 공과공부를 위한 이러한 모든 부교재들이 깊이 연구하고 만든 것들이라서 질적으로 내용적으로 우수하기도 하지만 일반사회 다른 어린이 만화나 심지어 국민학교의 교재보다도 인쇄라든가 색갈이 월등한 점이 많아요.

우리가 이렇게 하자면 제일 큰 문제가 먼저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한국사회가 산업적으로 크게 발전되어 사회의 물량이 풍부해지면 우리가 이런 사업에도 투자를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일반 사회교육보다도 어떤 면은 뒤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도 이제는 책을 만드는 기술이라든가 인쇄를 하는 기술을 좀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의 경우 총회본부에 웬만한 인쇄시설은 대부분 다 갖추어 놓고 인건비만 나오면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언제든지 직접 인쇄를 하여 사용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주일학교는 반드시 성경공부를 위한 부교재들도 많이 생각해야 되겠고 일반사회의 어떤 선전물이나 일반사회 교육의 교재에 비하여 주일학교의 교재나 인쇄물이 도리어 낫다는 말을 듣고 이전처럼 우리 사회교육이 교회교육을 본받으려고 애쓰도록 만들어야 되겠읍니다.

그 다음 세번째로 교과과정을 개정함에 있어 신앙생활지도를 생각하였는데 가정에서도 계속하여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와 친구와의 관계를 어떻게 잘 유지시킬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생각하였읍니다.

이를 위하여 주간클럽운동을 전개하여 일주일에 한번씩 어린이들과 학급 담임선생님과 만나서 재미있게 놀기도 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생활훈련을 지도하는 거예요.

미국은 철저하게 가족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앞으로 사회가 경제적인 발전과 함께 사회적인 구조도 점점 복잡하게 변화 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한국사회의 앞날을 예상할 때 주일학교의 책임이 더 무거워지게 되며 무엇보다도 철저한 생활훈련이 요구되리라고 봅니다. 가정에서의 문제를 비롯하여 학교와의 관계, 일반사회와의 관계 등 주로 대

인관계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리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주일학교는 적어도 청년부나 장년부 등 그 이상이 되면 직업별 또는 자신이 봉사를 하고 싶은 분야별로 반편성을 하여 성경공부나 실제적인 신앙생활지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충현교회 주일학교도 앞으로 80년대를 대비하여서는 학생 신앙생활지도에 보다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우려야 되리라고 보며 청장년 이상의 교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직업별 또는 취미별 등으로 반을 나누어 운영해 보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3) 앞으로의 계절학교는 구역별 또는 직장별 주일학교로까지 발전시켜야만 할 것이다.

다음 세번째는 계절학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었읍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도 계절학교에 대하여 관심도 높아졌고 잘해보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대단히 바람직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계절학교문제에 있어서도 앞으로 80년대를 생각한다면 지금과 같은 방법만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장소문제나 교과과정문제와 마찬가지로 계절학교 문제도 또한 고도화 된 사회 속에서 이니시어티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연구를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즉 지역단위별로 한다든지 아니면 병원, 공장 등 일반 기업체별로 한다든지 하여 지역별 또는 직장별 확장주일학교 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구역단위별로는 현재의 교회 구역조직을 통해서 실시할 수 있겠지요. 구역예배를 그저 단순한 친교와 봉사의 기회로만 삼지 말고 교육적인 면을 더 첨가하여 교육적 인면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 앞으로 고도의 산업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경우 직장별 주일학교 (주일에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주중 적당한 날에 주일학교와 같은 공부시간을 갖는) 를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5. 공해문제, 자원고갈, 사회윤리의 붕괴 등으로 심각해져 가는 80년대 혼란의 세계에 대처하는 주일학교 교육이 되기위한 교육계획을 어떻게 하여야 할 것인가?

(1) 철저한 신앙교육만이 혼란한 사회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철저한 영적교육, 신앙교육, 경건교육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봅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로는 좀 곤란하리라고 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기독교교육이 사회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 언제나 일이 벌어지고 난 후에 뒤치닥거리나 하느냐 아니면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어 앞서 이끌고 나가느냐 하는게 문제입니다.

기독교가 앞으로의 사회에 선두에 서서 주도권을 가지고 이끌어 나가려면 크리스챤 엘리트들이 사회의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 정치, 문화, 경제등 모든 분야에 진출하여 한몫씩 단단히 해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사회가 타락되기 전에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는 훨씬 더 크리라고 봅니다.

(2) 윤리적으로 모범이 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려면 아주 어렸을 때 부터 철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사회윤리의 붕괴는 사실 너무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문제를 방지 내지는 예방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올바른 신앙교육과 훈련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윤리적인 면에서 크리스챤은 하나의 샘플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실 이러한 면을 사회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도리어 사회로부터 경원시 될 뿐입니다.

올바른 윤리, 도덕 교육은 어렸을 때부터 시작되어야 하는데 먼저 순종심부터 기르고 좀 더 자라면 윤리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치며 마지막에는

특히 윤리적인 면에서 크리스챤은 하나의 샘플이 되어야 되겠는데 사실 이러한 면을 사회에 보여주지 못한다면 도리어 사회로 부터 경원시 될 뿐입니다. 올바른 윤리, 도덕교육은 어렸을 때 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돕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윤리교육도 무엇인가 단계적이고도 연결성이 있도록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순종심도 없고 윤리성의 중요함도 모르는데 무작정 자발적으로 이웃을 위해 봉사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80년대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는 윤리가 강화된 신앙운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이러한 운동은 아주 어릴적부터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한 주일학교 교육을 통하여 크리스챤의 사회윤리 참여문제가 올바로 인식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회참여는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올바로 깨닫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국민으로서 투표를 하고 버스를 타고 하는 이 일이 바로 사회참여이고 어디가서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바로 사회참여인데 문제는 우리가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빛과 소금의 노릇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노릇을 다하지 못하면 사회참여 바로 하지 못한 게 되겠죠. 그러므로 연령적으로 볼 때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이 윤리교육은 이루어져야 되겠고 이것은 또한 철저한 신앙훈련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충현교회 주일학교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당면문제의 해결을 위한 처방

물음 네, 이제까지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상적인 주일학교 교사의 교육과 80년대를 위한 주일학교 교육계획 등에서 상당히 광범위 하면서도 구체적으로 좋은 말씀을 해주셨읍니다. 이제 두번째 큰 문제로 충현교회 주일학교 발전의 장애가 되고 있는 당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처방을 좀 받고 싶습니다. 즉 「주교교육의 기본적인 교육이념의 빈곤과 추상적인 교육목표, 교과과정에 대한 인식부족과 교과운영의 미숙, 피교육자의 실제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교교육 · 학생상담 주교행정 · 학생특별활동 등의 담당교사가 전문화 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맴돌고 있는 현상, 생산성보다 소비성에 치우치고 있는 주교재정구조의 모순성과 비현실적인 지출 「예산단가」 등을 저희들은장애가 되고 있는 당면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두번째 질문도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면서도 주일학교 교육을 이야기 하려면 꼭 이야기 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주교교육의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는 문제는 비단 충현교회 주일학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주일학교에 다 적용되는 문제이며 또한 대단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 주일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교육이념은 교리에 입각하여 체계적으로 정립되어야 하며 교육목표는 교육결과의 정확한 분석 · 평가를 토대로 세워져야 한다.

아제 첫번째 문제인 주일학교 교육의 기본적인 교육이념의 빈곤과 추상적인 교육목표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말씀드려 보겠읍니다.

우리 장로교회 즉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적인, 칼빈주의적인 신학의 배경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충현교회가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 좀 더 이런 면은 보강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즉 교육이념이라는 면을 볼 때 이같은 교리에 입각한 교육이념이 되도록 하되 이를 체계화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 충현교회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들어 말을 하자면 「천국 일꾼을 키우자」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이 「하늘나라 일꾼」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하늘나라 일꾼을 키우는 것이 주일학교의 교육목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늘나라」 또는 「하늘나라 일꾼」이 무엇인가 설명하려면 교리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완전히 추상적인 것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이러한 점은 제가 볼 때에 80년대에 가서는 아마 작업을 단단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가지 주일학교 교육이념 정립과 올바른 교육목표 설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는 주일학교 지도교역자의 주일학교교육에 대한 이해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교교육을 체계적으로 배운 분이 아니라고 하는데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를 비유를 들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린다면 어떤 사람이 피아노를 배우는 전문적인 지도 교수에게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피아노를 독습을 하였다고 합시다. 즉 반복적인 연습과 경험을 통해 피아노 치는 법을 익혀 나간다는 말입니다. 이럴 경우 예외적인 특수한 사람이 아니고는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게 되면 어떤 일정한 수준을 벗어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기독교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고 그저 오랜 교회생활을 통해 경험한 주일학교교

육에 대한 이해와 지식만을 가지고 기독교교육 이념을 정립해 나가려니까 약간 무리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만히 보면 주일학교라고 하는데 일반교육도 아니고 기독교교육도 아닌 이상한 교육이 되거나 경험적도 아니고 이론적도 아닌 이상한 교육이념이 그것도 아주 추상적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적어도 충현교회와 같은 교회라면 이같은 문제는 기독교교육에 대한 올바른 체계를 세워 교육이념을 정립하고 이같은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교육목표가 세워져야 될 것입니다.

즉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육을 볼 때 저의 견해로는 교리적인 면과 체계적인 교육이념 이 두가지 면이 좀 약한 것 같아요. 반드시 보강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때는 알미니안적인 요소가 비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때는 오순절적인 요소가 비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럴 때마다 '야, 이거 정리하려면 상당히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들지요. 물론 충현교회는 은혜가 풍성한 교회이지요. 그래 많은 성도들이 모이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같은 점들을 조금 더 힘써 고쳐 나가면 더욱 좋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육 목표 설정에 있어 좀 더 보충해서 말씀드린다면 지도교역자들이나 지도교사들이 교육목표를 설정하는데 있어 추상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되면 목표가 아니라 사실 이념이 되어버리기 쉽지요.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설정하기 위하여는 사례연구(Case Study)를 하지 않으면 안되리라고 보아요. 그래 충현교회는 사례연구를 좀 많이 하였으면 좋겠어요. 충현교회 나름대로 충현교회에 가장 적합한 교육목표를 세우기 위하여는 교육의 여러가지 사례들을 좀 더 세밀하게 분석·평가하라 이말입니다.

이렇게 기독교교육의 기본이념 정립과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세우기 위하여는 먼저 교리적인 충분한 뒷받침을 해야 되겠고 실제 교육을 전담하고 있는 교역자나 교사들을 기독교교육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시켜야 되겠고 실제적인 사례연구를 통한 학습결과의 분석·평가를 통해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세워야 될 것입니다.

2. 교과과정의 범위는 공과공부 내용 뿐만이 아니라 예배지도와 생활지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까지 포함시켜야 한다.

이제 두번째로 주일학교 교과과정의 인식 부족과 교과운영(평가포함)의 미숙에 대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고 물으셨는데 그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과과정을 보면 단순히 성경공부 내용 하나만을 다루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된단 말입니다.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대로 교과과정은 지정의(知情意)의 모든 요소가 조화를 이루는 교과과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와 성경공부와 생활지도가 일관해야 됩니다. 이걸 따로 따로 하면 안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현재 충현교회 주일학교 교과과정을 보면 성경공부에 대한 것만 어디 어디라고 했지 예배는 어떻게, 설교는 어떻게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그 다음 생활지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언급이 전혀 없어요. 이것은 물론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참고로 미국 로스앤젤리스의 제일장로교회라고 기억되는데 그 교회에서 만든 「복음의 빛」이라는 교재를 만든 것을 말씀드려 보면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쭉 일관성 있게 만들어졌어요.

이것을 만드는데는 무려 20여년이나 걸렸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교육학 석사가 된 한 여자가 일생을 바쳐 그 교회를 케이스 스타디하여 자기 교단의 교리와 거기에 대한 실제적인 기독교 교육학적 전문지식을 가지고 이 교과과정을 만들었읍니다.

교회목표를 설정하는데 추상적으로 하게 되면 이는 목표가 아니라 사실 이념이 되어 버립니다. 구체적인 교육목표를 정하기 위하여서는 사례 연구를 하지 않으면 않됩니다. 사례를 좀 더 세밀하게 분석, 평가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충현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공과 즉 교과과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처음 충현교회에서 열심을 내어 만들기 시작했고 이것이 개교회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보다 총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겠다 하여 현재는 우리 교단의 주일학교 유초등부 전체가 사용하고 있지요.

이 계단공과가 만들어질 때 이것을 맡으신 분들이 발표도 안하고 어떤 내용을 담겠다는 공개도 안하고 그냥 열심만 가지고 만들어 냈읍니다. 여기에는 사실 복음주의적인 입장에서 구원의 강조만 되어있지 교리는 강조되어 있지 않은 계단공과 입니다.

이러한 점은 앞으로 보충이 되어야 되리라고 보는데 충현교회가 재정도 있고 인물도 있고 하니까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에게 조금 연구시켜 80년대에 가서는 꼭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교과과정에 대한 인식부족은 비단 충현교회 뿐만이 아니라 한국교회 장래를 위해서 모든 교회 주일학교에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교과과정의 보완 또는 수정하는 일에 있어서 좀 더 과

감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3. 학생들에 대한 언어사용연구와 정서활동의 이해는 실제 생활지도에 중요하다.

그 다음 세번째 문제로 피교육자의 실제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주교교육이라고 했는데 저는 피교육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부터 연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이야기 한다고 할 경우 쉽게 말해 문교부에서 발행한 국어교과서의 단어 내에서 사용을 해야 되겠는데 대부분의 교사들이 어려운 말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중심의 대화가 되지 못하고 교사중심의 대화가 되어 학생들의 실제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없게 되는 거지요.

그 다음은 학생의 정서활동에 대한 이해의 부족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이 찬송가를 보면 교사가 좋으면 좋은 것이지 애들의 의견이야 알아볼 필요도 없이 그냥 덮어두고 그저 교사 일방통행입니다. 그래 미국에서는 어린이 찬송가가 한번 나오면 몇십년을 그냥 계속 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계절학교 때 가르치는 찬송가는 교사가 훑어보고 아 이거 참 좋겠다 싶으면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 해 뿐이지 그 다음해는 또 다른 찬송가를 가르칩니다. 어린이 찬송가곡이 나오기도 무수히 나오고 가르치기도 무수히 가르치고 또 그걸 학생들은 계속해서 그 찬송가를 부르지 않으니까 몽땅 잊어버립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렇게 급행열차 처럼 그저 통과만 하여 지나쳐 버리는 찬송가는 어린이들에게는 신앙적인 영향을 줄 수가 없읍니다. 적어도 어린이 찬송가를 만들 때는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의 신앙에 깊이 들어가는 실제적인 찬송가가 되게 하며 이를 장시간 계속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그림·환등·영화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이러한 시청각 교재를 통한 교육도 상당히 생각해 볼 점이 많지요. 이 가운데 영화를 활용하는 주일학교는 아직 한국교회에서는 극히 적은 것 같은데 앞으로 충현교회와 같이 큰 교회라면 직접 영화를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시청각 연구센타가 있어야 되겠고 여기서 시청각 재료를 또한 전체적으로 잘 정리보관했다가 필요한 때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별도 실무 교육이 있어야 한다.

학생상담이나 주교행정, 학생특별활동 지도교사들은 사실 일반교사들도 어떤 면에서는 모두 특수한 기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들에 대한 기능별 실무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대개는 이러한 특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각기 기능에 적합한 구분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전체를 그저 포괄하여 일반교육을 한꺼번에 시키기 때문에 전문화 되지 못하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맴돌 수 밖에 없는 거지요.

미국의 남침례교회 같은 경우는 교사들이 주일학교에서 맡은 기능을 구분하여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이들을 교육·훈련시키고 있어요. 이러한 교육을 아예 교단적으로 실시합니다.



〈1972년 부터 지도자 양성부를 신설, 교사 양성에 힘써 오고 있다〉

예를 들면 주교행정을 맡고 있는 교사들에 대한 교육은 교단 산하 모든 교회 주일학교에서 주교행정 담당교사들 만을 한자리에 모아놓고 훈련을 시키는데 일반적인 서무기술은 물론 타이프 치는 법, 계산기 쓰는 법, 챠트 만드는 법 등 아주 구체적으로 철저하게 주교행정 담당교사로서 필요한 모든 것을 훈련시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전문화된 주일학교 기능이라든가 실제로 이러한 전문화된 기능을 담당하게 될 교사가 그 분야에 그야말로 전문가가 되었을 때 교회의 지도교역자나 장로님들과의 관계가 분명해야 될 줄로 압니다.

전문인이 된 교사는 자신의 전문적인 지식만을 앞세워서도 안되겠고 또 감독자인 장로님이나 교역자들은 이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정해주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지 웃사람이라고 권위만을 앞세워 아예 인정하려고도 하지 않는 일이 없어야 되겠읍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주일학교는 각 기능별로 전문화되어야 되겠고 전문적인 일은 전문인에게 맡겨야 되겠지만 교사는 어디까지나 당회 감독하에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당회에 보고하고, 문의하고, 지시에 따라 움직여야 됩니다.

5. 주교재정구조가 소비성향이냐 생산성향이냐 하는 판단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나타날 결과를 예상하고 판단하여야 된다.

두번째 큰 질문의 마지막 질문으로 생산성보다 소비성에 치우치고 있는 주교재정 구성의 모순성과 비현실적인 지출 예산단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으면 좋겠냐 하는 질문인데 주일학교 예산이 교회 전체 예산의 5/1 정도가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교회의 재정구분을 대개 예배·전도·교육·친교·봉사 등 이렇게 다섯가지로 나누는데 이 가운데 교육비가 5/1 정도면 된다 이말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충현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 교육예산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주일학교 교역자 사례금은 별도로 하고 순수하게 주일학교 교육에 투자되는 예산만 5천여만원이라고 하니까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제가 설명을 듣기로는 새롭게 공과를 개편하기 위하여 투자한다든가 학습부교재나 교육시설을 위해 투자하는 것은 적고 식대나 교통비등과 같이 일반운영비의 비용이 대단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소비성 비용지출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게만은 생각할 수 없지요.

문제는 지금 밥만 먹고 무얼 무얼 하는데 즉 우리가 얼핏 보기에 공과 개편이나 교육시설 등에 투자하지 않고 단순히 소비해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예산이라고 해도 이것을 단기적으로 보지말고 장기적으로 볼 때 주일학교 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하는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될 줄로 알아요.

그런데 한가지 예산에 관한 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단기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지출은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예산 지출보다 그것이 식대로 나가건 공과 개편대로 나가건 소비적이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전문인이 된 교사는 자신의 전문적 인 지식만을 앞 세워서도 안되고 또 감독자인 장로님이나 교역자들은 이들에 대한 전문지식을 인정해 주고 그것을 교회를 위해 훌륭하게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진단해 볼 때에 충현교회 주일학교 재정관리가 다른 교회에 비하여 뒤진 것은 없어요. 그러나 바로 이러한 단기적인 계획에 의해 예산을 지출하기 때문에 다분히 소비성을 띄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산성 있는 재정관리를 하려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소비성이 높은 재정 구조의 모습을 시정하려면 모든 주교 재정 집행방침을 장기적인 주교발전계획에 의거하여 하도록 하여야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재정관리는 반드시 체계화하여 지출의 우선순위를 두고 꼭 필요한 곳에 우선적으로 지출함으로서 그야말로 경제적인 효용을 최대한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부언한다면 지출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도 사례연구(Case Study)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문가인 대학교수와 같은 분을 고문으로 두어 데이타(Data)를 내서 우선 현실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 어디 어디에다가는 예산을 좀 많이 투자해야겠다 하는 식으로 결정해야지 이러한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어느 부(部)에서 무엇 하겠다고 하니까 예산을 좀 더 주어라 하는 식으로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의 80년대를 위하여는 이같은 과학적 현실진단이 꼭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과거를 모르면 현재를 알 수 없고 현재를 모르면 미래를 알 수 없다는 것을 언제나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장기교육 계획수립의 필수적 요소

물음 이제 시간도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 세번째 질문을 드리겠읍니다. 앞으로 저희 중현교회 주일학교 교사의 자질향상을 위한 장기교육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교육계획에 꼭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요소」는 무엇이며 어떤 「방법」들이 있으며「기간」은 어느 정도가 좋을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 겠읍니다.

대답 정말 시간이 많이 흘렀군요. 그래요 세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점만 간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1. 역시 교사를 위한 교육의 첫째는 영적인 요소이다.

저에게 설문을 통해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다섯가지를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왜 다섯가지를 말씀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읍니다만 그 첫째가 영적요소요, 둘째는 인격적요소요, 세째 지적요소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그러나 굳이 다섯가지를 말하기 위해 두가지를 더 첨부해야 된다면 네째 어떤 부(部)를 위한 교육이라고 할 때 그 부를 위한 실제적인 교육요소라고 말할 수 있겠고 마지막 다섯째로는 행정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읍니다.

즉 영적요소, 인격적요소, 지적요소 등이 기본적인 교사의 자질에 실제적인 요소와 행정적인 요소가 첨부되어야 된다 이말입니다.

2. 교육 훈련 방법은 대부분 기초적방법과 계속적 방법을 기초로 실시하고 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일학교 교사의 교육과 훈련에 있어서는 먼저 기초적 방법을 적용하고 이어서 계속적인 방법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교육방법을 다른 말로는 현직교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는데 현직교육은 또 다시 초급·중급·고급 등 3단계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예비과정도 또한 있겠지요. 기초과정과 고등과정으로 나눌 수 있겠지요.

그러므로 결국 전 과정이 5단계가 되는 셈인데 즉 예비과정을 기초과정과 고등과정 등로 나누고 현직교육을 초급과정, 중급과정, 고급과정 등 세과정을 합해 다섯과정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직교육의 이 3단계 과정을 또 그 단계마다 실무적인 면에서 지도자급 교육·부장급 교육·행정책임자 교육·사무담당교사 교육 등으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3. 주일학교 교사의 교육기간은 예비과정을 3년 정도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

주일학교 교사 교육과정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느냐 하는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봅니다. 너무 길게 하면 김이 빠지고 또 너무 짧게 하면 최소한 하여야 할 내용을 교육할 수 없다는 문제가 생기지요. 그러나 제 의견으로는 그저 한 3년 정도가 적당하지 않겠나 싶어요. 예비과정을 1년으로 하여 매년마다 졸업시키고 예비과정을 거친 후에 현직 교사로 임명을 받아 교육을 받게 되는 현직교육을 3년과정으로 하는데 아까 「방법」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직교육의 초등과정을 3년, 중등과정을 3년, 고등과정을 3년으로 하여 전체적으로는 결국 9년이 되는 셈인데 초등·중등·고등 각 과정의 3년이 3년 단위로 완전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여 3년마다 말하자면 중간 수료를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 한 과정을 3년 수료하면 그것으로 끝날 수도 있게 하는 거지요. 그래 3년을 마치고 다음 3년을 마치고 또 그 다음 3년을 시작할 때 쯤 되면 맨 처음 배운 것 중 잊어버리는 것은 잊어버리고 9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도 있겠지요.

미국의 경우 교사양성 기간을 처음에는 욕심을 내어 사년, 육년 등 기간을 길게 잡았다가 최근에는 길어야 3년으로 하고 있읍니다.

이제 제가 질문을 받은 것은 좀 두서 없기는 하지만 모두 말씀드렸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기회를 종종 마련하여 전문적으로 교육문제를 다루는 분들을 초청하여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이야기 하고 대답을 들어보는 것은 참 유익하다고 보아요. 아무튼 이러한 기회를 만들었다는 것에 대하여 저로서는 참 고무적이라고 보며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이 대담원고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김득룡 목사님의 본래 의사가 잘못 전달 될 수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선교관

김 영 휘 전도사
〈해외복음선교회 · 선교부지도〉

1. 서 론

최근 한국 교회의 해외선교에 대한 강조와 열의는 고조되어 있으나 선교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에 입각한 올바른 이론들의 정립이 시급한 문제점이라고 보아진다. 더욱이 바른 선교관의 확립이 앞으로 나갈 모든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같은 면에서 이방인의 선교사로서 사도바울은 우리에게 매우 여러가지 면에서 모범적인 예를 보여주므로 이를 두 가지 측면 즉 바울의 선교전략과 바울선교의 성공적인 요인의 두 면에서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바울의 선교 전략

바울은 선교전략을 가지고 있었나에 대해 먼저 생각하고자 한다. 여기에 대하여 어떤 사람은 바울에게서 선교전략이 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선교전략이 없었다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는 전략에 대한 사람의 정의에 따라 각기 정반대의 답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관찰과 경험에 근거하여 보다 세밀하고 잘 짜여지고 정당하게 계획이 수립되는 것이 바로 「전략」이라고 한다면, 바울에게서는 그같은 전략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반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발전되고 성령의 방향과 조절에 의존하는 유동적인 의미에서의 전략의 의미를 취한다면 바울에게서는 그같은 전략을 가지고 있다고 보겠다. 그래서 로랜드 알렌(Roland Allen)은 말하기를, "사도바울이 사전에 그의 전도여행의 계획을 미리 의도적으로 세워서 교회를 어느 곳에 세운다든나, 그의 계획에 의해 임무수행을 하는 식으로 어떤 선교전략을 수립했다고 주장하기엔 어려운 일이다"고 말했다. 그러면 이와같이 성령에 의존한 사도바울의 선교전략이 있다면 그것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우리는 바울서신에서 다음 아홉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다.

(1) 그는 모체교회(Home Base)와 언제나 깊은 관계를 맺었다는 점이다.

바울은 그의 회심과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선교적 소명을 받았다. 그러나 이것은 그후에 안디옥교회에 의하여 재확인 되었다. (행 13 : 2—3) 이것은 사도바울의 매번 선교여행의 마무리를 항상 안디옥교회에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사도바울은 그들의 선교의 성공과 모체교회의 기도와 필수 불가결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오자마자 그들 두 선교사들은

교회를 소집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특히 이방세계에 대한 신앙의 문을 어떻게 열게 하셨는지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였다. (행14:27) 그후 그들은 안디옥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오래 머물렀다고 했는데 (14:28) 그 기간동안 그들은 지나간 동안 그들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겠다. 또한 바울은 예루살렘교회와의 접촉을 계속 유지했는데 적어도 20년동안 예루살렘교회는 모체교회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다섯번 이상이나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때마다 그곳의 지도자들과 선교문제를 협의하였다. 당시에는 유대인교회와 이방인교회 사이의 간격이 심각할 정도로 넓어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을 마지막 방문할 때 그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이방인교회로부터 사랑의 헌금을 가지고 갔다. 이 헌금을 가져간 이유는 물론 예루살렘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것이었으나, 그는 이 선물이 다른 목적을, 즉 두 교회 사이의 벌어진 간격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묶으려고 하는 의도에서였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그는 이방인에 대한 그의 선교의 성공과 결실을 확신시키려고 하였다. 바울은 여기서 해외선교는 본국의 강력한 지원과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만 한다고 확신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 그는 그의 선교의 노력을 4 지역에 집중하였다.

어떤 선교사도 그의 시간과 정력을 집중할수있어야 큰 효과를 거둔다고 보겠다. 바울의 선교적 사명은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냄을 받는 데 있는데 그러면 멀리란 어디까지 인가?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인도? 중국까지인가? 분명히 그는 이 모든 지역을 모두 다 방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당시에 인구가 많고 번창한 몇 개의 지방중 주로 네곳에 집중적으로 선교하기로 했는데 그 곳은 갈라디아, 아시아, 마게도니아, 그리고 아가야였다.

바울의 선교전략은 전세계에 씨를 뿌리기 보다는 적은 장소에 집중적으로 씨를 뿌리는 일이었다. 한정된 지역에서 그와 그의 동료들은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열매를 거두기까지 하였던 것이다. (고전3:6) 그들의 목표는 단순히 지역을 카바(cover)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건립하는 데까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의 실제 선교경력은 불과 15년이 안되지만 비교적 짧은 이 기간내에 그는 강하고 활력있고 자원하는 교회들을 위에 네지역에 심는데 성공할 수 있었다. 현대 선교는 이 점에서 바



울에게 배울 점이 있다. 즉 여러나라에 선교사들이 넓게 씨만 뿌리고 그 곳에서 한 개의 강한 교회도 건립하지 못하는 선교방식을 채택하는 경우를 보는데 이 점은 지양되어야 할 점이라고 본다. 우리는 우리의 선교 정책을 넓게 폄으로써 깊이가 없는 사역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그러나 바울은 그와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던 것이다.

(3) 그는 큰 도시를 먼저 점령하였다.

바울은 로마제국의 큰 도시를 먼저 복음으로 점령했는데 이것은 큰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큰 도시는 복음의 빛이 그 주위 지역에 파급되는 전략적으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는 안디옥을 택했는데 그 이유는 이 도시가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제국의 제삼도시이고 상업상 연결지점이며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경유지이기 때문이었다. 또한 안디옥은 헬라·로마 세계에 이르는 관문이었기 때문이었다. 그외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는 상업상 중심지였고, 아덴은 문화의 중심지요,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였다. 특히 에베소는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도시보다도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다. (행20:31)

(4) 그는 회당을 그의 선교 사역의 주요한 일터로 삼았다.

당시 회당(synagogcie)에는 한 관습이 있었는데 그것은 방순하는 랍비에게는 모인 회중들에게 "권고의 말"을 하도록 초대받는 수가 있다(행13:15)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이같은 상황만 주어지기만 한다면 그는 언제나 증거할 기회를 가지고 최대한 활용하였다. 비록 회당으로부터 추방을 받아 또 다른 곳으로 옮길지라도 그는 다시 다른 회당으로 들어가니 복음 증거의 기회를 언제나 활용하였던 것이다. 거기서 반대자도 만났으나 또한 개종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방인들도 접촉할 수가 있었던 것이다.

(5) 그는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더욱 치중하였다.

똑같은 복음을 들은 후에 전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도 마13장에서 씨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좋은 토양은 좋은 수확을 거두워 드리고, 나쁜 토양은 좋지 않은 수확을 거둘 수 밖에 없고, 좋은 토양일지라도 동일하게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어떤 경우에는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다. 바울에게서도 열매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다.
여기에 현대 선교의 문제점이 있다.
어떤 선교사들은 열매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충성한 사실만으로 안일에 빠진다. 또 다른 선교사들은 열매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에 관해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성과 열매 두가지 다 치중하였다.

> 바울은 로마 제국의 큰 도시를 먼저 복음으로 점령했는데 이것은 큰 도시가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큰 도시는 복음의 빛이 그 주위 지역에 파급되는 전략적으로 중심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진리를 거역하고 그 자신을 핍박하려고 덤벼들 때 과감히 결단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너희에게 먼저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행13 : 46)고 말 하였다. 또한 행18 : 6에서는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 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고 외쳤던 것이다.
이것은 사실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롬9 : 2—3에서 말했듯이 보커드를 열정을 가지고 그의 백성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보다도 복음전파와 하나님나라의 확장은 바울에게 있어서 더욱 중요한 일이었다. 그런데 바울의 이와같은 원칙이 현대 선교운동에 있어서 부정되거나 간과되는 수가 많이 있다. 즉 우리는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는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면서까지 땅을 경작하고, 건물을 세우고, 어떤 교회를 세우는 큰 부담을 가지는 수가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발뚝을 툴아서 비옥한 토지에다 옮겨 박을 수 있는 도덕적인 용기를 결여하고 있는 것 같다.
이 점에 대해서로랜드 · 알렌(Roland Alle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저부의 가능성은 언제나 현존한다. 사도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중대한 결정의 순간에 이르면 그는 그들이 스스로 선택할 것을 요구했다. 만약 그들이 거부한다면 바울도 그들을 거부했다. 왜냐하면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한 지적인 지시가 아니라, 그것은 도덕적인 과정이요, 도덕적인 반응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약 그 도덕적인 반응이 거부되는 곳에서 계속 증거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이다."고 말했다.

(6) 그는 회심자들에게 그들의 신앙고백을 받고, 세례를 베풀었다.

1세기 선교와 20세기 선교 사이에 큰 차이점의 하나는 세례의 문제이다. 현대 선교에 있어서는 우리는 회심자들이 어떤 교리적인 수련을 위한 약간의 기간이 요구된다. 그래서 그가 기독교 교리에 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얻고, 어떤 성화의 과정을 획득할 때에만 세례를 위한 준비된 자격을 얻는다. 그러나 신약성경에는 초대교회에서 회심자들의 회심과 세례 사이에 길든지 짧든지간에 어떤 간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증거는 찾아 볼 수 없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에 응답한 3,000명의 유대인이나 개종자들은 어떤 종류의 부가적 교육이 없이도 그 자리에서 즉시 세례를 받았다(행2 : 41) 이방의 빌립보 간수들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행16 : 33) (행16 : 33) 여기에 중대한 요소가 있는데 사도 시대에 있어서 복음에 관한 메세지에는 언제나 성령의 능력과 함께 동반한 사실이라는 점이다 (고전2 : 1 -5, 살전1 : 5)
성령의 역사만이 인간의 영혼을 재생시킬 힘이 있는 것이고 (요3 : 5—6 딛3 : 5) 이와같은 상황 하에서만이 새로운 개심자들이 그의 옛생활로 돌아가는 위험이 적어지는 것이다. 사도시대 이후에 와서는 교회가 『영적인 능력』을 대신하여 『교회의 능력』을 대용(代用)하기 시작 하였을 때 세례 후보자들에게 얼마동안에 수련과 교리를 받을 필요가 생겼던 것이다. 물론 오늘날의 교회의 제도를 무시해서는 안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내적인 성령의 인도에 무관심하고 너무 외적인 형식에 치우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7) 그는 한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오래 머물러 선교를 하였다.

17세기 화란 신학자 웨티우스(Voetius)는 선교의 3가지 목적을 이방인의 개종, 교회의 설립,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한 후 근대 선교운동은 이상 세가지 목적을 선교의 과업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교회의 설립이 매우 중요하다. 사도바울은 그가 전도한 매 도시에서 그가 떠난 후에도 그들이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하고 자라나는 교회를 심어주는 데 노력한 것을 볼 수 있다. 바울에 의해 설립된 교회들은 자치(Self—Governing), 자립(Self—Supporting), 자전

(Self-Propagating)하는 교회들이었다. 이같은 교회로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만드는 것이었다. 여기서 현대선교는 바울의 예를 따르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자치(自治), 자립(自立), 그리고 자전(自傳)하는 교회를 세워야 한다. 그런데 현대선교는 교회의 자치와 자립까지는 강조하는데 자전은 강조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는 아무리 교회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교회 주변은 여전히 전도되지 않은 지역이 너무나 많은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8) 그는 그의 동역자들과 더불어 일했다.

바울은 선교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독불장군이 아니었다. 그는 그의 사역에 있어서 동역자들과 함께 일했다. 그는 선교하기 전부터 안디옥교회에서 부터 바나바와 함께 일하였다. 그는 첫번째 선교여행에서 바나바와 요한 마가를 수행하였다. 실라가 그의 동역자였고, 또한 디모데, 누가가 있었고, 행20:4에는 소바더, 아리스다고, 세군도, 가이오, 디모데, 두기고, 드로비모등이 나오고, 롬16장에서는 모두 27명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들은 모두 사도바울의 동역자들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날 팀·선교(Team-mission)를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그는 외로운 전도인이 아니라 많은 선교사들을 명령하는 사령관이었고, 그의 동역자의 수는 복음사역이 활발할수록 더욱 증가되었던 것이다.

(9) 그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가 되어 주었다.

복음의 내용은 변하게 할 수 없으나 증거의 방법면에서는 융통성있게 증거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 되었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이 되어 주었다. 이것의 최대의 목표는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는데 있다고 그는 말했다(고전9:19~23) 바울은 그의 높은 종교적 가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다고 말했다. (빌3:8) 바울은 자신의 신학적 주장을 전지하고 한치도 양보하지 않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혼연히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양을 취한 것은 그들을 구원하려는 열망 때문이었다.

3. 바울선교의 성공적인 요인

사도 바울은 그의 선교사역에 있어서 성공을 기대했으며, 성공을 위해 기도하였고, 성공을 확신했으며, 또한 성공을 이룩하였다. 그러면 그의 이와같은 성공의 이유는 무엇일까? 일곱가지로 생각해 보자.

1)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 일했다.

바울은 그 자신을 사도로 부름 받았다고 여러번 언급했다. (롬1:1, 고전1:1, 갈1:1, 엡1:1, 골1:1, 딤전1:1, 딤후1:1) 엠3:7에서는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은혜의 선물을 주어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오늘날 많은 선교사들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데 대한 깊은 확신에 있어서 동요가 있는 경우가 많은 점이다. (Identity crisis)

(2) 그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헌신하였다는 점이다.

바울은 히10:7에서 "오 주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고 고백하였다. 다메섹의 체험이후 그의 주요 관심은 자신의 어떤 지식이나 이론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일이었다.

어떤 선교사들은 열매에 무관심하기 때문에 그들이 충성한 사실만으로 안일에 빠진다. 또 다른 선교사들은 열매를 너무 지나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의 충성에 관해 무관심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충성과 열매 두 가지 다 치중하였다.

그는 로마에 가기를 열망하면서도 롬1:10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들에게 갈 기회를 얻기를 구하노라고 말했다. 또 육체의 가시를 얻었을 때 세번이나 이를 없이 해 달라고 기도했는 데 이것으로 인해 오히려 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은 후 부터는 고후12:9에 말하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데서 온전하여 진다고 고백하였다.

(3) 그는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바울은 고전2:4에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말한 것처럼 그의 선교는 성령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한 선교활동 이었음을 볼 수 있다. 성령은 생명의 영(롬8:2)이며, 진리의 영(요14:17)이며, 능력의 영(행1:8)이시므로 죄악으로 죽은 영혼을 일으키시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 전도함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에 의존함에 있음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이 특히 선교사들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이 없이 자신의 경험이나 수고로 한다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슥4:6)

(4) 그는 복음을 담대히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든지 제시하였다.

바울 시대에는 세가지 주요 그룹들이 있었는데 즉 유대인과 헬라인과 로마인들이 그들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것들을 원했으나 바울은 그들에게 모두 동일한 복음만을 전파하였다.

유대인들은 이적을 구했으나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야임을 증거했다(행14 : 19)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으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육체의 부활을 증거했다(행17 : 32) 로마인들은 능력을 구했으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하였다(롬 1 : 14-16) 다시 말해서 각 민족마다 그 시대마다 요구하는 문제가 각기 있었으나 사도 바울은 어느 대상이든지 복음을 증거하는데 결코 그들과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진리를 확신했으며(골 1 : 5), 또한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였다(롬1 : 16)

(5) 그는 지교회의 자립심을 키워 주었다.

바울은 그의 회심자들을 어떻게 다루었나? 각기 지교회를 설립하여 각기 그 자신의 발로 자립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어떤 외부적인 도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에 의존함으로 하였다. 성령의 사역에 의하여 바울은 교회내의 모든 조직—장로의 임명 세례, 교육, 재정—을 이끌어 나갔다. (행20 : 28)

교회의 외부적인 설립이 어느 사람이 세웠다고 해서 그 사람 중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세우신 것으로 알고 그 교회의 교인들이 성령에 의존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본받아야 할 점이다.

(6) 그는 재정에 관해 현명한 정책을 가지고 운영을 하였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10 : 10에서 일꾼이 저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말씀하셨고 고전9 : 14에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듯이 바울도 그의 회심자들로 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바울은 물질에 대해 다음 세가지 정신을 가졌는데 ① 그 자신 손수 일함으로써 자신을 유지했으며 오히려 그의 동료들을 돕기까지 하였다. ② 그에 의해 설립된 교회들은 처음부터 자립하도록 지도하였다. ③ 그에 의해 설립된 교회들이 비록 어려운 때에라도 그들보다 다른 교회가 더욱 어려운 처지에 놓이면 그들을 도와주도록 지도하였다. 이와같은 정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권리를 포기한 것을 바울서신에서 여러번 볼 수 있다. 고전9 : 18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고 말하였다. 그는 데살로니가에서 밤과 낮으로 일했고, 에베소에서도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했다(행20 : 33) 그러면 바울이 물질에 대해 왜 이같은 태도를 취했을까? 그것은 로마시대에 "소요학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돌아다니면서 어리석은 청중들로 부터 물질적 도움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바울은 백성들로 부터 이와같은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하여 물질에 관해 사도의 권리를 포기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한편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시로 바치는 개인적인 선물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아니하였다. 빌립보교회는 이러한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빌 1 : 7, 4 : 15,16)

(7) 사도바울의 인격자체에서 선교사로서의 모범을 찾아 볼 수 있겠다.

선교사가 말씀을 전하는데 있어서 메세지 이상으로 선교자 자신이 더욱 중요한 것을 우리는 바울에게서 찾아 볼 수 있다.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의 성공은 이것을 잘 뒷받침 해주고 있다.

살전 1 : 5에서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을 너희 아는바와 같으니라"에서 "어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이 데살로니가교회 교인들에게 인격적인 면에서 흠이 없이 잘 처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살전2 : 10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 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고 말하였다. 살전 1 : 6—7에서는 "또 너희는…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와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는지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먼저 바울을 본받고, 그 다음에 주를 본받았다고 기록했다. 다시 말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을 통하여 주를 알게 되었고 본받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와같이 바울자신의 인격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산 증인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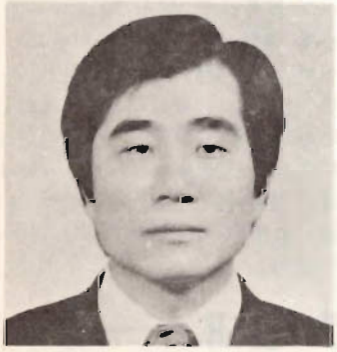
그러므로 선교사에게 있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일꾼에게 있어서 전파하는 말씀보다도 자신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인격 자체에서 보다 더 진도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선교부 안내

중·고등반	매주	토요일	오후 7 시
대학·청년반	매주	금요일	오후 7 시
장년반	매주	주 일	오후 3 시

※ 중국어강좌 매주 월·토요일 오후 7 시

평신도를 위한 사이비 종파의 현황과 문제점



손 경 수 집사
《기독신보사 편집국장·대학부 교사
월간총현 편집위원》

回 첫머리에 回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 많은 교회들을 세워주셨다. 비록 다른 나라에 비해 별로 크지도 않은 한국땅에 2만5천여 교회에 7백만명 이상의 신자가 있다는 사실은 교회설립 1세기를 몇년 앞두고 장족의 발전이라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처음 복음을 받은 우리의 선배 교우들이 열심히 성경말씀을 전했고, 바른 신앙을 전수하는데 심혈을 기울인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 민족을 불쌍히 보시고 주님의 예정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 성령님을 통한 말씀의 사역이 양적 팽창은 물론 질적 향상의 신앙 교우들을 육성케 한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기독교회가 성장함에 따라 비례적으로 상승되고 있는 사이비 종파의 횡포는 기성교회 교인들을 비진리로 유도하고, 교회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인간의 교만을 노출시키고 있는 현상이다.

이미 세상을 떠들썩하게 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통일교를 비롯하여, 박태선집단의 전도관, 나운몽의 용문산운동, 외국서 수입된 몰몬교(말일 성도 예수 그리스도교), 안식교(제칠일안식일 예수 재림교), 크리스챤 싸이언스, 여호와의 증인, 섹스교 등과 특히 국내에서 생성(生成)된 대한 기독교장막성전, 천국복음전도회, 팔영산 기도원, 시온산 재국, 대한기독교 천도관, 영생 천국본부, 정도교(正道敎) 그리스도 구원신생원, 하나님성전, 귀일원(歸一院)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조차 없는 사이비 종파에 대해 일반 교우들이 이해하기 쉽게 서술코자 한다.

그러나 제한된 지면인 관계로 구체적인 교파활동 상황을 필요에 따라 생략될 경우가 있으며, 필자가 신문기자인 관계로 무리한 해석을 한다든가 필요 이상의 신학적 배경을 들추는 일을 삼가고 논문 형식의 논조를 가급적 피하며, 객관적 사실만 기록하므로써 전체적인 문장의 흐름을 끝맺음에서 결론을 얻도록 해보겠다.

1. 섹스교(원명 CHILDREN OF GOD : 하나님의 자녀들)

미국산 사이비 종교인 섹스교는 1974년 한국에 상륙하여 7명의 미국인 선교사들이 한국인 청소년 소녀, 재수생, 대학생들을 상대로 퇴폐성 교리를 전함은 물론 혼음, 마약 등으로 청소년들을 타락케 하고 있었다.

이들은 포교행위를 주로 사람 왕래가 많은, 특히 젊은이들의 출입이 잦은 명동 일대에서 미국인 한명과 한국인 여학생 한명이 2인1조가 되어 자기네들이 만든 팜프렛트로 사람을 미혹하고 있다.

여의도 아파트에 근거지를 두고 있었으며, 예배의식은 일정한 찬송가나 기도도 없이 속된 유행가곡에 통기타를 튕기면서 노래를 부르고 리-더의 지시에 따라 웃옷을 벗고 키스를 하는 등의 음란스러운 예배형식을 취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밀실은 철저히 잠겨지고 신도임이 확인돼야 출입을 시킨다.

밀실에 들어선 신도들은 미국인 「재프리·팅거」의 빠른 템포의 기타 리듬에 따라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면서 고고나 트위스트를 추면서 괴성(怪聲)을 지르기 시작한다.

광란스런 기타리듬이 멎고 「팅거」가 여신도의 이름을 부르면 호명된 여자는 차례로 나가 「팅거」와 정렬적인 키스와 포옹을 나눈다.

이 광경을 보고 흥분된 신도들은 윗옷을 완전히 벗어 제치고 서로가 포옹하는 등 광란에 빠진다.

이때 「팅거」가 소리높여 외친다.

「여인이여! 그대의 브래지어를 불살라 버리라! 그리고 오늘밤부터 자유롭게 되리라」

1부 의식이 끝나고 준회원(신입신도)이 나가고 나면 정회원들만 남는다.

「아름다운 여인이여! 옷을 벗고 이밤을 즐겁게 하자」라는 쌔즈조의 찬송가를 부르면서 광란에 들어간다. 이들은 학교, 직장, 가정을 떠나 엄격한 공동생활을 시키며 간부 이외에는 혼자 외출을 금지시키며, 외부의 전화나 편지는 철저히 검열을 받는 등 통제를 받는다.

이 섹스교는 성경을 "성괴"(性怪) 이라고 하고 섹스의 해방을 주장하고 부모를 증오하라, 가정을 떠나라 등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교리를 퍼뜨리고 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섹스의 神으로 믿으며 섹스의 자유를 추구하고 저주받은 의복과 나체의 부끄러움으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하며 교주 「데이비드·버그」를 메시야로 믿으며 세상의 종말이 곧 초래하므로 한데 모여 살면서 섹스교의 교리를 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1967년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보수주의 교파의 전도사였던 「데이비드·버그」(약50세) 란 사나이가 기성교회에는 구원이 없다고 선언하고 히피 청소년 50명을 모아 창설했다.

이들은 유랑생활을 하면서 청소년 유괴 혼음을 시키고 마약을 주사하는 등 미국 사회에서도 큰 물의를 일으킨 집단이다.

74년 여름 히피출신의 「재프리·팅거」부부 등 미국인 7명이 관광비자를 갖고 선교사란 명칭으로 한국에 와서 청소년들을 포섭하다가 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강제추방으로 「섹스교」는 한국에서는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

2. 통일교

지금도 기성교회와 사회에 물의를 빚고 있는 통일교는 이미 귀가 따갑도록 익히 아는 사실이다.

최근 「통일교는 기독교가 아니다」라고 기성교회 전체가 힘을 집약시켜 대응하고 있다.

지난 4월 24일 서울 남대문 교회당에서 있었던 통일교도들의 난동은 다시 한번 기성교단의 반감을 일으켰다.

아시아 개혁주의 목회연구회(대표 : 박영관) 가 주최한 신앙특별강좌 두번째 날에 신사훈박사가 「통일교의 정체와 그 대책」이란 제하의 강연을 하고 있을 때, 통일교 청년 1백여명이 쇠파이프와 마이크스탠드를 휘둘러 연사를 비롯한 주최측 임원들에게 전치 4주이상을 요하는 폭력행사를 하므로써 통일교의 이교도성을 폭로하고 만 것이다.

과연 폭력화 되어가고 있는 「통일교」는 어떤 단체이며, 어떻게 생성된 사이비종교인가?

「통일교」는 「세계 기독교 통일 신령협회」의 속칭(俗稱) 이다. 창시자는 문선명이다.

문선명씨는 통일교의 재림주요, 메시야이며 교주(敎主) 이다.

그는 1920년 음력 1월 6일에 평안북도 정주군 덕언면, 상사리 2221번지에서 태어났다.

그들이 펴낸 「통일교회사」 상권에 의하면 문선명씨 탄생의 기록에서 「선생께서 탄생하시기 직전까지 계속 3년간에 걸쳐 금조(金鳥)가 집앞에 있는 노간주나무 위에 날아와 앉곤 하였다는 것이다. 이 금조(金鳥)의 출현은 상서(祥瑞)로운 일이 있을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는데, 선생이 태어나신 후엔 그 서조(瑞鳥)들이 두번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라고 쓰여졌으며, 「16살 되던 부활절 날인 4월 17일 기도가운데 홀연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어 엄중한 당부를 하시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선생께서 그 무렵 내심깊이 작정해 나오시던 인류구원사업에 대한 소명(召命)이요, 공식하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사실여부는 차치하고라도 통일교의 재림주라고 까지 불리우고 있는 문선명은 현재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까지 포교활동을 하므로써 세계적인 지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 개괄적으로 통일교 원리를 설명한다면 통일교의 「원리강론」은 신적 계시의 산물이 아니라 김백문씨의 「기독교근본원리」를 표절한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것은 문선명씨가 김백문씨의 문하생이었고, 「기독교 근본원리」와 「원리강론」은 구조와 용어의 유사성이 많으며, 양자는 인간과 자연을 유추해서 창조주 신을 정의하고 있으며, 인간의 타락은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임을 서로 밝히고 있고 역사의 순환론적인 귀일주의를 주장하며 그리고 새시대 곧 성약시대(成約時代) 등을 말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통일교에 대한 그 이외의 모든 내용은 (에 새계시원리강론, 원리강론의 창조원리, 타락론, 기독론, 복귀원리, 재림론) 지면 관계상 생략하기로 하고 이단종파 연구가 박영관박사의 종합보고를 옮김으로써 통일교 사이비집단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통일교는 신학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회의 이단종파이며, 정통 기독교가 아니다. 통일교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고, 미국에서 자라고 있다. 그것은 神께서 문선명에게 나타낸 새 계시의 진리라고 한다. 그러나 그것은 전도관의 '오묘원리' 여호와 새일교의 '말세의 비밀' 몰몬교의 '몰몬경' 안식교의 '교리문답집' 크리스챤 싸이언스의 '과학과 건강' 여호와 증인의 '새 세계 번역 성경' 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통일교의 원리강론은 김백문씨의 '기독교근본원리' 를 표절한 것이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만일 누구든지 성경의 말씀을 가감하면 이단이라 했다. 그러므로 통일교는 성경을 가감했으므로 이단(異端)이다.

반면에 통일교는 신학적으로 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일종의 행위 구원을 시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구원만을 이룩하였고, 육적 구원을 성취 못하였다고 한다. 이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문선명씨를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대치하고 있다. 또한 통일교는 계속적 계시를 주장하고 있다. 그것은 문선명씨가 신적 계시를 지금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신의 특별계시 독점권을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계시만을 하고 있는 것이다. 통일교는 역사적으로 볼 때에 하나의 혼합주의이다. 통일교는 모든 주의(ism) 사상, 정치, 종교들을 하나에로 통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초대 기독교의 그노스틱주의와 같은 것이다. 그노스틱주의는 유대교적인 요소와 기독교교리, 그리고 이교사상 등을 철학적으로 통일시키려는 혼합주의인 것이다. 통일교의 통일사상 역시 이원론적이며 동양철학의 역학을 조화시킨 사상이다. 그러므로 통일교는 정분합(正分合)의 원리로서 창조, 타락, 그리고 복귀원리이다.

3. 중앙예루살렘 심정교(心貞敎)

1977년 1월 26일 경기도 광주 경찰서는 중앙예루살렘 심정교회의 교주 김준건(金俊健 57세) 씨와 권사 임순옥(林順玉 · 60세) 등을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남종(男從) 여종(女從)으로 통하는 이들 두 교주들은 자신들이 「말씀」(男)과 「권능」(女)이요, 두감람나무, 대언자(代言者) 원동력(原動力) 이라고 주장하면서 1970년초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위치인 속칭 가지울 골짜기에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교주 김준건은 용문산 기도원(원장 나운몽)에서 경영하는 기드온신학교 1기졸업생으로 서울 삼각산 기도원에서 여교주 임순옥여인을 만나 상호 의기투합하자 임여인은 하나님의 계시를 내세워 김씨와 결합하라고 하여 쌍두일신 교주가 된 것이다.

기도원에서 내려온 이들은 서울 중구 양동 380번지에 중앙예루살렘교회란 간판을 걸고 광란스러운 예배를 보다가 물의를 빚자 관악산으로 쫓겨갔다가 1968년경 중앙예루살렘 심정교회란 집단을 만들고 관악구 봉천2동에 그 근거지를 두고 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기 시작했다. 1970년 3월 화전민가 3동을 구입하고 이곳이야말로 말세심판의 피난처라고 선전했다.

그들은 예수가 재림하기 전에 선택된 14만 4천명을 모아야 된다고 했다.

1975년 8월까지 이 세상은 끝나고 불로 심판한다고 예언했으나 이루어지지 않자 1975년 12월로 연기했다가 다시 1976년 1월로 심판을 자꾸 연기하기도 했다. 예언의 말이 빗나가자 악의 도수와 선의 도수가 차야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때가 덜 됐다고 변명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뜻을 못이루었는데 교주의 지시대로 신도는 누구든지 세상의 부부관계를 무시해 버리고 새로이 짝을 이루어야 한다고 하여 부부가 같이 입교해도 바꿔치기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다.

그 의식은 자못 엄숙하게 진행되고 있다.

심야에 파수(보초)를 밖에 세우고 광란스런 예배를 보다가 불을 꺼 버리고 어둠 속에서 여신도가 더듬거려서 남자를 붙잡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

신 새짝 즉 남종, 여종이란 것이다.

그리하여 이들 새짝은 교주의 안수 축복기도를 받고 이불과 요를 하사받아 가지고 1평도 못되는 허술한 토담집 방에 신방을 차린다.

식량은 배급제도이며, 자기 분량을 다 먹으면 굶거나 책임 조달해야 한다.

멀지않아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면 미국 등지에 있는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찾아와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기 때문에 자가용이 들어오도록 길을 닦아야 한다. 그래서 국도에서 5km의 도로를 폭 3m 넓이로 신도들이 약 80일간에 걸쳐 완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도들을 사회와 가정으로 부터 격리시켜 건전한 가정을 파괴하고 유언비어를 유포하여 사회 혼란을 조성하기도 했다.

신도들로 하여금 새벽부터 밤 늦게 노동을 시켜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신도들의 자녀들은 취학을 거부시키고 입산케 하면서도 교주의 자녀들은 대학까지 졸업시키는 비리(非理)를 범하기도 했다. 교주 김준건과 임순옥은 재판에서 1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으며, 예루살렘교 건물은 철거해 버렸다.

4.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몰몬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교는 미국에 토착화(土着化)된 이단종파 가운데 하나이다.

섹스를 모티브로 한 집단이며, 정통 기독교회가 아니다. 몰몬교는 암세포처럼 번식하고 있으며 그들의 독소는 기독교회에 적지않은 피해를 주고 있다. 그들은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며, 그들의 권위의 궁극적인 근거를 「몰몬경」과 「교리와 성약」, 그리고 「값진 진주」에 두고 있다.

그들은 자력구원설(自力救援說)을 주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엘로힘」의 영적 자녀의 큰 아들이라 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구원(代贖的救援)을 부인한다.

몰몬교는 1805년 요셉 스미스 2세가 이 땅에 태어나 말일의 복음을 회복하여 그가 1830년 4월 6일에 최초의 몰몬교를 창설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1844년 6월 24일 요셉 스미스는 살해되었고, 1846년 2월 4일 겨울에 몰몬교는 브링함 영의 지도하에 소위 서부에로 출애굽(Exodus)을 하였다. 그들은 솔트 레이크 도시에 정착을 했으며, 1853년에는 신전건물을 짓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1857년까지 75,335명 인구를 가진 135개 지역사회를 건설했다. 1893년 4월 6일에 38층의 신전이 완공되었고 현재 세계 여러나라에 18개의 신전이 있다. 그러면 이들이 정경으로 사용하고 있는 「몰몬경」은 어떤 것인가?

몰몬경에 의하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개체적(個体的)인 것으로 본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다. 이것은 기독교회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는 태도이다. 기독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일체(一体) 이며 삼위(三位)를 말한다.

몰몬경의 하나님의 사역은 니파이 2서 2 : 14 「하나님이 계시어 하늘과 땅의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행하며, 행함을 받는 것들을 창조하셨으니라」, 알마 11 : 39 「그분이 바로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의 영원하신 아버지시라. 시작이요 끝이시며 처음이자 마지막이시라」에 나타났다. 그것은 하나님이 무(無)에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유(有)에서 창조했다는 것이다. 몰몬교의 「교리와 성약」에 의하면 「원소(elements) 들은 영원하다」(93 : 33) 라고 했다. 그리고 탈메지는 하나님이 「땅을 형성한 물질의 궁극적 요소를 최초로 존재케 하는 의미에서 창조하시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主權的創造)를 부인하는 것이다.

또 몰몬교는 인간의 타락을 하나님이 축복을 하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한 것으로 해석한다. 그러므로 몰몬교는 죄(罪)와 타락을 실제적인 행위로 믿지 않는다.

몰몬교는 세 종류의 천국을 말한다.

첫째는 「하늘(해)의 천국」(The Celestial Kingdom) 이다. 여기에는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충성된 자들이 갈 곳이며 (교리와 성약 76 : 54), 지상에서 회복될 천국이다.

둘째 「지상(달)의 천국」(The Terrstrial Kingbem) 이다. 여기에는 율법없이 죽은 자들과 그들이 육체로 있을 동안 예수의 간증을 받지 아니하였으나 후에는 받아들인 자들이다. 이곳은 지상 외의 다른 영역에 있다.

세째 「테레스티알(별)의 천국」(The Telestial Kingdom) 이다. 여기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예수의 간증을 받아 들이지 아니한 자들과 성령을 부인하는 자와 지옥에 던지운 자들이 있는 곳이다. (교리와 성약 76 : 101).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영원히 거주할 천국과 책함을 받지 못한 무리들이 영원히 형벌받을 지옥이 있을 뿐이다.

5. 새마을 전도회(一名 天口福音傳道會)—교주는 구인회(具仁會)이다.

回 이것이 사이비 종파다 回

1941년 5월 9일 충남 부여군 은산면 신대리에서 출생, 부여중학교 3학년 재학중 신비체험을 했다고 주장한다.

신비체험에 의하면 16세 되던 12월 어느날 새벽 하늘에서 노란 광채가 보이면서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고 한다.

「사랑하는 내아들아! 너는 신앙촌에 들어가라」

그 이후 구인회는 신앙촌에 들어가 시온중학교 3년에 편입하고 이어 졸업했다.

그러나 그에게 구체적 하늘의 지시가 없다가 1971년 음력 1월 17일 새벽 4시경 음성이 들려왔다.

「사랑하는 내아들아 이제 만민의 경배를 받으라」

그러더니 「구인회」를 중심으로 양편으로 흰옷 입은 천사들이 끝이 보이지 않도록 늘어서서 절을 했다.

그 무리가 사라지더니 모든 나무들이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일제히 달려와서 두열로 늘어서서 절을 하고는 사라졌다. 세번째는 각국 짐승들이 와서 절을 하고는 사라졌다.

세번째는 각국 짐승들이 와서 경배를 했다. 꿈속에서도 이상했다.

그리고는 꿈을 깼다. 깨고 나니까 머리에서 무언가 드르르……기계가 돌아가는 소리가 20분간 났다.

그때 정신이 퍼뜩 들었다. 완전히 맑아지는 것 같았다. 음성이 들렸다. 「하나님은 조직적이고, 과학적이다. 그것은 이사야 11장에 있다」

그래서 성서를 펴보니 과연 그 귀절이 있었다. 그 후부터 가만히 있어도 신구약 66권을 통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인회가 창립한 새마을 전도회의 교리는 성서를 바탕으로 하여 태극기를 성서적으로 풀이하며 한국에 지상천국이 건설된다는 것이며, 신구약 성서 66권은 한국을 중심으로 풀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그 골자라고 말할 수 있다.

자칭 재림예수로 군림하고 있는 구인회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한국에서 이루어지며 이미 「구인회」자신이 재림예수로 한국땅에 왔다고 주장하면서 ① 재림예수는 왜 육체를 쓰신 사람인가? ② 물은 진리를 말한다. ③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함 ④ 재림예수는 왜 사람으로 오는가? 등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으나 신학적 측면에서 볼 때 허구성이 많이 깔려있는 실정이다.

특히 그는 성경의 10계명 대신 「새율법」을 지키고 있는데 그 내용을 훑어보면 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인 태극기를 생각하라. ②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사함이 없느니라. ③ 집회 90번 참석하고 책 90번 봉독하라(15세이상) ④ 어린양의 생명책에 녹명되라 ⑤ 열매없는 나무는 찍어 불사른다. ⑥ 하나님의 재물을 도적질 하지 말라 ⑦ 먹고 마시는 것은 주 안에서 마음대로 하라. ⑧ 백성들은 어떠한 원한이라도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라 등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

동 집단은 시한부 지상천국론의 하나로 73년 음력 11월 10일 오전 9시에 과천 장막성전에 4만 5천도의 뜨거운 유황불이 내리어 장막성전은 불못이 돼버리고 그곳에 지상천국을 건설하여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수를 마시면서 살수 있는 이상향이 이루어진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그런 일이 없는 걸 보면 정신병자의 헛소리가 아닐까?

6. 크리스챤 싸이언스

1879년에 미국에서 에디(Mary Baker Eddy) 부인에 의하여 창설된 크리스챤 싸이언스(CHristian Science)는 현재 미국을 비롯하여 영어를 사용하는 지역에서 포교활동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눈에 띄일만큼 그들의 활동은 없다.

이 종파엔 「과학과 건강」의 기본적인 원리의 개념이 있는데, 질병, 죄, 사망, 악과 같은 비물질적인 것은 존재하지 않고, 선한 것만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일종의 범신론(汎神論)이며, 영지주의 사상(靈知主義思想)이다. 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成肉身)을 부인한다.

크리스챤 싸이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그의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지 않았다고 하며, 예수의 물질적 피, 즉 저주받은 나무위에서 흘린 피가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데 아무런 효과도 가지지 못한다고 한다. 예수의 사역(事役)은 오히려 진리를 나타내는 것이었다고 한다. 또 예수의 십자가에 못박힘의 의미는 애정과 선의 표시였다고 한다.

크리스챤 싸이언스는 약 1세기의 역사를 이룩하고 있으며, 본산지(本産地)인 미국을 비롯해서 약60개국에 포교를 하고 있다.

크리스챤 싸이언스는 성경보다 「에디」부인의 「과학과 건강」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고의 유권해석을 말하고 있다.

비록 그들이 예배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고 있으나 성경해석의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과학과 건강」이며, 영해(靈解)를 하고 있는 영지주의(靈知主義)인 것이다.

또 크리스챤 싸이언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칭의(稱義)를 말하지 않는다.

인간의 행위로써 구원이 성취되고 신적 은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크리스챤 싸이언스는 예수를 하나님이 아니라 단지 인간이며, 그는 어떤 신적 개념의 명칭이며, 이 개념이란 크리스챤 싸이언스를 통하여 병과 죄가 고침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크리스챤 싸이언스는 에디 부인이 과학적 물리 치료에 대한 신적 원리의 최종 계시를 받았다고 하며, 그녀가 쓴 「과학과 건강」을 인간의 가설로 오염되지 않은 진리의 음성으로 간주하고, 그들 외에는 새 진리를 갖지 못했다고 한다.

7. 이용도(李龍道) 황국주(黃國柱)의 목가름

이들은 1930년대에 전국적으로 선풍을 일으킨 인물들이었다. 그들은 현실교회에 도전해서 특히 교역자의 무력과 세속화를 공격하였다. 그러므로 평신도들에 대해서 선풍적인 인기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의 신앙에 의혹이 발로되기 시작하였다. 이 용도는 감리교 목사로서 입신녀(入神女) 의 폐임에 빠져 교파창설을 허락하였다. 그것이 평양의 「중앙 선도원」이었으며, 그 후 「예수교회」로서 스웨덴벍그의 신비주의를 전적으로 흡수하였다.

원산, 철산의 「새주파」가 모두 그 일파였다. 이용도는 예수의 신성(神性) 을 강조하는 나머지 「예수는 마리아의 피 한방울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한다. 황국주는 신비 중에 자기의 「목」이 떨어지고 그 자리에 「예수의 목」이 붙었다 하며 자기를 신성화 하였다. 이 목가름의 원리가 「피가름」, 또는 「혼음」 사건으로 변천되었다.

8. 정달성(鄭達成)의 성수주일(聖守主日) 무용론 (無用論)

그는 평안남도 중화군 일대에서 부흥운동을 인도해 오던 분이다. 성경에 해박하고 박력도 있었다. 그러나 주일을 거룩히 지킨다는데 이의(異意)를 말하며 주일에 일을 해도 좋다고 하여 농촌교회 교인들을 유혹하였다. 농번기에 가뜩이나 분주한데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는 교회의 엄명은 무거운 멍에와 같이 생각되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 받았다는 고마움이 중심에서 일어나지 않고 「성수주일」을 계율적으로 지키려고 하니 무거운 짐이었다. 그런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가 주일에 일해도 상관없다고 하니 이 교훈은 농촌 교인들에게 먹혀 들어갔었다.

최근 세칭 「구원파」에 속하는 자들이 주일에 일해도 예배당에 가지 않더라도 마음에 거리낌이 없다는 생각은 이미 옛날부터 교회 안에 잠입해 있는 「쏜뿌리」인 것이다.

9. 용문산 이단운동

고신파에서 나장로의 구국설교집 제5집을 문제삼아 아래와 같은 점들을 들어서 이단으로 규정하였다.

① 공자 석가도 신이 보내신 동방의 선지자요, 신의 뜻을 나타내었다. ② 복음이 전파되기 전 시대인은 유, 불교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 ③ 유불교가 기독교 복음안에서 조화되는 것이 천국이다. ④ 진리는 형에 있지 아니하고 질에 있으니, 진리이면 유교나 불교나 기독교가 하나가 된다고 함 (새생명 77년 11월호 활개치는 종파운동 ② p72—73) 마치 그의 주장은 「기독교 신령통일」의 이념과도 비슷하다.

이와같이 우리나라에 사이비 이단종파들이 교묘히 교회 안에 침투해서 순진한 양을 횡탈하고 그 영혼을 죽이는 것이다.

맺는말

지금까지 순서없이 사이비 종파의 현황및 교리적 문제점 등을 열거해 보았다. 한마디로 우리 주위에는 항상 사이비 종파의 횡포가 있고 자칫 생각을 잘못 가졌을 때 이들의 미혹에 끌려 들어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지금 우리 기독교회 안에도 이상하게 성경을 풀이하여 진리를 오도하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연약한 유부녀, 무지한 교인들을 교묘히 포섭 기성교회에서 빼돌리는 작전도 하고 있다.

서울시내 S교회는 신유은사 집회를 구실삼아 초신자 전도보다 기성교회 교인들을 많이 확보했는데, S교회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D교회 교인만은 한사람도 자기 교회에 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는 한마디로 D교회는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성경교육을 철저히 훈련 시켰다는 결론이다.

성경을 바로 믿고 배우는 일이란 우리 모든 교회가 해야할 제일 중요한 교회 교육 정책이다.

사이비종파는 인간의 약점을 최대한 이용한다. 여기에 현혹되어서는 안되며, 건전한 기도생활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

아직도 우리들 주변엔 물불 가리지 않고 철새처럼 부흥회 집회를 따라 다니며 흥분하고 격동적 신앙을 갖는 교우들이 많다. 집회의 강사가 어디 출신인지도 자세히 모르고 무턱 대고 「아멘」하고 있는 신앙의 오류를 남겨서는 안되기 때문에 성경 배우는 일에 적극성을 띠고 매일 매일 경건한 생활과 기도하는 일에 게으름을 피우지 않은 것이 사이비종파에 현혹되지 않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

산업청소년 전도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한 제언



김 순 애전도사
〈산전교육부부지도〉

암흑의 땅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이 들어온 후 백년이 가까와 오고 있다. 선교 백년의 짧은 역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교회는 세계 교회의 주목을 받으며 급성장하고 있으며 700만을 헤아리는 성도들의 가슴에는 민족 복음화와 세계 선교의 강한 사명감으로 불타고 있다. 이제 명실공히 한국교회는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한 것이다.

여러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는 각 분야에 걸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우리 충현교회에서도 세계 선교를 비롯하여 민족복음화의 일원으로 농어촌전도, 군인전도, 학원전도, 병원전도 등을 전개해 오던 중 3년전 하나님의 크신 뜻이 계셔서 산업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산업전도회가 조직되고 산업전도교육부가 개교하게 된 것은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우리나라의 사회구조는 근대 산업의 눈부신 발전과 함께 과거 농경사회에서 점차로 산업사회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노동인구의 약90%가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싯점에서 산업사회의 복음화는 민족복음화의 지름길이며 산업사회는 우리들의 좋은 어장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좋은 어장에서 올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치 못할 때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야기되며 교회는 큰 상처를 받게 된다. 따라서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본인은 산업사회의 복음화를 위해 몇년간 일해 오면서 얻은 짧은 경험을 통하여 보고 느낀대로 주관적인 입장에서 산업전도의 필요성과 문제점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서 산업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고자 한다.

Ⅰ. 산업 청소년 전도의 필요성

1. 산업 청소년의 현황과 당면 문제들

1978년 6월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 인구는 1524만 8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중 산업 청소년(14-24세)들이 368만명으로 24.1%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이를 직업별로 보면 1977년 12월 노동청이 5인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전 사업체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45.5%가 청소년들이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는 57.3%가 청소년들이며 그 중 여성 근로자들이 69%를 차지하고 있다. 그 외에도 상업 및 써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나 조사 대상이 되지 않은 자유직종을 가지고 있는 근로 청소년들을 다 포함할 때에 상당수의 근로 청소년들이 있다.

이 산업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불우한 환경으로 인해 진학을 포기하고 일찌기 산업전선에 뛰어들어 불완전한 작업 환경 속에서 저임금과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므로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 중 53.8%가 가정을 떠나 기숙사 생활이나 자취를 하면서 가정의 통제 밖의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정서함양, 풍기순화 등의 문제가 크게 제기되며 사업장 및 영세민촌 주변의 나쁜 환경, 분위기는 이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사회보장제도 기업내 복지 후생시

설 및 노동조합 자체의 복지 활동이 지극히 미약한 현실 하에서 근로 청소년들이 건전한 인격을 형성하면서 성장할 수는 없는 실정에 있다. (78년 겨울호 「청소년」 P55-59참고)

육체적으로는 성장기에 있으며 정신적으로는 인격 형성기에 있는 이들 산업 청소년들은 현실에서 그들의 꿈을 키울 수 있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건전한 방법을 찾지 못할 때 고뇌의 탈출구로 그릇된 길로 빠지게 되며 사회적인 문제까지 야기 시키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에서는 산업인구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당면 문제에 대한 대책운동을 전개하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사회보장제도나 복지 시설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들 청소년들의 근본적인 삶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작업 환경이 좋아지고 후생시설이나 사회복지가 이루어 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제 문제의 해결은 아닌 줄 안다. 이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깊은 죄악의 바다 밑창에서 실의와 좌절과 실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몸부림 치던 생명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취어질 때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가진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새 생명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고 나아가서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인식하므로 그들의 삶의 목적과 자세는 하나님 주신 사상으로 바뀌어 지고 노동에 임하는 자세도 하나님의 신한 청지기로서의 생활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 산업 청소년에 대한 교회의 관심

이런 심각한 문제를 두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는 얼마나 산업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투자하고 있는가?

각 교회마다 주일학교 교육을 통해서 영아로부터 유치, 유·초등, 중·고등, 대학생들을 교육 시키고 있으나 정규학교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직업 전선의 산업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무관심하다. 뿐 만 아니라 어린이 전도협회, 청소년전도협회, 대학생 선교회, 그 밖에도 각종 성경 연구 모임들이 있으나 근로 청소년들이 참여하여 마음껏 성경을 공부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꿈을 키울 수 있는 곳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작년 10월 청소년 전도협회 행사로 충현교회에서 청소년 초청집회가 열리고 있던 때의 일이다. 같은 나이 또래의 산업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을 했으나 교복을 입지 못한 저들의 신분이 안내하는 교사들을 통해서 일반석으로 보내어질 때 그 가슴 아픔은 나 혼자만의 것은 아니였을 것이다. 이처럼 많은 청소년들이 교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어 받지 못할 때 그들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겠는가? 오늘 우리 주변에는 주일학교에서 유·초등, 중등과정을 다 받은 많은 산업 청소년들이 교회당의 종소리에 마음이 끌리면서도 그들이 설 자리를 찾지 못하여 교회 주위를 배회하다가 돌아가고 있다. 또한 반면에 상당수의 산업 청소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꿈을 키우며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현실을 극복하며 내일의 소망 속에 아름다운 신앙인격을 키우며 자라나고 있다. 저들을 향해서 따뜻한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을 들려 줄지언정 경멸하는 냉혹

> 진정한 산업사회 복음화는 일부의 주장처럼 약자와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만의 인권운동이나 사회구조의 개혁운동이 아닌 기업주나 경영 간부진까지 포함한 전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사회 복음화 운동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한 눈초리로 저들을 슬프게 판들고 저들의 인격을 업수이 여기는 무분별한 언사로 저들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겨 주어서는 안될 줄로 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는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고 배운 자나 못배운 자의 차별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도 땅 위에 계실 때 고아와 과부를 불쌍해 여기시고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의 진실한 친구가 되어 주셨다. 뿐 만아니라 친히 제자들의 발을 옛적 섬기는 자의 본을 보여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요13 : 34)고 말씀하셨으며, 마가복음12 : 30—31말씀에도 계명 중 첫째가 무엇이냐고 묻는 서기관에게 「첫째는 네 마음을 다 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고 말씀 하셨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너무히 강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진정 우리의 이웃은 누구이겠는가? (여리고 도상에 강도 만난 자임을 우리는 익히 아는 바이다.)이런 주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오늘날 교회 교육의 헛점이 있지 않나 자책해 보는 것이다. 교회마저 이들을 위로하고 안아 들이기를 꺼려하고 아픈 상처에 더 깊은 상처만 안겨 준다면 교회는 깊은 세속의 잠에 취해 있다고 보는게 옳지 않을까?

Ⅱ. 산업 청소년 전도를 위한 제언

교회가 산업사회 복음화에 무관심하고 있을 때 사회구원을 부르짖는 그릇된 선교단체들이 나타나서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위한 인권운동 내지 사회구조의 개혁운동을 전개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리하여 근로자들로 하여금 기업주에게 도전하여 권익을 찾도록 선동하여 기업주와 근로자간에 불신을 조장하며 더 나아가서는 미움과 파괴를 동반하여 기업의 도산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산업선교 단체의 이와같은 비성경적 방법의 선교운동으로 인해 각 기업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나쁜 인식을 갖게 되고 따라서 진정한 산업사회 복음화 운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무관심하게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줄 안다. 각 교회의 복음전도도 그 활동 대상으로서 산업사회에 눈을 돌려 보다 적극적으로 산업사회 복음화 운동을 전개할 싯점에 이르렀다고 본다.

늘 우리 주변에는 주일학교에서 유·초등, 중등과정을 다 받을 많은 산업 청소년들이 교회당의 종소리에 마음이 끌리면서도 그들이 설자리를 찾지 못하여 교회 주위를 배회하다가 돌아 가고 있다.

진정한 산업사회 복음화는 일부의 주장처럼 약자와 가난한 자와 눌린 자들만의 인권운동이나 사회구조의 개혁운동이 아닌 기업주나 경영 간부진까지 포함한 전 산업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사회 복음화 운동이 되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전하여 그 복음의 능력으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의식을 가지고 밝고 명랑한 산업사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산업 청소년 복음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Ⅰ. 기업주 복음화를 위한 전도운동 전개

산업사회 복음화의 지름길은 기업주 복음화에 있다고 본다. 기업주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철저한 청지기의 자세로 기업을 운영하며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근로자들에게 본이 될 때 그 직장의 복음화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올바른 기업정신을 가지지 못한 일부 악덕 기업주들이 약한 근로자들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예를 종종 볼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크리스챤 기업인들 중에도 신앙과 생활의 이중적인 행위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업에 이용한다는 세간의 빈축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건전한 기업 풍토가 이룩되며 올바른 노사관계가 형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제 문제의 해결은 정부시책 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기업주 개개인의 양심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모든 기업인들이 땅위의 기업주가 된 것을 인식하기 이전에 자신들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있는 것을(엡 6 : 5) 철저히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청지기의 겸손한 자세로 임할 때만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미에서 기업주 복음화는 시급한 것이며 기업주 복음화를 위한 상설기구가 조직 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이 기구를 통해서 크리스챤 기업주들은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는 자기 수련을 쌓아야 하며 이 땅의 많은 기업주들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적극적인 운동을 전개해야 될 줄 안다. 이런 싯점에서 우리 충현교회에 「산업전도회」가 조직케 됨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아직도 산업사회 복음화에 대해서는 그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한 우리 교단에서 처음으로 복음의 횃불을 높이 들었으니 이제 그 빛을 저 흑암에 싸인 산업사회에 널리 멀리 비출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 간절하다.

그리할 때에 이 땅의 모든 기업은 하나님의 축복된 기업이 되며 「근로자를 가족같이 공장 일을 내일 같이」라는 슬로건은 구호가 아닌 현실로 아름답게 나타날 것이다.

진정 기업주와 근로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철저한

청지기의 자세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건전한 기업 풍토가 이룩될 것이며 기업의 복음화는 한 걸음 앞당겨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한다.

2. 교회내에 산업 청소년을 위한 교육 기관을 설치

상술 한대로 많은 산업 청소년들이 교회에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부서가 없다. 저들이 마음껏 말씀을 배우며 올바른 신앙인격을 연마할 수 있도록 주일학교에 한 부서로 조직할 것을 제안한다 이 일에 우리 충현교회는 그 첨단을 걷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976년 7월 3일 30여명의 학생들로 시작된 산업전도 교육부는 충현교회 15부 주일학교 중 13번째로 개교된 부서이다. 지난 7월 첫주일에 개교만 3주년을 보내면서 재적200명이 넘는 발전을 가져왔다.

그간 여러가지 어려움을 뚫고 눈물로 씨뿌리고 가꾸어 온 결정체들인 것이다. 시간적으로 제약을 많이 받는 학생들이라 무슨 행사가 있을 때마다 밤10시에 모여 꼬박 철야준비를 하면서도 마냥 즐겁기만 하다. 젖을 먹으면서 엄마의 품 속에서 아무것도 모르던 철없던 영혼들이 이제 제법 성장한 면이 눈에 띄인다.

참고삼아 산업전도 교육부의 현황을 잠시 소개 하고자 한다. 최저 연령14세를 비롯하여 27, 8세의 언니들까지 매주 평균 출석 130여명의 학생들이 전담 교역자 3명을 비롯하여 27명의 교사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신앙인격을 키우고 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라는 표어 아래 ①확실히 배우고 ②힘써 일하며 ③끝까지 전하자는 실천사항을 정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 더 나아가서는 산업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큰 꿈을 가지고 배우며 봉사하고 있다.

교과과정은 3년 반복으로 교육 커리큐럼을 계획하고 지도 교역자로부터 제1강의 시간을 통해서 조직신학을 비롯하여 교회사, 윤리학 등의 신학적 강의가 있다. 교사들을 통해서는 성경을 창세기부터 파노라마 식으로 배우고 있으며 생활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특강 시간을 통해서 신앙으로 성공하신 분들의 간증이나 여러가지 유익한 강의를 듣고 있으며 찬양 시간을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한다.

학생들의 자치행사는 면려회 활동을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다. 매월 월례회와 임원회를 통해서 사업을 토의하고 전개해 나간다. 면려회 행사로는 「기드온 전도대」를 조직하여 매주 토요일 기도회를 갖고 매주일 노방전도를 실시하며 매월 세째주일은 일제전도 주일로 정하고 전체 학생과 교사들이 전도를 나간다.



〈산전 교육부의 활동 - 면려회 창립총회〉

또 교회 절기행사를 통해서 여러 특수지역으로 전도도 나가며 매월마다 여러가지 교육적 프로그램들을 통해 신앙성장을 위해 힘쓰고 있다. 특기할 것은 일년에 한 두 차례 명절이나 휴가기간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수양회 때는 고향에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 것을 포기하고 참석하여 큰 은혜를 받기도 하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복음화를 위한 제자화 운동의 일환으로는 두명의 여교역자가 각 사업체로 찾아가서 성경공부와 상담을 하고 있으며, 임원, 반장을 중심으로 성경공부를 통한 훈련을 하고 있다.

또한 남자 교역자는 본교회 산업전도회 소속 각 기업체에 나가 주1회씩 직장예배를 인도하므로 각 직장에서의 신앙지도와 전도운동을 겸하여 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받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많은 근로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건전한 신앙인으로 자라고 있다. 우리 주위에 복음으로 올바로 자라나야 할 근로 청소년들이 많이 있으나 산업사회 복음화에 관심을 둔 지도자의 빈곤과 이들에게 맞는 교육자료 부재 현상은 매우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다. 한국교회는 이제 내일의 주인공인 이들 산업 청소년들에게 좀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줄로 안다.

오늘날 세계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아시아는 거의 복음의 문이 닫힌 지역이다.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는 관심을 총집중 시키고 있다.

그러나 선교사 입국이 불가능한 그 지역에도 우리 한국의 기술자들은 모두 대환영이다. 그 지역으로 취업을 나가는 산업 일꾼들이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연장을 들고 나갈 때 그 사회는 복음으로 비추어질 것이 아닌가?

바야흐로 한국교회는 산업 청소년들을 말씀으로 바로 키워서 그들이 속한 직장을 복음화 시키고 한국의 산업사회와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산업사회 복음화를 위해 그들의 생애를 투자할 수 있는 천국일꾼들로 키워야 할 사명이 주어진 것을 자각해야 될 줄로 안다.

3. 산업 청소년 전도협회의 창설

이상 각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산업사회 복음화 운동을 전개한다고 해도 각 교회에서 산업 청소년 전도 사업을 폭 넓게 전문적으로 전개 하기는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초교파적으로 복음적인 산업 청소년 전도에 뜻을 가진 교역자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규합하여 이 기구를 조직케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기구를 통해서 산업전도의 전략과 그 구체적방법을 연구하고 보급 시킬 뿐아니라 전문 지도자를 양성하여 각 기업에 파송하고 각 교회 산업 청소년 지도자들의 자질 향상을 위한 훈련을 담당할 수 있었으면 한다.

또한 기술교육, 정서교육을 위한 제반시설을 갖추어 산업 청소년들이 구김살 없이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산업 전도회의 직장예배〉

더 나아가서는 연합집회(신앙수련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신앙인격을 키우며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훈련시킬 뿐 아니라 산업사회의 복음화는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것을 고취 시키고 산업전도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춘 능력있는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실행해야 될 줄로 생각한다.

이 기구는 전국을 대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향한 비젼을 가지고 계획성 있고 조직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또한 이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시키기 위해서는 각 교회의 적극적인 후원과 크리스챤 기업이나 독지가들과 모든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물질의 후원이 있을 때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을 것을 믿는 바이다

4. 크리스챤 산업 청소년들에게

마지막으로 크리스챤 산업청소년들이 산업사회 복음화를 위해서 취해야 할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먼저 부르시고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땅의 많은 산업청소년들을 향해서 말씀 하신다. "너희는 가라! 노동인구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저 산업사회를 향해서, 그리고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산업사회를 향해서!"라고……

이제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받은 크리스챤 산업청소년들은 주저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속히 일어나 저 황금어장 산업사회에 그물을 던져야 한다. 흑암에 싸인 저 죄악의 바다 밑창에서 신음하는 여러 동료들의 울부짖음이 들리지 않는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 그물을 들고 저들을 향해서 가자! 그리고 사랑의 손을 내밀어 그물을 내리자.

이제 산업사회 복음화의 중대한 사명을 받은 크리스챤 산업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몇가지 제시 하고자 한다.

첫째, 부름받은 자로서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
둘째, 영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
세째,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진실한 신자가 되어야 한다.
네째, 마음을 같이 하여 협력해야 한다.
다섯째,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심해야 한다.

이 모든 것 위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인 자신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터에서 충실히 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할 때 복음의 빛은 가리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권리는 주장하면서 의무를 잘 감당치 않는다던가 신앙생활을 빙자하여 직장생활에 불충실할 때에 결코 여러분들의 입으로 전하는 복음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성경은 「엡 6 : 5－8」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직장생활을 할 때에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다.

직장에서 산업청소년들의 자세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신앙과 생활이 일치하는 빛된 삶(생활)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인정 받는 자가 되며 직장의 상사와 동료들에게 인정 받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하더라도 기업에 도전하여 저항과, 난동, 파업 등의 극한 행동을 취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성경적인 교훈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 신자들은 악한 세대에 살아가면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심이 없느니라"(골 3 : 25)고 하신 말씀처럼 악한 자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고 힘써야 될 줄 안다.

그리고 맡은바의 임무를 성실한 태도로 철저한 청지기의 자세를 가지고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이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산업사회는 밝아질 것이다.

작업환경이 좋아지고 후생시설이나 사회복지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근본적인 제 문제의 해결은 아닌 줄 안다. 이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 가능한 것이다. 깊은 죄악의 바다 밑창에서 실의와 좌절과 실망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몸부림치던 생명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취질 때 그들은 그리스도안에서 소망과 용기와 믿음을 가진 새 생명으로 태어 나는 것이다.

복음으로 산업사회가 밝아 질 때에 이 땅에는 건전한 기업 풍토가 이룩될 것이며 올바른 노사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 땅의 많은 산업청소년들은 밝고 건전하게 일하며 훌륭한 인격 인으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이제 모두 일어나 복음의 빛을 높이들고 저 어두운 산업사회를 밝게 비추자. 말씀의 그물을 내려 많은 영혼을 건지는 사람낚는 어부의 사명을 하려 다 일어나 가자.

축 교회설립 26주년

산업전도회



회	장	이원철		
부회장		김의철		
서	기	김영근		
회	계	최상규		
부서기		오정헌		
부회계		김영생		
전도부장	오태희	차 장	조성행	임태주
섭외부장	신동수	차 장	김매녀	여옥기
친교부장	김인석	차 장	한형식	
교육부장	김천채	차 장	정광호	
지육부장	남선우	차 장	김재균	
봉사부장	유감순	차 장	구영인	
부녀부장	전순자	차 장	심 숙	조계진
예전부장	오진국	차 장	김경생	
구제부장	강은원	차 장	안중현	
음악부장		차 장	이한승	
의료부장	엄필성	차 장	조일순	임기채

* 이달에 만난사람 *

공로전도사/김연순 · 이명달 전도사

주님의 일이라면 피곤치 않아



□……중현교회 26년간의 역사의 산 증인들이 우리네들 주위에 계신다. 말없이 조용히 행동으로 지금껏 몸된 중현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과 피와 눈물을 아끼시지 않으셨다. 지금도 본교회의 앞날을 내다 보시면서 되어지는 현실을 아끼시며 관망하고 계실 것이다. 앞서 주신 수고의 정성어린 탑과 교훈을 받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감당할 마음 준비하고자 공로전도사 김연순전도사님과 이명달전도사님을 모셔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교훈들을 들어본다. ……□

고 : 중현교회의 초창기 교회설립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 내가 김목사(김창인목사)를 모신 것은 부산에서부터이지. 서대신동에 있는 서부교회에서 부터였는데 같이 교회일을 하다가 서부교회를 떠나게 되어 그를 아끼고 따르던 교인들이 새로 교회를 세울 것을 종용하여 내 손으로 부산 동일교회를 세우기로 하고 계속 함께 계실 것을 부탁했지. 그래서 계속 부산 동일교회에서 김목사가 서울 올라올 때까지 일을 하다가 김목사 올라온 후에도 부산동일교회를 맡아 일을 보고 있었지. 그러다가 1958년 9월21일에 서울로 와서 중현교회에서 정식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지.

그 당시를 생각하면 김조사가(김창인전도사) 부산에 있으면 서울동일교회에서 아우성이고 서울에 계시면 부산동일교회에서 아우성이어서 처음에는 부산 : 서울을 2:1의 비율로 하다가 서울의 동일교회가 차츰 자리를 잡으면서 1 : 2의 비율이 되었다가 결국 1953년12월13일 김조사가 서울로 올라오므로 부산은 내가 계속 돌보고 있었지. 김조사가 나에게 맡겨 놓고 간다고 하면서 가버렸지.

이 자리가 도피성이 되게 해주소서

그 동안에도 서울에 교회자리를 봐 놓았다고 해서 서울에 와 천막쳐 놓은 것도 보고 했었지. 첫 천막에 배때는 우리 김전도사님(김연순전도사)도 계셨었지. 처음에 오니 거적을 펴 놓고 천막을 치고 예배를 보고 있었는데 그 당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은 얼드려 처음 기도. 쏟아지는 것 눈물뿐이었어. 하나님이 불타서 없어진 이 서울도성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도록 허락을 하시니 도피성이 되게 해 주소서 라고 했어. 처음 기도 첫 마디가

'이 자리가 도피성이 되게 해 주소서'라고 나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더군. 두번째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타 없어진 흑암같은 서울도성에 '만경창파 위에 떠 있는 배의 길을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두마디 기도를 하였어. 도피성이 되게 해 달라고, 길을 인도하는 밝은 등대가 되게 해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고 천막을 나왔지.

김목사에 대해서는 한평생 육적으로는 부모 자식같고 영적으로는 주의 종으로 우리 두 늙은이가 눈물로 보살폈지. 병들어 고생할 때와 잘 데가 없어 고생할 때 기도하며 격려해 주고 잘 곳을 마련해 주었어.

이 교회를 지을 때 부산에서 나는 그냥 있으면서 연

희생하는 자가 있어야

보도 했지. 그러다가 3년 후에 서울로 다시 오게 되었어. 그때 본관 다 지어지고 있었을때야. 그래서 우리 두 할머니가 손잡고 일하기 시작했지. 우리가 고생을 했다면 그것은 호강의 고생이고 영광의 고생이었지. 잘 곳이 없어 고생하는 것, 김목사님도 고생 많았고 사모님 역시 무척 고생을 하셨지. 우리 두사람의 고생은 고생이 아니야.

아무래도 희생을 하는 자가 있어야 후계자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후계자를 생각 하면서 희생할 것을 각오하며 한데(바깥) 잠 자도 좋고 밥 굶고 좋아 다녀도 어렵지 않았어. 그때만 해도 심방을 가도 걸어갔었어. 미아리도 두 늙은이가 손잡고 걸어서 심방을 다녔어. (그때는 목사가 심방을 가지 않았어)

지금 고려대학교 앞에 가면 무릎밑까지 푹 빠졌는데 그러면 그 집에 가서 발을 씻고나서 예배드리고 걸어 나오곤 했지. 그래도 피곤한 줄 몰랐어. 당시 버스도 없었고 전차가 있었는데 전차가 안 가는데는 전부 걸어 다녔어. 하루에 몇백리씩 걷게 되지.

김 : 시작부터 이야기 하라면 한명덕권사님댁에서는 모르고 이창옥권사님의 2층으로부터 그 다음에 이 교회의 천막교회 첫주일부터 계속 있었지. 처음에 김목사님(당시 김조사)께서 시작만 하고 부산으로 가시면 교역자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 김조사가 부산가면 강목사(강진선목사:당시 당회장)가 경찰병원 원목으로 계셨기에 교회를 돌보았지.

내가 충현교회와 인연이 된 것은 경찰병원에 근무할 때 서울의 여러 교회를 주일마다 돌아 다니며 환자들을 돌아보는 일을 했는데, 그래서 한 교회를 지정하여 출석하지 못했어. 그런데 우리 자부가 부산 서부교회를 그때 다녔는데 김조사가 서울에 교회를 설립한다고 하며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라고 자주 이야기를 하여 늘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지.

그러던 중 강목사님을 통하여 김조사를 알게 되었지. 가까와지게 된 것은 경찰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서 서울의 여러교회를 다녔는데 그 중에 인자하고 신앙적으로 사랑으로 대해 주는 분이 김조사였어.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강목사님께서 거처할 곳이 없어 방을 얻고 하다가 사택을 지었는데 김천준장로(당시 집사)를 통하여 약간의 보조비를 갖다 주시게 되자 가까와 졌지 그래서 자부의 말도 있고 해서 낮에는 경찰병원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집에 와서 자고 아침에 병원와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새벽기도만은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여 새벽기도를 다녔지.

새벽기도회, 뜨겁고 사랑스러웠어

그때의 새벽기도는 피난민들이었기에 발을 디딜 데가 없을 정도로 혼잡했으나, 그 안이 왜그렇게 뜨끔뜨끔하고 사랑스러운지 어쨌든 새벽이면 고단하든 말든 가고 싶더군. 내 성격이 그런 성격이 아닌데도 그때는 저절로 기도가 나오더군. 그때 참 은혜스러웠어.

그전 김목사님께서 피를 토하시면서 누우셨는데 나에게 충무로에 성전터를 사놓았으니 찾아보라고 해서 한번은 후암동에서 일을 하다가 김목사님 말씀이 생각나 서울역에서 부터 충무로를 향해 물어보면서 걸어 왔지. 여기쯤 오니 삽을 들고 천막치느라고 야단이야.

여기인가 하고 물어 보았더니 성결교회라고 하기에 다시 나와 걸어 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보니 한 여자가 행랑채에 앉아 있길래 이 터가 팔리지 않았느냐니까 이 터를 어느 교회에서 샀다고 말을 하기에 여기이구나 하면서 교회를 찾았지. 그때만 해도 예배는 이창옥권사님댁 2층에서 드렸는데 하루는 내가 후암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윤수현권사(당시 집사)가 찾아와 전도사님 김조사가 오셨는데 빨리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권사님댁에 와 보니 김조사가 오셨는데 김조사가 그때 이제는 후암교회에 가

시지 마시고 이창옥권사님댁 2층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여기 와서 일을 도와 달라고 해서 내 마음도 그것을 바랐던터라 승락을 하고 따라온 것이 충현교회와 인연이 되었지.

그 후 한주일 예배드리면 그 다음주일에는 앉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은 교인이 찾아왔어. 김목사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분이야.

본당자리가 조선여관이었지. 허허벌판에 천막을 치고 있었는데 계속 매주일마다 늘렸지

지금의 젊은이들은 행복해

지금의 젊은이들은 매우 감사해야 해. 귀하신 목사님 밑에서 좋은 꼴을 받아 먹으니 얼마나 감사해. 김목사님처럼 신령하신 분이 없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신령하신 말씀의 꼴을 먹으니 행복한거야.

고 : 좋은 말씀 감사 합니다. 이번에는 초창기 교인들의 열의와 요즈음 교인들의 열의 정도와 신앙상태는 어떠 하신지 말씀해 주세요.

이 : 때가 그때만 해도 지금과 달랐지 않았는가를 생해 보지. 그때의 열과 지금의 열을 비추어 보면 지금의 열이 작은 느낌이 들어. 모든 것이 기초적이었기는 하지만 그때는 결사적이었어. 우리 늙은이들도 한번 기도실에 들어가 엎드리면 밤이 새는지를 모를 정도로 열심으로 기도했어

지금은 너무 식구가 많고 때가 다르니 그럴 수 없지만 그때는 누구나 할 것없이 결사적이었어. 내 몸 하나 죽든지 살든지 성전 하나 지어낸다는 목적으로 결사적으로 전부 자기 일처럼 열심으로 일했지. 구하라 주시마 하신 말씀을 믿고 열심히 구하는 열의가 필요하리라 보아.

김 : 안타까와 하는 심정이 덜한 것 같아. 그때는 안타까와 하여 열심히 결사적으로 매달려 기도한 것같아. 건축현장에 나가서 기도를 해보고 싶으나 모든 것이 여의치를 않군.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이루어 주실 것이야.

이 : 그 당시는 자발적으로 몸소 나와서 성전건축에 도움을 준 사람도 많아. 김목사님부터 스스로 나오셔서 벽돌 한장씩 운반하시다시피 했는데. 그러나 요즈음은 그렇게 할 수야 없지. 물질로 지원해 주는 열의는 그때보다 더하지. 너무 고마운 것이야.

그리고 신앙면에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참 고맙고 놀라운 은혜인 것이지.

김 : 이 전도사님 말씀 맞아. 지금 식구도 많고 주의 종도 많아졌지만 신앙면에서는 흔들리지않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지금도 주시지.

고 : 감사 합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두 전도사님께서 충현교회를 위해 많은 일들을 하셨는데 그래도 내가 이런 일은 미처 못했구나 하시는 아쉬운 일이라도 혹시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일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과 가장 보람있었던 점과 잊지 못할 일이 있으시면 이자리를 빌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 모든 것이 부족하여 좀 더 힘있게 더 할 수 있었어야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 가슴아파.

이 :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잘했었더라면 좀 모범적으로 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지. 그야말로 이러한 생각을 그때 했었더라면 지금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 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돼.

어려웠던 것은 일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지. 일을 하려니 어렵더군.

김 : 일하는 가운데 애로가 없지는 않으나 그렇게 크게 어려운 것은 없었어.

가장 보람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일을 죽자고 성의껏 굶어도 좋고 잠을 못자도 좋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하게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

이 : 일하면서 가장 보람된 것은 내 힘으로 못할 것을 해 놓은 것, 그것이야. 내가 못할 것 하나님께서 해 주셔서 해 놓은 것이 감사하고 보람돼. 단지 보람있는 것을 좀 더 하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해.

잊지 못할 일은 나로서는 도저히 못할 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데 즉 아주 죽을 사람, 내가 그때 안가면 죽을 사람인데 이상하게도 내가 심방을 나갔는데 이길로 가야 할텐데 내 발걸음이 자꾸 이리로 가지게 되어 그 길로 가는데 십리나 되는 외따로 사는 집까지 가게 되어 가 보았더니 아무도 없이 부인이 순산을 하고 있었어. 순산을 하는데 쌍둥이를 순산했어. 그래 모든 것 다 해주고 밥까지 해서 먹여

놓고 캄캄한 밤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 내가 도저히 못하는 일을 했구나 하며 생각을 했지. 이러한 일들이 몇번 있는데 잊혀지지 않아.

고 : 요즈음 전도사님들의 동향은 어떠 하신지요.

이 : 나는 교회에 있다가 미국을 갔었지. 교회일 자꾸 하면 다른 사람들이 걱정을 해서 오히려 덕스럽지가 못하고 폐나 끼칠 것 같아 미국을 갔다가 1년이 못되어 돌아왔지. 지금은 부산의 아들네 집에서 편안히 잘 있지.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야.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에도 덕이 되고 자식들에게도 기쁨이 될 것같아.

하루의 일과는 새로 1시에 기도시간. 그리고 새벽 4시에서 5시까지 예배드리고 7시반에 기도 그리고 집안일 좀 보고 정해 놓은 성경을 보고나면 눌러 다닐 시간없이 새로 1시가 되어 기도하고 나면 역시 집안일 보고 하다보면 하루가 다 지나가지.

김 : 기도시간 정해 놓고 그 말씀 정해 놓고 그 말씀 다 읽고 하면 하루 지나지. 놀거나 낮잠 잘 시간 없어. 감사할 뿐이지. 생활 자체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최대한으로 하나님께 바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 : 우리 두 늙은이는 늘 감사하지. 하나님 일 하다가 교회서 쓸 것 다 주고 자식들 있어 자식들과 같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할 뿐이지.

고 : 마지막으로 우리 충현교회 성도님들에게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계시면 해 주시죠.

김 : 나는 기도가 이 기도인데 모든 교역자나 교인들은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 달라는 것 즉 우리의 삶 전체를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

하나님의 영광위해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해서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 우리의 쓸 것을 다 주시게 마련이야. 하나님의 영광과 뜻대로 살면 우리의 쓸 것을 다 주신단 말야야.

이 : 예수님 나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에 감사하며 주님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 아니겠는가. 내 모든 것 바쳐 주를 위해 충성하는 것, 이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야. 받은 분수대로 사명대로 충성을 하라고 지금도 강조하지.

고 : 감사합니다. 오랜시간동안 귀하시고 새로운 말씀을 해 주셔서 후세의 저희들에게 귀한 교훈이 되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대담 · 정리 : 고 제 원 집사
〈월간충현간사〉

축 교회설립 26주년

남 전 도 회



회 기	이동규				
부회장	손동문				
서 기	서동석				
부서기	김원선				
회 계	박치민				
부회계	강모용				
전도부장	김종석	차 장	정영남	신영권	
섬외부장	윤용규	차 장	송기홍	문홍구	
지육부장	조현명	차 장	박승준	이형수	
예전부장	이창업	차 장	김천재	최상규	
음악부장	노광현	차 장	차신득	김경생	
봉사부장	고명욱	차 장	김종구	이영일	
구제부장	홍중섭	차 장	최대원	정운석	

「내가 주릴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때에 와서 보았느니라」〈마25 : 35－37〉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되어

김 창 배 장로

찌는듯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였다. 영동고속도로를 달리는 자동차의 타이어가 녹을 것만 같은 무더위였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우리가 탄 트럭은 강릉앞 10km 지점에서 정선군 임계면 방면으로 방향을 바꾸어 비포장 도로인 산길로 접어 들었다. 울창한 나무 숲과 험산준령으로 병풍같이 둘러 쌓인 절벽들, 뱀처럼 구불구불 구부러진 해발 800m의 아슬아슬한 고갯길을 넘고 또 넘어 자동차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다. 길 군데 군데는 이번 홍수로 인한 산사태로 길은 파 해쳐져 타고 가는 차는 심한 충동을 받게되어 불안감과 긴장감이 들었다. "주여 이 사명 다하기까지 우리의 건강과 안전과 무사를 성령께서 인도 보호해 주시옵소서"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눈앞에 보이는 산들은 마치 푸른색 옷으로 곱게 단장한 것을 행수가 사정없이 갈기 갈기 찰키워 놓은 것 같아 이번의 피해가 얼마나 극심한가를 현장에 도착하기 전부터 실감나게 했다. 또한 군데 군데 보이는 산사태로 흘러 무너져 내린 바위와 붉은 흙더미가 도로와 냇가와 마을과 옥토전답을 여지없이 황무지로 휩쓸어 침수로 파괴된 앙상한 참혹한 참경을 눈에 보게 되니 눈물이 나도 모르게 시야를 가리웠다.

아무리 인간의 과학 문명의 힘을 자랑한다 할찌라도 초자연의 하나님의 능력 앞에는 보잘 것 없는 인간의 무능한 존재를 새삼 깨달으면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랍고도 위대한 역사의 힘과 범죄한 인생들에게 내리시는 무서운 진노의 채찍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이번 홍수로 졸지에 죽어간 고귀한 생명중에 예수믿고 구원받은 영혼은 얼마나 있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차는 임계면 송계리를 거쳐 첫번 목적지인 반천리교회와 고양리교회로 향한다. 길이 홍수로 온통 메워져 자갈밭이 된 길을 따라 냇가에 이르니 이미 연락을 받고 한상용전도사님이 반가이 맞아 주신다. 교회의 피해상황을 듣고 우리가 가지고 간 구호품과 구호금을 전달하고 김종택목사님께서 위로와 격려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작별한 후 어두어 지려는 저녁 석양길을 재촉하듯 밤 9시경 임계면으로 돌아와 여관에서 하루의 피곤한 여정을 푸니 피곤이 온몸을 엄습한다.

하룻밤을 지내고 아침에 일어나니 어제 저녁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는 계속내려 산길을 가야만 하는 우리는 저으기 걱정이 됐지만 만사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오늘도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정선을 향해 떠난다. 가는 도중 봉정리교회에 들르니 전도사님과 여러 성도들이 비를 맞으며우리를 반겨 맞아 주었다. 우리는 비나리는 길가에서 구호품을 가운데 놓고 둘러서서 함께 기도하며 악수를 교환하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갈 길을 다시 재촉하여 차에 올랐는데 전도사님이 바삐 뛰어오면서 무엇인가 신문지에 싼 봉투를 건네준다. 굳이 사양하였지만 억지로 밀어 넣다시피하여 주는 것을 "고맙습니다"하고 받고 보니 음료와 과자 몇 봉지. 순간 이 어려움을 당한 처지에서 우리들에게 정성이 담긴 식물을 대접하는 그 고마운 심정에 깊이 감사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대접하여야 할 처지인데 생각하니 어쩐지 죄송하고 미안감을 금할 길이 없다.

정선읍으로 가는 산길은 더욱 심하게 파 헤쳐졌으며 중장비, 중기들이 동원되어 복구작업과 도로확장 작업이 한창인 전흙탕 길을 헤쳐 간신히 강나룻터까지 도착하니, 아뿔사…, 사람들은 나룻배로 건너는데 차를 싣고 건너는 나룻배는 고장으로 강기슭 모래언덕위에 올려져 있다. 순간 맥이 탁 풀리면서 김목사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면서 "어찌하노" 말문이 막힌다. 마침 배타러 온 젊은이가 우리의 난처한 형편을 듣고 GMC트럭으로 교량가설공사중인 교각 밑으로 차를 끌고 건너갈 수 있었으니 배가 아닌 자동차가 자동차를 끌고 육지아닌 강을 건너는 수수께

께 같은 현실을 보게 된다.

무사히 강을 건넌 후 여량교회에 도착하여 목사님과 북동교회 전도사님을 반가이 만나 이야기하는중 우리 교회 대학부 학생전도대가 와서 구호물자를 배부하고 많은 수고와 봉사활동을 했다고 전해주는 소식을 들으니 흐뭇한 마음이 가득찬다. 가지고 온 구호품과 구호금을 전달하고 감사와 위로와 격려의 기도를 드린 후 사모님이 정성껏 준비한 식사도 사양하고 갈길을 재촉한다. 정선중앙교회에 도착하니 마침 김득인목사님과 사모님(전 김재일전도사)이 반가이 우리를 맞아 주신다. 잠시동안 피해상황과 형편을 들은 후 간곡한 점심식사 권면을 만류하고 다음 목적지인 신현교회와 북동교회로 향한다.

우리교회 청년부에서 개척한 신현교회를 찾아 가 경건히 머리숙여 기도하기를 "주여 이곳에 뜻이 계시매 교회를 세워 주셨으니 원하옵기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당을 하루속히 세워지는 역사가 임하소서" 간절히 간구 하고 교회의 강전도사님과 사모님을 만나 그곳 형편과 사정과 또 전도상의 많은 애로와 어려운 문제 등을 청취하고 구호품을 나누어 주고 다시 동면으로 향한다.

정선읍에서 약 60리 거리의 험한 산길을 달리는 차중에서 전면에 보이는 우뚝 솟은 높은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김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지난 정월 춥고 눈이 많이 쌓인 날 이성봉목사님과 같이 걸어서 저 산고개를 넘어 북동교회를 답사하셨다는말씀을 듣고 놀라기도 했지만 이 험한 두메 산골의 굶주리고 매마른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 개척교회 답사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목사님들의 수고에 마음속으로 부터 깊은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동면에 도착하니 마침 북동교회 부락 사람들을 면사무소 앞에서 만나 우리들이 이곳에 찾아 온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면사무에 들려 당담직원에게 구호품을 인계, 가능한 편을 이용하여 무곡교회에 전달되도록 부탁 조치한 후 허기진 위속을 짜장면 한그릇으로 메꾸고 돌아 서 정선읍으로 돌아 오니 오후 4시. 오늘 중으로 서울로 돌아 갈 계획을 세우고 정선을 출발하여 영월로 향한다.

대낮인데도 사면이 수목으로 우거져 어두 컴컴한 산고갯길을 구불구불 한참 올라간다. 김목사님께서 이 산고개가 비행기재라는 곳이라고 알려 주시기에 옆을 내려다 보니 과연 아찔할 정도로 까맣게 산 정상으로 오르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 시원한 바람과 함께 스릴 있는 멋진 쾌감이 온몸으로 스며든다. 이처럼 산길을 달리던 차가 평창면을 약60리 남겨 논 산길에서 갑자기 고장. 운전기사가 아무리 애써보나 차는 끄떡도 하지 않는다

해는 이미 저물어 가 산그림자를 길게 늘어 뜨리고 있었다. 초조하고 답답한 가운데에 마침 손님을 태운 택시가 오는 것이 보여 무조건 차를 세워 사정을 말하고 김목사님과 함께 평창으로 돌아 와 정비공장으로 찾아가 경위를 말하고 내일 새벽에 현장으로동행할 것을 약속하고 여관에서 여장을 푼다. 이날밤 따라 억수 같은 소낙비가 계속 나리는데 내일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워진다. 내일은 차가 수리되어 사명을 완수하고 서울까지 무사히 돌아가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잠자리에 든다.

이튿날 아침 비는 그치고 하늘은 맑게 개였다. 약속대로 6시경에 찾아 온 정비기사와 함께 새벽 산길을 달려 현장에 도착. 두 정비기사가 몇군데를 만지니 이상하리만치 끄떡도 않던 차가 시동이 되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나는 무심코 김목사님의 팔을 툭치며 만면의 미소를 띄우니 목사님도 역시 활짝 웃으신다. 다시 영월로 가는 길에 김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과로한 우리와 차를 긍휼히 보시고 하룻밤을 쉬고 가라는 섭리인것 같다고 하시는 말씀에 공감하면서 이 정도로 해결된 것이 큰 다행이었다고 생각되어 하나님께 깊은 감사를 드렸다.

영월 문곡리교회 입구까지 도착, 우리가 온 취지를 설명하고 교회청년들에게 구호품을 전달하고 다시 제천에 도착하니 12시가 다 된 시간이다. 임시로 고친 차를 부속품을 갈아 넣고 다시 어렵게 어렵게 고치니 오후 3시, 제천을 출발하여 귀로에 올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장장 2000리의 긴 여행과 사명을 무사히 마치고 되니 하나님께 감사가 넘칠뿐이다.

이처럼 어려움이 몰고 온 좌절과 실의를 딛고 재기의 열기 찬 메아리가 가는 곳마다 넘쳐 흘렸고 군관민(軍官民)이 하나가 되어 복구작업이 전개되는것을 보니 참으로 흐뭇한 감을 금할 수 없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앞장 서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손길을 펴 어려움을 당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아름다운 동포애와 성도간의 교제가 더욱 풍성해야겠다고 절실히 느끼면서 두서없이 지면을 통해 뜻있는 여행의 보고와 소감을 드리는 바이다.



〈왼쪽부터 김종택목사. 김창배장로(필자)
반천교회 한상용전도사〉

* 여름 성경학교에서 쓴 기도문 *

그러나 전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어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몸 건강히 해 주시고 친구들과도 잘 뛰어 놀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여름 방학을 맞아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었읍니다. 저는 여름 성경학교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부장 장로님이 성경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실 적에는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리고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는 열심히 다니려고 하루도 빠짐없이 다녔어요. 저는 요즘 문화방송국에도 다닌답니다.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와 딱 마주쳐서 좀 곤란하게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전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에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반에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 친구들이 많아요.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게 해 주셔요. 부모님들도 천국가게 해 주셔요. 또 우리 반에는 가난한 친구들이 참 많아요. 교회에 와서 아무 말도 안하고 예배만 보고 가요. 오늘도 점심 식사시간에 어떤 친구는 도시락을 못 싸온 친구와 나누어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아는 친구하고만 같이 먹으려고 해요. 그러지 않게 해 주셔요. 선생님께서는 저에게 가난한 친구와도 다정하게 지내라고 부탁하셨어요. 저는 오수미라는 친구와만 놀기 때문이어요. 죄송해요. 그리고 저는 동생과 싸운 것 등 죄가 참 많아요.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이 찾아 오셔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셔요. 부모님 말씀 잘 듣고 동생과도 사이좋게 놀게 해 주셔요.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은혜 많이 받게 해 주셔서 고마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 유 라

〈유년부 3학년〉

사진으로 보는 1979년 여름계절학교







제26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라고 하지만 실은 제1회나 마찬가지인 어린이 새신자부의 여름 성경 학교는 올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다. 지난해 까지는 유치·유년·초등부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에 신입반으로서 편입되었으나 교과 내용 및 관리, 생활등의 비 실제적인 면을 참작, 금년 부터는 어린이 새 신자부 독자적으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열게 되었다.

그 성과는 당장 수적으로 나타나 일평균 어린이 참석이 157명이나 되었다. 또한 교사도 36명이 어린이 새 신자부의 여름 성경학교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이처럼 유·초등부에서 분가하여 큰 일을 치루는데는 어린이 새 신자부의 지도 교역자인 안석렬·김은숙 전도사의 수고가 많았다.



제26회
어린이 새신자부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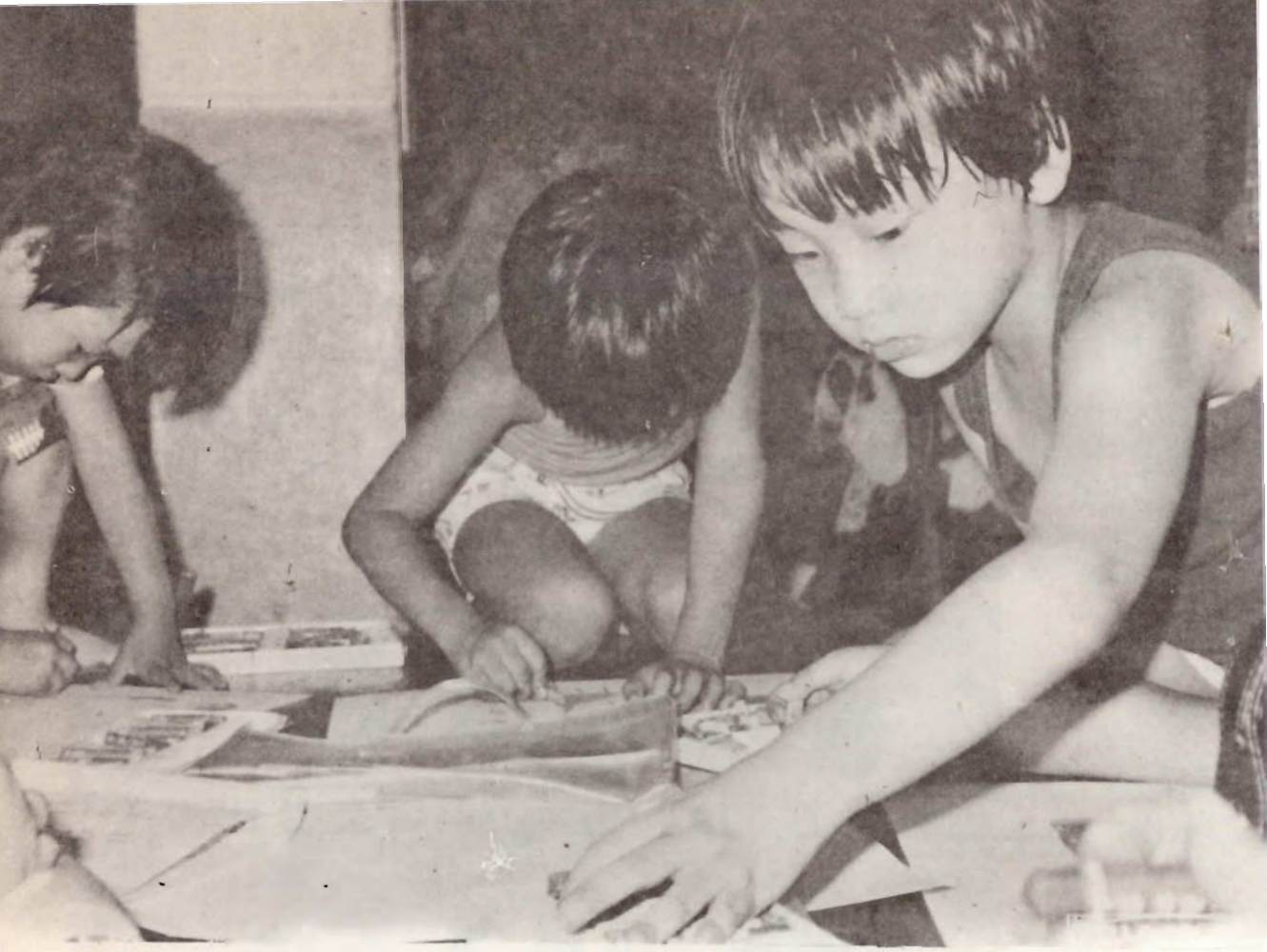
제9회 계절학교 영아부



김재창목사와(부모) 정소영 전도사가(영아) 강사로 수고한 영아부 제9회 계절학교는 8월 14일, 15 양일간 열렸다.

엄마와 함께 만들고, 그리고 노래하고, 말씀을 배우는 영아부의 계절학교는 엄마들이 더욱 즐거운 표정이다.





제26회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유치부,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까지 무더위도 아랑곳 없이 서로 배우고 가르치는데 열중했다.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는 꼬마의 모습이 대견스럽지 않은가! 매일평균 305명의 어린이와 47명의 교사, 62명의 학부모가 모여 성황을 이룬 유치부의 제26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는 7월 23—26일에 모였다.





유년부 제26회 여름어린이 성경학교





유치부와 같은 기간(7월23 26일)에 열린 유년부 제26회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성경과 교회생활이란 주제하에 새벽 아침, 오후로 모았다. 이양우·정소영전도사가 강사로 수고했고 70여명의 교사가 열심으로 봉사했다. 370여명의 어린이가 참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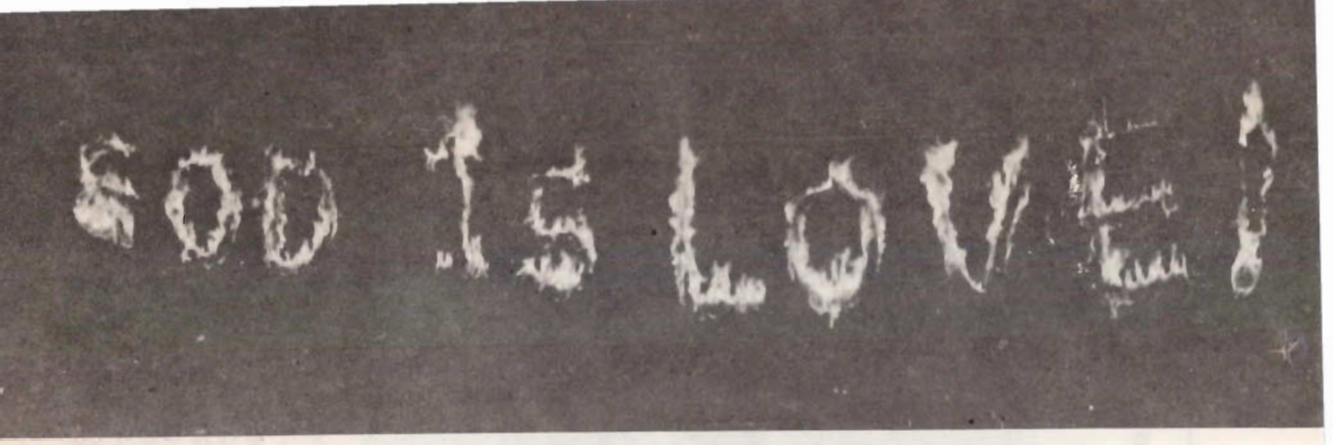
5학년만 하던 5학년 수양회를 전체 초등부 학생에게 확대, 전원이 기도원에 들어가서 성경학교를 했다. 주일 낮 출석 인원과 같은 410명의 학생, 55명의 교사, 넓은 공간, 충분한 예산등으로 많은 것을 배우는 시간들 을가졌다. 3박4일간 부모 형제를 떠났지만 맘껏 즐거운 놀구장이들, 그리고 타오르는 모닥불 앞에서 울줄도 아는 어린이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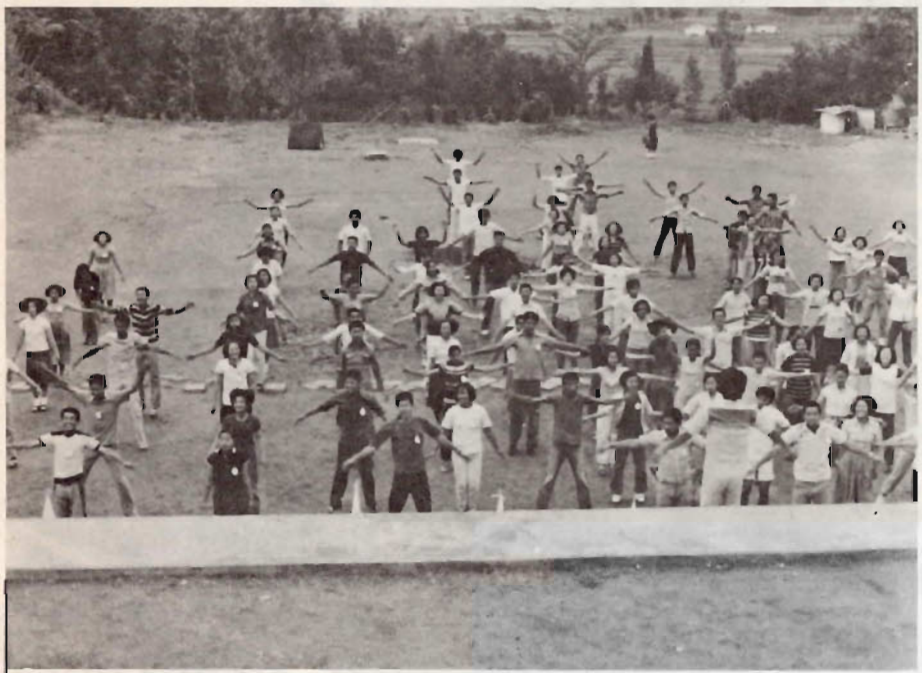
무더위가 맹위를 떨치던 8월초(7—11) 제17회 중등부 하기 수양회가 기도원에서 열렸다. 이성봉 목사를 강사로,「빛의 갑옷을 입자」라는 주제하에 말씀과 단체생활과 개인생활의 4박5일 간 모였다.



제17회 중등부 하기수양회



제17회 고등부 하기수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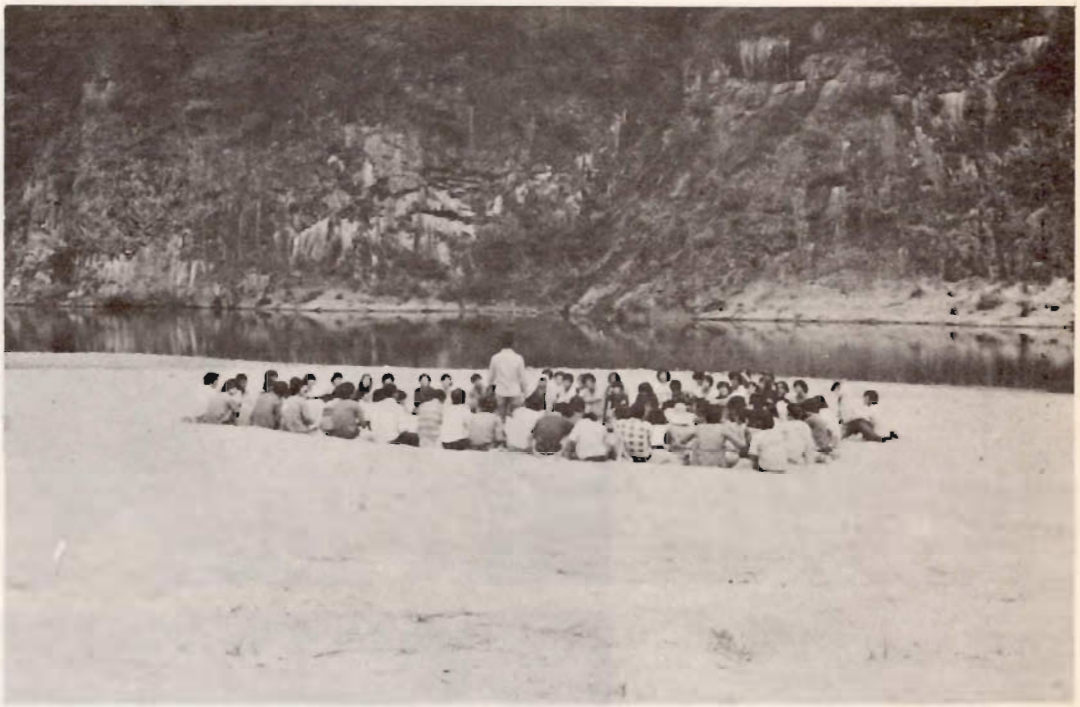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란 주제 아래 박회천 목사를 모시고 7월30일 부터 8월3일까지 모였다.

친구들과, 교사들과의 대화의 폭을 넓히고 아는데 큰 역활을 한 수양회, 신앙을 한단계 올리는 역활의 수양회 등으로 각자의 필요를 채워준 수양회였다. 제복입은 시절에 잊지 못할 귀한 날들로 마음 깊이 간직하며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북한선교회 훈련소를 중심한 그 일대의 부락에서 실시한 대학부 수양회는 이채로운 것이었다. 지금까지 받기만 하던 것에서 주는 것으로 —농촌교회 어린이 성경학교 인도, 의료봉사, 노력봉사, 전도— 바뀐 수양회.
윤형철강도사·김남수전도사가 주로되어 11명의교사와 89명의 학생이 참가.

제10회 대학부 하기수양회





제9회 청년부 하기수양회

언제나 계절학교의 스타트를 끊는 청년부. 주로 직장인들이고 또한 교회 각 부서에서 봉사하는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부는 7월17일을 전후로 시작하던 수양회를 최근에 와서는 3박 4일의 일정으로 시작하고 있다. 김만우목사를 강사로 모신 이번 수양회의 주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장년부

「믿는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 자」라는 주제로 임종만목사를 모시고 성경공부, 강해, 설교 등으로 모인 제 2 회 장년부 하기수양회 모든 일정을 마치고 기도원을 떠나기 전



노년부

제 4 회 노년부 수양회는 8 월 20, 21 일, 기도원에서 열렸다. 노년부 출석 학생 전원이 참석. 학생들보다 나이 어린 선생님의 자상한 돌봄 가운데 무사히 마쳤다.

제1회 선교부 하기수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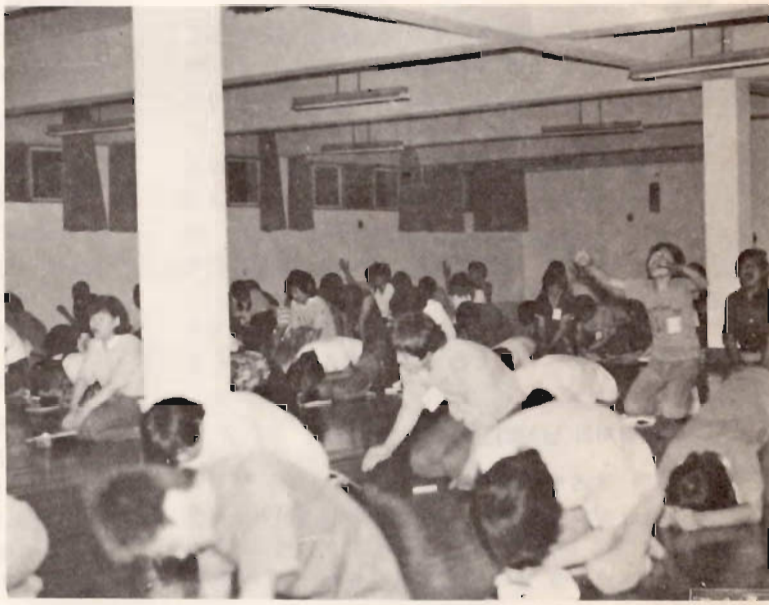


금년에 신설된 선교부는 강원도 북한선교회 훈련원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예기치 않았던 산악 내륙지방 호우로 교통이 두절되므로 큰 차질을 빚게 되었다. 그러나 참석한 모든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기대했던 조별취사, 산악행군, 산기도등을 시행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매우 좋았다고. 김영휘 전도사 인도로 기도원에서 했다.

네 이웃이 누구냐?로 시작해서 네 이웃이 누구인가를 확인하고 네 이웃이 누구냐? 로 끝난 산업전도교육부의 제 1 회 하기 수양회. 많은 곤난한 여건 때문에 불가능하다 시피한 실정이었으나 주님을 사랑하는마음 앞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다.
8 월15일부터 18일까지 기도원에서 강사에 정상우 목사.







제 1 회
산업전도교육부
하기수양회

* 고등부 하기 수양회에서 *

산 위에 올라 와서

이 광 재
〈남 · 고등부 2학년〉

7월이 끝나가는 날이다

큰 기대를 가지고 또 후배들에게 물려 줄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을 점검하기 위한 나의 수양회는 시작되었다.

첫날 저녁 부흥회, 목사님의 간결하고 나의 마음을 푹 찌르는 날선 검과 같은 말씀으로 정말 진실한 깨달음을 얻었다. 〈깨끗한 그릇이 되되 지독하고 철저하게 깨끗해야 된다〉

그리고 조별 기도회 때 서로 말은 못하지만 무엇인가 주님께 간절히 빌기를 원하는 무엇들이 우리 모든 조원들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 우리는 진실한 단 한마디, 두마디의 기도를 했다. 그리고 의미있고 진실한 눈물을 흘렸다.

첫날 밤부터 밖에서 간절히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외면하던 우리의 마음문은 우리도 모르게 슬며시 열리고 만 것이다.

7월 마지막 날이다.

부흥회 때 정말 나의 생애를 두고 지향해야 할 귀한 말씀을 들었고 깨달았다. 〈신앙인격에 있어서는 롯과 같이 7 : 1을, 실력에 있어서는 다니엘과 같이 10 : 1을, 믿음에 있어서는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이 60만 : 2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막혔던 담이 헐린 두명의 진실한 친구를 가지게 됐다. 더욱 진실하게 되기를 서로 노력하기로 약속하면서……

또 이날 오후에는 조원 모두가 냇가로 나가 합성을 지르고 물에 빠져 물장난을 하며 즐겁게 놀았다. 그러는 가운데도 서로의 마음을 조금도 상하게 하지 않으려는 내면의 깊은 곳에서 부터 나오는 마음 씀이 서로를 더욱 신뢰하고 사랑하게 만들었다.

즐겁고 감사한 하루였다.

8월 초하루

드디어 날은 오고야 말았다.

Praise the Lord시간 — 저녁식사 후 스탠드에 앉아 찬양하는 시간— 그저 알기만 하던 한 친구와 중학 동창생이 수양회에 왔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 곁으로 가서 앉았다. 찬양과 기도를 드렸다. 왜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했나? 찬양을 부르면서 한없이 눈물을 흘렸다.

잠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동생들과 불 꺼진 방에 누워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다.

서로를 알았다.

8월 2일

제자훈련 시간이다.

구원의 확신, 죄사함의 문제, 기도하는 법, 승리하는 생활 등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선생님의 말씀, 모두가 한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고쳐 나갔다. 훌륭한 선생님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 감사.

8월 3일—마지막 날이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알았고 우리가 지니고 있는 신앙들을 알았다. 우리의 위치를 알았고 우리가 가야할 방향을 알았다. 나의 생애에 또 하나의 잊혀질 수 없는 귀한 4박5일의 기간이었다.

나도 이해할 수 없는 미소가 떠나지 않는다. 아! 모두에게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다. 하나님께, 목사님께, 강도사님과 전도사님께. 무서운 열심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던 선생님들께, 나의 친구들께, 따뜻하게 우리를 대해 주고 이끌어 준 선배들께, 사랑스런 우리의 후배들께, 기도원에게, 식당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아플 때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 장로님께, 캠프화이어에 「GOD IS LOVE」라는 이쁜 글자를 준비하기 위해 사랑과 정성으로 애써 준 대학부에 올라 간 선배들에게,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여 준 우리의 엄마, 아빠, 형제들에게, 그리고 수양회에 참석 못한 우리 모두의 친구들에게 모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린다.

기쁨이 충만하다. 모두 스마일(Smile) 이제 세상을 향한다. 「가라 가라 세상을 향해」 명령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발걸음이 가볍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한국복음화는 농어촌교회 복음화

김 석 원전도사
〈초등부지도〉

○…… 중현교회가 농어촌 지역사회의 전도를 통하여 민족복음화의 한 몫을 담……○
○……당키 위해 전도대를 조직하고 이를 훈련시켜 농어촌에 전도대를 파송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 농어촌 하기봉사대로 시작하여 발전되어 오면서 ……○
○……1972년부터 제1대 농어촌 전도대를 파송하므로써 본격적인 그 모습을……○
○……드러 내었다. ……○
○…… 금년에도 지난 여러 해와 같이 총 54명의 대원이 9대로 편성되어 지교회……○
○……를 중점적으로 전도하도록 방침을 세우고 9개 지역에 전도대가 파송되었……○
○……다. ……○
○…… 8월13일부터 5박6일동안 실시되어 방문 전도된 가정은 1285세대, 결……○
○……신자 총수는 509명의 활동결과를 낳게 했다. ……○
○…… 여기 본란에서 소개 하고자 하는 것은, 8월20일 저녁 유년부실에서 실……○
○……시되었던 보고 내용을 중심으로, 금번 전도대의 활동 결과를 요약한 것이……○
○……다. 아울러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농어촌전도에 대한 문제들……○
○……과 그 해결 방안을 생각해 보는 즉, 다시 말하자면 함께 관심을 가져 보자……○
○……는데 본란을 마련한 뜻이 있겠다. ……○

1. 전도대 파송 대상

금번 전도대 파송의 특이한 점은 전도대 파송 대상을 지교회를 중점으로 했다는 점이다. 지난해 까지만 해도 농어촌교역자 초청훈련시, 훈련청원서와 전도대 파송 청원서를 받아, 훈련받은 교역자가 시무하는 교회중에서 선정, 그 지역을 정하는 방법을 채택했었지만 이번에는 중현교회 지교회 자립에 역점을 두어 촛점을 맞추고 전도대를 파송한 것이 특색이었다.



〈농어촌에 파송된 전도대의 전도하는 모습이다〉

2. 전도대에 대한 반응

가. 현지교회

금번 전도대 파송은 지교회를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 선행 되었기 때문에, 해당 지교회가 긍정적으로 받아 드리던, 부정적으로 대하던 관계없이 파송했었다. 여기에 일부 지교회는 파송에 거부반응까지 보였었고 현지에 대원이 파송되었어도 "누가 보냈느냐"라고 반문하는 냉대까지 받은 사례도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수해로 인해 한 부락의 논 대부분이 수몰되어 온 마을이 시름과 탄식과 굶주리는 사람들까지 생긴 마을도 있었다.

그러한 중에 어느 마을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산사태까지 일어나 인명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산사태가 교회 옆에서 멈추게 되자 그 마을에서는 하나님은 교회를 도우신다는 인식이 되어 무언의 전도가 되었다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교회의 현지 사정은 복음을 수용하기에는 마을사람들의 대부분이 마음의 문이 굳게 닫혀 있을 수 밖에 없었던 것 같다. 때문에 현지교회 파송된 전도대와 강력한 연합전선을 펼 수 없었던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대체적으로 전도를 생활화 하는데 무관한 현지 교인들의 평소 신앙 태도는 고질적으로 습성화 되었고 파송된 전도대원들도 조직적인 훈련이 미급해서 전도하면서 현지교인들의 전도훈련을 시키는데 미급한 점이 보였다. 대부분 현지 교회 교역자들은 심방위주의 목회를 힘쓰는 실정인 것으로 보이며 농어촌 교회에 대한 목회신학의 정립이나 이론이 없어 현 사정에 맞는 농촌교회의 운영을 다하지 못한 점이 보였다.

한편 현지 교회 교인들의 상태는 지교회라는 인식이 고정화되어 있어 받는다는 수동적인 자세가 오히려 지교회 발전의 저해 요소이기도 한 느낌이 있었다.

나. 현지 주민들

한마디로 말하자면 대부분의 현지 주민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는 정면반대도 없지만 적극 참여도 없었다. 그들은 진정한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는 긍정적인 대답 한마디로 전도대와 자신들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들지 않고 교묘히 빠져나가는 것이었다.

표면적으로 볼 때는 문제성이나 거부 반응없이 순수한 시골풍으로 복음을 받아 들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전도대가 파송되면 온 주민이 모두 믿을 것처럼 느껴지나 다음해에 가보면 전년과 별차이 없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문제성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근본적으로 농어촌 사회의 생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수박 겉 핥기 식의 이같은 전도 활동이 계속된다면, 현지 주민들 보다도 도리어 전도대만 은혜를 받고 만족하여 돌아서는 기현상이 계속될 수도 있을 것이다.

3. 현지교회의 결신자 육성 전망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신된 교인을 육성하는 것 즉 열매를 맺게 하는 데까지 이른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파송된 전도대는 땀과 눈물로 한 영혼을 결신시켰다고 하더라도 장성한 신앙인으로 키우기에는 한 영혼을 해산하는 고통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다.

안정된 상태에 있는 도시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를 안고 있지만 겨우 개척교회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농어촌 교회 자체가 감당하기란 대단히 힘겨운 일일 것이다.

그 원인으로는 교역자의 사명감 결여와 장차 육성할만한 젊은층들이 희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겹쳐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형편에 처한 현지 교회에 대하여 사후 결신자 육성에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힘을 기울여 도와 주어야만 확실한 결실을 보게 될 것이다.



특히 기대해 보는 것은, 어린이와 중고등학생들의 교육과 육성에 역점을 기울인다면, 성장해서 도시교회 못자리판이 된다고 할지라도, 올바른 교회 교육을 지도자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켜야 할 것이다.

4. 이번 전도활동에 지적된 문제점들

가. 현지교회 자체의 문제점

① 교회건물이 없는 곳이 있었다. (천막)
② 교역자들의 목회관 결핍
③ 제직과 일반 교인들의 교회활동에 대한 무관심
③ 교인들의 전반적인 신앙생활 훈련 결핍
④ 젊은층, 일꾼 결핍
⑤ 과거 일부 교역자들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감
⑥ 주일학교 교사들의 부족

나. 현지 지역사회의 문제점

① 부락이 이산된 지역이 많아 축로전도에 어려움이 있음
② 교육수준이 낮아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딤
③ 경제적인 빈곤으로 받으려고만 하는 수동적 태도 강함
④ 수몰지구, 수해 등으로 마음의 문이 대부분 닫혀 있었음
⑤ 계절적으로 농번기라서 일손들이 바쁨
⑥ 특수 지역의 타락성, 생활양식 복잡
⑦ 농어촌 사회의 소극적인 생활태도
⑧ 기독교와 타 종교(유,불교) 에 대한 주민들의 그릇된 인식

다. 대원 자체의 문제점

① 현지의 지역사회 특수성과 사전 충분한 자료 확보와 전도 전략에 대한 교육 결핍
② 남자대원과 여자대원의 숫자가 병행 되도록 (남자대원의 부족)
③ 무리한 계획운영으로 대원들이 대부분 피곤해 함

5. 전도 실시 결과 (평가회 발췌)

가. 훈련

① 유,불교, 조상제사에 관한 전도및 교육 필요

② 해당 지교회 교역자와 파송 전도대와 함께 교육을 받도록

나. 전도 기구

① 스티카 사용은 색갈 및 도안에 있어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에 호응이 가도록

② 전도용 부채를 만들어 전도 받는 가정에 주는 것이 바람직함

다. 전도대 파송시기

하기 때만 보내는 것을 연차적으로 동기에도 실시하여 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것

라. 지교회 지도교역자에 대하여

질적 양적 향상을 위해 노회, 총회에서 개최하는 각종 수련회에 초청하여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본다.

마. 지교회 예배당 건축

건축을 위한 표준 설계도를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 하겠다.



〈그곳에서 여름어린이 성경학교도 했다〉

6. 80년대를 위한 제언

① 현지 교회 교역자들의 농어촌 목회. 신학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정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생각된다.

② 농어촌 전도를 위한 교회 자체내에 농어촌부나 농어촌 전도문제 상설기구를 설치 하여 전문적으로 연구토록 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겠다.

③ 전도장비의 개선, 합리적 분배, 사용법의 사전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④ 타 종교(유,불교) 사이비종교, 제사 등에 대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⑤ 대원의 철저한 노방전도 훈련과, 현지교회 교인들의 전도 생활화 훈련이 필요하다.

⑥ 농어촌 교회 지도자 초청훈련과 농어촌전도가 보다 더 긴밀한 유기적 관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⑦ 전도대원 뿐 만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성도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도록 한다.

7. 맺 음 말

이제까지의 농어촌전도대 파송에 있어 대원의 훈련, 현지활동계획, 사후 처리등이 만족할 정도로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다. 그 결과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다할 성과를 열거할 수는 없다 해도 그러나 성과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간 9회에 걸쳐 개 교회에 399 명의 전도대원이 파송되어 7,227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파송전도현황

연도	회수	기 간	지역수	대원수	결신자수	결신자율	소요경비
72	1	6일간	5	34명	725명	21명	263,000원
73	2	6일간	6	36명	818명	23명	344,000원
74	3	6일간	9	51명	1494 명	30명	424,000 원
75	4	6일간	9	62명	1457명	24명	616,000 원
76	5	6일간	9	54명	693 명	13명	
77	6	6일간	8	54명	757명	14명	
78	7	6일간	9	54명	774명	14명	
79	8	6일간	9	54명	509명	9 명	
총	계	48일간	64	399명	7227명	18명	

앞으로 전도활동에서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① 충현교회는 10년째 접어들기 전 전도대 파송 방법을 전반적으로 수정 또는 검토할 시기를 가져야하며 ② 따라서 도시와 농어촌의 현대화에 생활수준의 격차가 별로 없는 지역의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전도 전략을 다방면에서 과학화 하며 ③ 80년대의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교회내에 "농어촌부"와 상설 농어촌 전도 연구회"를 두어 연구 개발시켜 준비에서 아침 때까지 확실한 성과 측정기준을 마련하고 ④ 현지교회 교역자의 질적,영적 자질 향상을위해 장학제도 등을 마련해서 교역자들의 농어촌 목회 신학을 점차적으로 정립시켜 나아가도록 도와주고, ⑤ 자녀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도시교회는 장학제도 등을 마련하여 현지교회 교역자의 생활안정의 구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농어촌의 교역자는 외롭지 않고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책임성 있는 농어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무쪼록 오늘의 도시교회는 강건너 불구경 하는 식으로 "내교회" 중심에서 차원을 높여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 하는 마음으로 농어촌 복음화에 힘을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어촌 복음화가 민족복음화의 한 몫을 담당한다고 할 때 필자의 마음은 한결 더 무겁기만 하다. 끝으로 "한국의 복음화는 농어촌교회 복음화"라는 외침을 해 본다.

농어촌파송전도를 다녀와서

성실히 전하는 일에만 전념



한 정 배
〈제 7 대대장 · 청년회원〉

우리가 파송된 곳은 충남 서산군 소원면 의항리 의항교회였다. 그 곳은 130가구수에 3면이 바다로 된 농어촌이었다. 밭에는 주로 땅콩이 심겨져 있었고 바다에서는 바다 물이 나갈 때 굴따는 풍경과 2주일만에 소금이 되는 염전이 있고 또한 물이 많이 있는데도 물이 적은 곳이었다. 앞 개울가에 많은 물이 넘쳐 흐르지만 바닷물이기 때문에 세면을 하기 위해서는 우물을 찾아 다녀야 하는 고충이 있는 마을에 우리는 안석렬전도사(어린이 새신자부 지도)를 지도교역자로 모시고 정정식, 한용관 · 김순옥 · 정숙자 · 김정애와 필자가 대원이 되어 지난8월13~18일까지 아주 뜻깊고 보람있는 전도를 하고 왔다.

우리 대원이 그 교회에 도착하니 전도사님으로 부터 모든 교인이 지쳐 있었다. 왜냐하면 2주전에는 인천 송월교회에서 6명이 파송되어 와서 어린이 성경학교를 했고 지난주에는 충남노회 학생 수양회가 그곳에서 있었는데 그○○명의 모든 식사를 담당했기 때문에 지쳐 있는 것도 당연한 일이었다. 게다가 우리 전도대원이 도착 했으니 어느 정도 짐작은 가고 남을 것이다. 우리 대원들은 파송 전 교육 받은 것을 생각 하면서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전도에만 열중하자고 이심전심으로 서로 굳게 다짐을 했었다.

우리는 전도하러 왔어

먼저 실적 위주의 전도보다 실질적인 결신자 획득, 그리고 부흥회 전에는 반드시 모시러 가기, 또한 130가구를 반복 축호전도 등 이런 계획을 짜고 이튿날부터 조를 4개조로 편성하고 구역도 4개로 편성했다. 1구역은 약1시간 이상 걸어야 하는 곳이었고 2구역은 국민학교를 포함한 버스 정류장이 있는 곳이요 3구역은 그 곳에서 큰 마을이라 불리우는 가장 가구수가 많은 곳이요 4구역은 재너머라 불리우는 지역이였다. 첫날은 인사말씀 및 전도지를 가지고 전지역을 순회하면서 전도대가 도착했다는 것을 알리고 부흥회에 참석할 것을 강조 했었다. 대체적으로 주민들은 신의 존재를 인정 했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아닌 세칭 하눌님을 알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 주셨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에 승천하셨고 다시 재림하실날 세상은 멸망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것을 전했다.

바닷물이 나가면 굴 양식장에 나가서 굴을 따는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했었다. 바위 위에 하얗게 눈이 내린 것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굴은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이 그대로 주신 선물이었다. 또한 새파란 바닷물이 밀려 왔다가 밀려 나가는 광경, 넓다랗게 펼쳐진 수평선 너머의 바다의 경치, 마치 웅장한 교향곡을 듣는 것 처럼 느껴 지면서 다시 한번 광대하옵신 주님을 생각케 했다. 내 맘속에 생각 하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측량할 수 없는 분이요 내 손바닥으로 잴 수 없는 거룩하신 분임에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며 나는 연약한 하나의 피조물이 틀림없다고 생각하면서 로마서 11장 33-36절을 암송해 보았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저녁 부흥회 시간이 되었다. 주일 낮 예배 출석 인원이 30여명인데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더니 어린이와 포함해서 160명이 교회를 꽉 메우는 것이었다. 확실히 사람의 생각은 하나님과 다르다. 우리 대원들은 어떻게 주민들이 모여 올까 생각 했지만 생각 외로 말씀을 들으러 많이 모였다. 예배를 마친 후 새로 나온 분은 남아 주십시요 라는 광고와 함께 새신자 안내를 한 다음 결신자 카드를 그들이 친히 작성하도록 했었다.

다음날은 가장 거리가 먼 1구역을 집중 전도하기로 하고 그곳으로 전도를 갔었다. 교인 가정 중에 나면서 부터 벙어리이며 옷을 입혀 주어도 입지 않고 맨발과 발가벗은 채로 다니는 12살 되는 소년이 있었는데 추운 겨울에도 아주 추울 때를 제외하고 옷을 입지 않고 맨몸으로 다니는 현대판 타잔 같은 소년이였다. 우리가 그 가정에 도착하니 입속에 자갈을 듬뿍 머금고 있었다. 내 뱉으라고 억지로 강요하니 하나 둘씩 입속에서 내 놓았다. 가끔 손을 물어 뜯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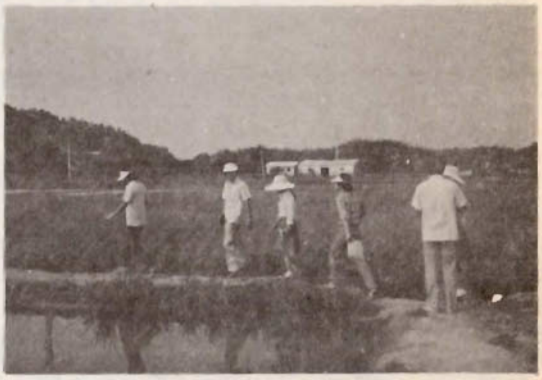
해서 손위가 부풀어 올라 있었고 방안에 있는 선반 위에 걸터 올라앉는 일 등 불안을 안겨주는 행동과 식사도 먹여 주어야 하고 밖에 나가면 항상 사고 예방을 위해 따라 다녀야 하는 그의 식구들의 걱정 거리였다. 우리는 그를 붙들고 통성으로 간구 했었다. 초대 교회적인 역사로 나음을 입기를 바랬지만 주님의 뜻이 아니였던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부족해서 그러했는지 알 수 없으나 마음은 안타까워 했지만 소년에게는 그때까지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지금도 그 소년이 나음을 입어 그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드린다. 한번도 병원에 데려가 보지도 못하고 그 소년으로 말미암아 고생하시면서 얼굴이 새까맣게 되면서까지 소작 농사일에 착념하는 그의 가정을 보면서 반대로 도시에서 하루 저녁 몇십만원씩 쓰며 방탕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여러가지 착잡한 생각이 내 머리 속에 감돌기만 했다.

3년간 작정 – 선장부부결신

다음날은 그물을 짜는 어부들이 있는 선장집 가정에서 전도 예배를 드렸다. 고기를 잡는 분들이라서 새까만 피부의 건강한 모습들이였다. 예수님의 제자들 생각이 문득 났다. 그러나 예배 드리는 시간만은 모든 사람들이 어린양 처럼 순진하게 보이기만 했다. 그 예배를 통해서 그 선장 부부가 그날밤에 부흥회에 참석했고 결신자 카드를 친히 기록했다. 선장이 하는 말이 인상적이였다. 배가 출항 하기 전에는 고기도 많이 잡히고 무사고를 비는 의미에서 뱃속에 잡신상을 두는 곳이 있는데 그의 앞에서 떡도 놓고 돼지머리도 놓고 해서 크게 제사를 지낸다고 한다. 그리해서 고기잡이를 나가는데 고기를 잡는 동안에 풍랑이 일고 생명에 위험이 느끼면 잡신상에게 나가서 비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기에 "바치는 것은 잡신상에게 주고 아쉬울 때는 하나님을 찾는 군요" 해서 한바탕 같이 웃은 적이 있다. 그 선장부부가 앞으로 3년간만 믿어본 후 그후 결과를 봐서 더 다니던지 하겠다는 비장한 결심을 듣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 결심이 영원히 변치 않도록 기도 드렸다

비를 맞으며 축화전도

마지막 날은 어빙호 태풍으로 비가 많이 오는 날이였다. 비가 오니 들에도 바다에도 가지 못하니 가는 집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한집도 빠질세라 복음을 전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저 세상이 있읍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전했다. 이 외딴 곳에 다시는 복음을 듣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니 비가 내옷을 젖시는 것도 아랑곳 없이 피곤함도 개의치 않고 한집 한집 문을 두드리곤 했다. 그 가운데 특히 듣지 못하고 반신불수가 되어서 앉아 있는,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을 볼때에 더욱 안타까왔다. 큰소리로 이야기 해보았자 이해도 못하고 당장 믿지 않을거고 안타까운 마음이며 허탈한 마음 뿐이였다. 문득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성을 향하여 눈물 지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각 났다. "너는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았을 뻔 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기웠도다."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 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뿌린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하며 기도드렸다.



자신이 적은 결신카드 – 70명

이렇게 해서 우리 전도 대원들은 70명의 결신자를 얻었다. 이 결신카드는 우리 대원이 기록한 것은 하나도 없고 부흥회 후에 새신자는 남아 달라고 해서 그들이 친히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한가 정도 복음을 듣지 않은 집이 없도록 반복해서 복음을 전했다. 심지어 어떤 가정은 3번 들어간 적도 있는 것 같다. 짧은 며칠 간의 전도였지만 전도 대원 모두가 보람을 느꼈던 전도였다고 말하고 싶다. 함께 일한 후에 차지한 결과는 흐뭇한 것이다. 한낮에 전도했던 주민이 어두운 밤길을 제치고 하나 둘씩 교회에 들어올 때의 기쁨은 아마 체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느끼지 못 할 것이다. 와락 손 붙잡고 벌렉벌렉 뛰고 싶은 심정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 날 밤, 그 교회 전도사님과 교사님들과 더불어 좌담회를 가지면서 인계 인수를 한 뒤 철저히 심방을 해서 최대한 결신자를 잃지 않겠노라는 말씀과 더불어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주민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었다고 하시며 기적이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이 된다.

다음날 이른 아침 그곳에 특산물인 골뚜기와 멸치를 선물로 받으며 서운한 작별의 손을 흔들면서 돌아왔다. 몸은 비록 멀어져 있지만 그곳 주민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잊지 않으리라. 한가지 빠뜨릴 수 없는 사실은 어빙호 태풍이 북상해 오다가 우리가 있는 앞바다가 태안 앞바다 이였는데 태안 앞바다에서 약화되었다는 뉴우스에 얼마나 감사하고 기뻐했는지 모른다. (*)



절실한 양적증가에 따른 질적향상

—각부의 시간관리와 재정관리를 중심한 분석과 제언



정 은 표 집사
〈교육위원회 위원〉

7월 16일 청년부 하기수양회로 시작된 올 여름 계절학교는 8월 21일 노년부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언제까지 시들줄 모르고 계속될 듯이 뜨겁게 내려 쪼이던 한 여름의 뙤약볕 아래서 가르치며 배우는. 일에 땀내를 풍기며 온 정성을 기우리던 일이 이제는 귀뚜라미의 울음소리와 함께 우리의 기억에서 자꾸만 멀어지려 하고 있다.

그러나 내일을 위해 다시 한번 올 여름에 실시되었던 주일학교 각부의 계절학교의 실시결과에 대해 되새김질 해 보려고 한다.

이런건 좀 고쳐야 되겠다고 우리가 늘상 입버릇처럼 말하던 일이 올해도 그대로 또다시 문제로 지적된 것도 많지만 그래도 올해만 얻을 수 있었던 수확도 많았다.

이제 예년과 달리 올해는 이 모든 결과들 가운데 주로 「시간관리」와 「재정관리」에 촛점을 맞추어 자세히 살펴보려고 한다. 계절학교를 종합평가함에 있어서 물론 「시간관리」나 「재정관리」라는 문제가 핵심이 되지 못함은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정작 계절학교의 핵심적인 문제들을 다루기에는 아직도 우리의 생각과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하고 아쉽지만 다음기회로 미루기로 하였다.

回 개 요

올 계절학교를 모두 마치고 느껴지는 것은 아직도 우리의 계절학교가 완전히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엉거추춤하여 불편한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즉 한해 한해를 넘겨 나가는데는 놀라울 정도로 익숙해 있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계절학교 전체를 꿰뚫는 굵직한 흐름을 찾기가 어려웠다. 여름이 오니 계절학교를 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계절학교를 열기 위해 여름을 기다리게 된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간절하였다.

올해도 또한 이같은 계절학교였지만 그 어느해 보다도 실시한 부(部)가 많아 주일학교 15개부가운데 장년새신자부와 새가정부를 제외한 13개 부가 실시하였다. 이 가운데 초등부는 올해 처음으로 4·5·6학년 전원이 교회에서 실시하지 않고 기도원에서 실시하였고 산업전도교육부와 선교부는 올해 처음으로 수양회를 열기도 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실시기간도 그 어느해 보다도 가장 길어 연 55일이나 되었고 모두 3497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 1,480여만원이 지출되어 소요경비면에서도 계절학교가 실시된 이래 그 어느때 보다도 가장 많은

回 1979년 여름 계절학교의 특징

1. 크게 늘어난 시간수에 비해 내용의 변화는 없었다

계절학교를 실시한 13개 부(部) 가운데 초등부·중등부·고등부·대학부·청년부·장년부 등 6개부는 예년보다 실시기간을 1일씩 더 연장하여 잡았다.

이같을 각 부의 시간계획표에 의하여 조사해 본 결과 13개 부(部) 전체의 총시간은 590시간이었고 1개 부의 평균 시간은 45.38시간이 되는 셈이었다.

이를 우리교회 주일학교 교칙에 규정하고 있는 수업일수에 비추어 보면 1년의 「주일낮 예배 및 공부시간」과 맞먹는 시간이었다. 교칙에는 연 52주라는 말로 표현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주일낮 예배 및 공부시간이 1시간 내외이므로 이렇게 비교한 것이다.

또다시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비교하면 교칙에는 겨울·여름 연2회에 걸친 계절학교와 기타시간수를 영아부 연 10시간 이상(올 여름 6시간), 유치부 연 20시간 이상(올 여름 24시간), 유·초등부 연10시간 이상(올 여름 유년부 26.2시간 초등부 55.6시간), 중·고등부 연 40시간 이상(올 여름 중등부 70시간

〈표 1〉 **1979년 계절학교(여름) 실시결과 개요보고서**

구분 / 부별	행사명	주제	주제성구	주제찬송	기간	장소	강사 대외	강사 대내	참가인원(명) 학생	교사	기타	계	참가율 (%)	지출 예산	지출 결산
1 어세부	제25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즐거운 교회생활	엡 1:23	560	7.21~26	용 교 회		안석웅 김은숙	157	26		183	158	271,500	△ 203,120
2 영아부	제9회 계 절 학 교	승성탈레요	고전 4:2	충 성	8.14~15	용 교 회		김재창 정소영	252	41	190	483	94	243,900	▲ 289,870
3 유치부	제25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성경과 가정생활	엡 6:1	우리가정	7.23~26	용 교 회	이종숙	이승근 정연희	398	47	62	414	87	564,600	△ 647,170
4 유년부	제25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성경과 교회생활	시119:105	222	7.23~26	용 교 회		이양우 정소영	370	70		389	92	564,600	▲ 3,589,230
5 초등부	제25회 여름어린이성경학교	성경과 교회생활	딤전 3:15	532	7.23~26	충현기도원		김장인 김석원	410	55		465	98	2,160,600	▲ 3,187,790
6 중등부	제17회 하 기 수 양 회	일의 감옷을 입자	롬 13:12	621	8.7~11	충현기도원		이성광	198	40		238	84	1,595,000	▲ 1,665,745
7 고등부	제17회 하 기 수 양 회	여호와께로돌아가자	욜 2:13	268	7.30~8.3	충현기도원	박희천		197	29		226	90	1,482,450	▲ 1,957,890
8 대학부	제10회 하 기 수 양 회	예수님의 좋은 군사	딤후2:3-4	395	7.23-7.28	북한선교회 문 현 림		윤형철 김남수	89	11		100	83	1,206,100	△ 1,130,205
9 청년부	제9회 하 기 수 양 회	성령충만함을받으라	엡 5:18	201	7.16~19	충현기도원	김만우		196	6		202		8,3,000	▲ 868,600
10장년부	제2회 하 기 수 양 회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자	엡 4:13	440	8.13~15	충현기도원	임종만	김장인	387	31		418	96	1,607,850	▲ 2,314,910
11노년부	제4회 하 기 수 양 회	주는항상소망을 품고 주를더욱찬송하리이	시 71:14	517	8.20~21	충현기도원		김재창	168	21	11	189	109	637,150	▲ 795,140
12산교부	제1기 하 기 수 양 회	내 이웃이 누구냐?	눅 10:29~37	422	8.15~18	충현기도원		정상우	96	15		111	134	436,800	▲ 665,075
13선교부	제1회 하 기 수 양 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자	엡 6:11	390	8.6~11	충현기도원		김영희 이 춘	45	4		49	82	833,800	▲ 581,660
계					연 55일		3명	19명	2,828	400	263	3,497	96	12,568,200	▲ 14,896,405

▲ 예산초과 △ 예산미달

1) 예배 : 기도회부흥회 2) 교수 : 공과공부, 특강, 성경공부, 찬송공부3) 생활훈련 : 특활, 상담
4) 친교 : 식사, 간식, 소창

고등부 74.5시간), 대학부 연 30시간 이상(올 여름 74시간) 등으로 되어있다.

교칙의 계절학교 시간수의 제한이 몇시간 이상이라는 말을 써서 최저 시간임을 말해주고 있지만 올 여름에 실시된 각부의 계절학교 시간에 겨울 계절학교 시간을 더할 것을 감안한다면 모두가 교칙의 규정보다 2배 이상이 되게 올 계절학교의 시간계획을 세운셈이다. 「표 2 참조」

이같은 시간수의 대폭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의 내용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에 예외적인 부가있었다면 학생 생활훈련을 중심으로 시간표를 작성하였던 대학부일 것이다.

2. 소요경비는 전년에 비해 2.4배, 5년전에 비해 무려 6배가 증액된 것이었다

다음 〈표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해마다 참가자수에 비하여 소요경비가 상당한 폭으로 급증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올해만큼 소요경비가 급증한 해는 없었다. 1978년의 632만여원에 비해 1979년은 무려 857 만여원이 증가된 1,490여만원인데 이는 전년에 비해 2.4배가 증액된 것이며 5년전인 1975년에 비하여는 6배가 증액된 것이었다.

이렇게 예산면에서 대폭으로 증가되게 된 이유는 교육위원회가 올해 설정한 19개 세출항목 가운데 식

교과 내용별 시간, 예산 배정비율

〈표 2〉

부 별	총시간수(시간) 총 금 액(원)	예 배	(%)	교 수	(%)	생활훈련	(%)	친 교	(%)	기 타	(%)
어새부	19	4.0	21.3	5.7	30.3	4.6	24.2	1.3	6.8	3.3	17.4
	203,120	40,000	19.7	10,600	5.2	29,970	14.8	97,300	47.9	25,250	17.4
영아부	6	1	17	1.6	27	0.8	12	1.6	27	1	17
	289,870	20,000	6.7	13,100	4.5	63,000	21.8	174,000	60.0	19,770	6.8
유치부	24	3	12.5	8.3	34.5	2.7	11.3	7.3	30.4	2.7	11.3
	647,170	40,000	6.2	128,570	19.9	90,600	14.0	329,950	50.9	50,050	90
유년부	26.2	7	26.8	9.5	36.3	3	11.5	2	7.6	4.7	17.8
	589,230	84,000	14.3	41,120	7.0	68,710	11.7	368,900	62.5	26,500	4.5
초등부	55.6	7.5	13.5	8.6	15.5	9.3	16.7	13.8	24.8	16.4	29.5
	3,137,790	100,000	3.1	166,600	5.2	91,390	2.9	1,865,200	58.5	964,600	30.3
중등부	70	12.3	17.6	16.9	24.1	9.0	12.9	16.3	23.3	15.5	22.1
	1,665,745	80,000	4.8	41,870	2.5	123,350	7.4	909,490	54.6	511,035	30.7
고등부	74.5	9.9	13.3	24.5	32.9	8.5	11.4	15.8	21.2	15.8	21.2
	1,957,890	120,000	6.1	85,690	4.4	25,540	1.3	1,165,120	59.5	561,540	28.7
대학부	74	3	108	2	2.7	26	35.1	14	19.0	24	32.4
	1,130,209	80,000	7.1	132,330	11.7			411,175	36.4	506,700	44.8
청년부	42	6	14.3	14.5	34.5	5.5	13.1	10	23.8	6	14.3
	868,600	150,000	17.3	6,480	0.7	27,270	3.1	467,265	53.8	217,585	25.1
장년부	40.3	4.8	12.0	16.9	41.8			7.0	17.4	11.6	28.8
	2,314,910	200,000	8.6	44,000	1.9			1,177,160	50.9	893,750	38.6
노년부	17.8	4	22.5	3.3	18.5	1	5.6	4	22.5	5.5	30.9
	795,140	50,000	6.3	4,400	0.6	21,000	2.6	278,900	35.1	440,840	55.4
산교부	48.3	10.5	21.7	10.2	21.1	5.5	11.4	10.8	22.4	11.3	23.4
	665,075	80,000	12.0	52,020	7.8	32,380	4.9	309,300	46.5	191,375	28.8
선교부	92.3	11.8	12.8	15.8	17.1	1.2	1.3	15.5	16.6	48.2	52.2
	581,660	70,000	12.0	5,260	0.9	48,400	8.3	323,830	55.7	134,170	23.1
계	590.0(평균 45.38)	89.8	15.2	137.8	23.4	77.1	13.1	119.2	20.2	166	28.1
	14,896,405	1,11400	7.5	732,040	4.9	621,610	4.2	7,877,590	52.9	4,551,165	30.5

비를 제외한 대부분의 예산을 현실화 하였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① 13개 부(部) 가운데 6개 부가 실시기간을 1일씩 더 연장하였고 ② 교회에서 실시하던 초등부의 400여명 학생이 기도원에서 실시하였고 ③ 산업전도교육부와 선교부가 올해부터 수양회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실시 부가 전년에 비해 2개부가 늘었기 때문이다 (1978년 12개 부 중 초등부는 5학년 수련회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11개 부라고 볼 수 있다.)

〈표 3 〉 연도별 참가자수 및 소요경비증가추세

연도별	실시부	교사		학생		소요경비	
		참가수	증감율	참가수	증감율	금액	증감율
1975	10개부	238	-	1801	-	2,517,055	-
1976	10개부	331	+39%	1956	+9%	4,279.240	+70%
1977	11개부	346	+5%	1812	-7%	5,102,525	+19%
1978	12개부	363	+5%	2384	32%	6,321,517	+24%
1979	13개부	428	+18%	2828	+19%	14,896,405	+136%

* 증감율은 전년대비 증감% 임

그러나 〈표 3〉의 교사와 학생의 참가자 수가 전년에 비해 평균 16%증가로 소요경비의 증가율에 비하면 극히 미미하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외에도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으로 인해 소요경비가 증가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주식비·간식비·교통비가 전체의 70%가 되는 1,047만여원(10,466,290)이나 되었다.

이를 1978년과 비교해 보면 1978년의 주식비와 간식비가 3,955,627원이었던 것에 비해 1979년은 그 2배가 되는 7,877,590원이나 되었다.

그러므로 앞으로 예산절감을 하기 위하여 첫째로 고려하여야 할 대상항목이 바로 이 주식비·간식비·교통비가 되어야 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3. 초등부와 대학부의 새로운 시도

올 여름 계절학교의 특징 가운데 또 하나는 초등부와 대학부의 계절학교에 대한 새로운 시도를 꼽을 수 있다.

먼저 초등부의 경우 지난 1972년부터 전학년이 교회에서 실시하는 여름 어린이성경학교와는 달리 별도로 5학년들만 교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합숙하며 어린이 수양회를 실시하여 왔는데 올해는 처음으로 전학년이 충현기도원으로 나아가 3박 4일을 인정으로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를 실시한 사실이다.

해당부의 자체 평가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먼저 5학년만 실시할 때는 150명 내외 였던 인원이 450여명으로 크게 늘어나고 됨에 따라 수송·지휘·숙식·행사진행 등 모든면에서 수많은 문제가 파생되었고 4학년과 6학년은 연령적으로 불과 2살 차이밖에 안되기만 실제적인 이들의 차이는 지적인면·감정적인 면·육체적인면등 여러가지 면에서 너무도 차이가 크기 때문에 단일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학년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초등부의 새로운 경험은 올해와 꼭 같이 내년에도 실시하기에는 문제가 많아 충분히 연구 검토하지 않으면 안되리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다.

두번째 대학부의 경우는 이와는 좀 다르다.

교과내용별 시간분석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생활훈련 시간이 대학부 전체시간인 74시간중 26시간으로 35%나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는해당부에서 뿐만이 아니라 13개 부(部) 전체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비율이었다.

즉 한마디로 훈련과 생활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가르치도록 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생활훈련에 역점을 두었다고 볼 수 있는데 대학부가 세운 행사목표에 이러한 뜻이 잘 표현되어 있다.

그 목표는 ①「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자」라는 대학부의 교육목표를 실현 하기 위한 한과정으로 우리가 스스로 예수의 좋은 군사임을 자각하고 ② 훈련과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군사됨이 어떤 것임을 발견하여 예수의 군사로서의 결심과 헌신을 다짐하고 ③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한 머리로 하는 한 지체임을 확인하게 한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교사 11명과 학생89명등 모두 100명이 근로봉사·교육봉사·의료봉사등으로 구분하여 각기 임무를 분담하고 이같은 분담임무와 함께 하기학교와 축호전도를 함께 실시함으로서 이제까지 주로 초청강사를 중심한 강의일변도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대학부 하기 수양회였다는 점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종전의 방법과 비교하여 볼 때 어느정도나 효과적이였느냐 하는 물음에 대한 대답은 올 한해의 실시결과만 가지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학생들 스스로가 자신의 생활을 능동적으로 이끌어 나가며 실질적인 봉사활동을 통해 경험적인 산 지식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하는데는 무엇인가 구태의연한 계절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의 가능성을 제시해준 좋은 기회였다고 볼 수 있다.

◻ 문제제기 - 시간관리·재정관리·생활지도

1. 제기된 문제 뒤에 있는 문제들

어떤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기한다는 그 자체가 비판을 위한 것으로 간주될 수도 있겠지만여기서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상태로 개선되기를 바라는 뜻 분

임을 먼저 말하고 싶다.

(1) 외형적인 평가에 머물수 밖에 없는 이유

제기된 문제가 고작 시간관리·재정관리·생활지도 정도 뿐이냐고 독자 가운데는 실망을 할 사람이 더러는 있을 줄 알고 있다. 이 글을 쓰는 나 자신도 그러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좀 더 본질적인 문제들을 다루면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현재 평가능력으로는 아직은 어렵다고 말할 수 밖에 없다.

우리의 현재 행사결과에 대한 평가나 학습결과에 대한 평가는 주로 행정적이고 외형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

즉 어떻게 준비해서, 어떻게 진행했고, 어떻게 끝을 맺었는데, 돈은 얼마나 들었고, 사람은 몇 사람이나 참석하였다. 이거 잘된거냐 못된거냐 하는 물음정도에 그치고 마는 것이 실정이다.

우리가 기대하는 평가는 계절학교 실시결과가 학생의 개인과 전체에 어 떻게 어느정도 변화를 일으켰느냐 하는 『변화의 내용과 정도』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과 이러한 『변화의 내용과 정도』에 영향을 주는 모든 요인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이를 계획적으로 조정함으로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한 실책으로 봄이 더 타당하다고 보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같은 평가다운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한 참 평가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본다.

① 계절학교의 목표를 함축된 뜻으로 보다는 풀이된 뜻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② 계절학교의 목표는 주일공부와의 연관성, 인접된 전후 타부와의 연관성에 있어 접합점이 분명하여야 한다.

③ 계절학교의 목표는 계절학교만의 특성을 잘 살린 것이어야 한다.

이같은 사항들이 선행되어 왜 계절학교가 열리지 않으면 안되는지 그 필요성을 분명하게 말할 수있게 될 때에 우리는 2차적으로 계절학교 실시결과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평가방법을 모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주일공부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계절학교

주일공부와 계절학교와 어떻게 다르냐,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또 꼭 달라야만 되느냐 하는 등의 여러가지 질문을 할 수 있다.

계절학교라고 하여 주일공부처럼 주일학교가 목적하는 교육내용에 있어서는 다를 바가 없지만 교육내용의 구성이나 프로그램의 진행방법등은 분명히 다를 수 밖에 없고 이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이점이 계절학교의 특성이 될 것이다.

어떤 경우 학생들이 집을 떠나 교사와 함께 숙식을 함께 할 뿐이지 그외의 시간들은 평소 주일에 교회에서 실시하던 주일공부나 활동과 크게 다를 바가없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숙식을 함께하며 집중훈련·단체훈련이라는 계절학교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점이다.

그리고 전체 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있어 특별활동이나 생활훈련과 같은 것은 가르침을 받는 피 교육자의 입장이 어느정도 반영이 되도록 하여야 할 터인데 피 교육자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의 의견만이 일방적으로 반영된 듯한 인상을 강하게 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점은 개선되어야 할 문제중의 하나다.

또 다른면에서 이번 계절학교의 전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다면 프로그램과 그진행 방법에 있어서 너무도 진보되지 못하고 변화성이 없는 옛 그대로의 답습이었다. 물론 계절학교의 프로그램이 해마다 변화되야만 반드시 좋은 것이라는 말은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 옛 그대로의 답습이란 내용의 진전을 의미하고도 있지만 그 보다도 해마다 18번 노래 처럼 끼워져 내려 오는 소위 인기있는 프로그램의 진행이 하나도 변화된 점이 없다는 의미다.

교육의 체계성 또는 단계적인 연관성이라는 점에서는 내용구성 그 자체가 해마다 바뀌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 하지 못하다. 그러나 아무리 인기 있고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어 해마다 실시되는 것이라 해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더 효과적이었고 올해 보다는 내년이 더욱 더 연구된 방법으로 교육적인 효과와 질을 높이는 질의 변화를 말한다.

(3) 계획은 소수가 하지만 준비는 전체가 하여야

일반적으로 계절학교를 위한 준비라고 하면 먼저 몇 사람으로 준비위원을 구성하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전체적인 계획과 조직을 하도록 한다.

이같은 작업이 일단 끝나면 조직의 업무분담대로 행정처리를 위한 사무적인 것을 준비한다거나, 교통편이나 침식등을 위한 준비를 한다거나, 대내외 강사를 교섭하고, 특별활동을 위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직접 만들거나 구입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러한 것이 대체적으로 끝나면 준비완료의 신호를 보낸다.

이렇듯 대부분 전체적인 준비만을 끝내고 준비완료 신호를 보내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시단계에 가서 계획과는 거리가 먼 결과를 종종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이런 준비는 1단계 준비에 불과하고 제2단계,

제 3 단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 2 단계로는 프로그램의 진행계획과 이에 필요한 물건은 그러한 일을 전담한 몇몇 교사가 준비를 완료하였다 하여도 실제 진행과정에서는 전체교사와 전체학생이 참여하게 된다는 점을 십분생각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즉 각개 교사 한사람 한사람에게 계절학교 기간 동안에 실시 될 행사와 교육내용이 무엇이며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되었고 각개 교사는 이같은 행사와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협조하고 또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필요할 때는 사전 교육과 훈련으로 익숙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3 단계로 학생들의 입장에서 계절학교를 위한 준비를 시켜야 되겠다. 계절학교 기간 동안에 어떤 목표로 어떤 내용의 교육과 행사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키고 마음의 준비를 하도록 하여 실제 교육현장에 나아가서는 당황하거나 그 자리에서 교육내용과 행사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같은 단계적인 준비가 대단히 잘 이루어진 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부가 아직도 계절학교는 지도 교역자를 중심한 몇몇 사람이 계획을 잘 세워 이를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였다가 현장에 나가 능숙한 리더가 인도를 하게 되면 될 것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몇 사람의 준비위원이 사전에 모든 준비를 아무리 잘 하였다 하여도 전체교사와 학생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키지 않으면 정작 실시단계에 이르러 대부분의 교사들과 전체 학생이 교육내용과 행사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기가 쉽다.

2. 시간관리문제

각부의 계절학교 시간관리가 잘 된 것인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또 부내(部內)와 부간(部間)의 비교를 용이 하게 하며 구성을 쉽게 파악하기 위하여 각부의 시간계획표의 내용을 ① 예배를 위한 시간(情－기도회·예배·부흥회) ② 교수를 위한 시간(知－공과공부·성경공부·특강·찬송공부) ③ 생활훈련을 위한 시간(意－특별활동·봉사활동·신앙상담·행사) ④ 친교를 위한 시간(식사·간식·소창) ⑤ 기타시간(회의·준비·대기·이동)등 5 가지로 구분하였다.

이같은 5 가지 기본시간 구분에 의하여 각부의 총 시간수(취침시간제외)를 구하고 5 가지의 각 기본시간이 총시간수에 비해 어느정도인가 하는 것을 백분율(%)을 내어 서로 비교가 되도록 하였다.

이같은 요령에 의하여 작성된 표가 앞서의 〈표 2〉 「교과내용별 시간·예산 배정비율통계표」이다.

(1) 표준시간은 어떤 것인가?

이제 각부의 시간관리를 평가하기에 앞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과연 어떤 시간표가 「표준이 될만한 시간표」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다.

설명에 앞서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아직은 어떤 시간표가 「표준시간표」인지 알수가 없다.

지정의(知情意)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주일학교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주장에 따를때 지정의의 요소가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는 말이 주일학교 영아부로부터 노년부·선교부·새가정부등에 이르기까지 수치로 표시하면 그 구성비가 꼭 같아야 된다는 의미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렇다면 13개 부(部)에 가장 적합한 표준시간표는 각부별로 서로 다른 13개의 표준시간표가 있어야만 된다는 말이 되는 셈이며 또한 표준시간표를 어떤 그라프로 나타낸다고 할때도 역시 13개의 모양이 서로 다른 그라프가 그려지게 될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중요한 문제는 수치화된 시간관리평가기준에 따라서 각부의 표준시간그라프를 그린다고 할 때 어떤 모양의 그라프가 어떤부의 표준시간그라프가 되는가 하는 문제를 계속적인 연구와 검토를 통해 찾아내는 문제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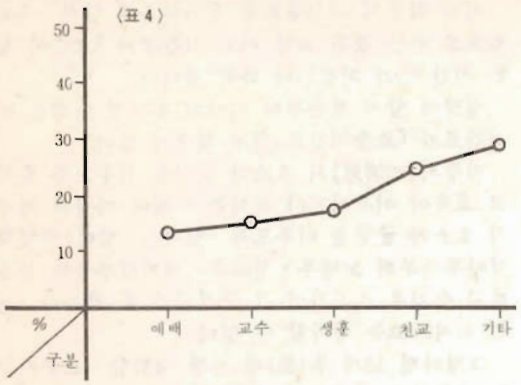
그러나 이제 이같은 표준시간그라프를 아직은 그릴수 없다 하여도 다분히 육감적이고 추측에 의존된 것이기는 하나 앞으로 각부가 효율적인 시간관리에 좀더 관심을 기우리고 신경을 써주었으면 하는 뜻에서 이제까지 조사된 자료를 가지고 여러가지 모양의 그라프를 그려보고자 한다.

다시 말하지만 여기에 나타날 여러가지 모양의 시간관리그라프가 어떤 결론적인 것을 의미하지는 못한다. 그보다는 가설적인 의미가 더욱 강함을 말하여두고 싶다.



〈수양회의 한장면－산전교육부〉

(2) 비 합리적인 시간관리였다고 추측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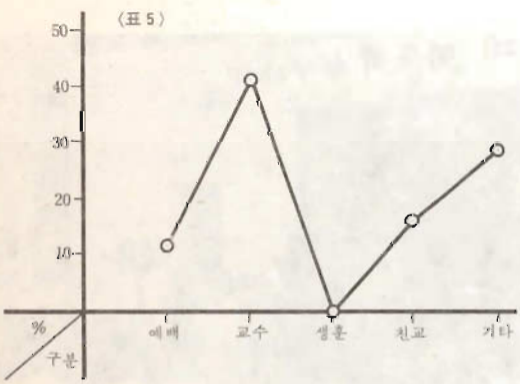


〈표 4〉가 보여주는 시간관리 형태는 5 가지의 기본시간중 기타시간이 가장 높고 예배를 위한 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앞서 말한대로 각부의 연령과 특성에 따라서 예배시간 보다 교수시간이 조금 더 많을 수 있고 아니면 교수시간 보다 생활훈련시간이 좀더 많을 수도 있지만 기타시간(회의·준비·이동)이 적으면 적을 수록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같은 제한된 전체시간 가운데 기타시간이 가장 높은 것은 그만큼 교수를 위한 시간이나 생활훈련을 위한 시간등이 상대적으로 감소되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게 된다.

(3) 변칙적인 시간관리였다고 추측되는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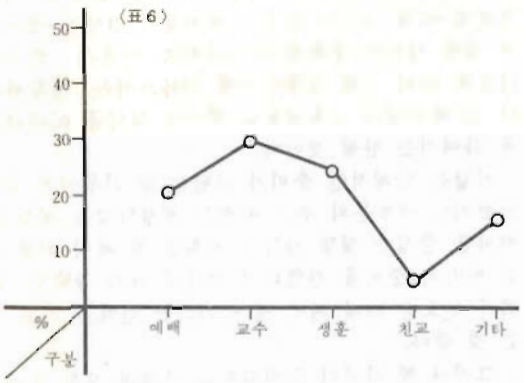


〈표 5〉의 그라프를 보면 교수를 위한 시간은 전체시간의 40%가 넘는데 비하여 생활훈련을 위한 시간은 0%이다.

이것은 이 부의 특수성이 이러한 시간관리그라프를 나타내 보일 수 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이 되기도 하지만 교육목표의 실현을 위해 부득이 교수를 위한 시간을 낮출 수 없는 형편이라면 기타시간을 좀 낮추어 생활훈련을 위한 시간으로 돌릴수 있었으리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실제로 해당부의 계절학교 실시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원래의 시간계획표에는 생활훈련을 위한 시간이 계획되어 있었으나 강사의 사정등으로 이같은 시간계획이 취소되고 특강이 강행된 것으로 되어있다.

(4) 합리적인 시간관리였다고 추측되는 형태



〈표 6〉을 보면 교수를 위한 시간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생활훈련을 위한 시간, 예배를 위한 시간, 기타시간 순에 이어 친교를 위한 시간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것은 주일학교 Ⅰ부 중에 어느 한 부의 경우인데 주일학교 Ⅰ부의 시간관리 그라프로는 앞으로 우리가 표준시간그라프를 발견하게 된다면 이와 흡사한 형태의 그라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여기에 조금 더 욕심을 낸다면 기타 시간이 가장 낮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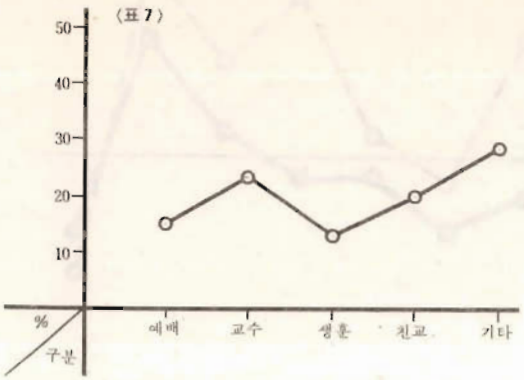
(5) 13부 전체평균의 시간관리 그라프

올 여름 계절학교를 실시한 13개 부(部)전체평균의 시간관리그라프는 〈표 7〉과 같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기타시간이 가장 높다는 것과 친교시간 또한 다른 시간들에 비해 높지 않나 하는 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으로 이 기타시간을 가급적 낮추도록 노력하고 상대적으로 다른 시간들을 되도록이면 높일수 있도록 하여야 될것이다.

그렇게 하자면 2 차 분석으로 기타시간을 이루고



있는 원인들을 하나 하나 분리검토하여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는가를 밝히고 이러한 원인의 압력요인들을 제거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6)전체의 기타 시간을 가장 높게 만들었다고 생각 되는 요인들

올 여름 계절학교를 실시한 13개 부의 전체 평균 시간관리그라프에서 기타시간을 가장 높게 만든 요인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꼽을수 있다.

① 사전준비사항의 일부가 완전히 되지 못하여 현장의 실시단계에서 준비사항을 마저 마무리짓기 위한 준비시간이 있었다.

② 기도원의 취사시설·조명시설이 미비하여 식사시간이 수차 지연되거나 갑자기 정전이 되어 계획된 순서가 지연되는 일이 있었다.

③ 교회와 기도원간의 이동시간의 상당시간을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기도원이나 교회나 주차장시설이 여의치 못한데 원인이 있다. 또한 기도원 진입로가 너무 협소하여 차량통행이 안전·신속하지 못하였다는데도 원인이 있다.

④ 450여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참여하였던 초등부의 경우 기도원에서 처음 실시하였기 때문에 경험부족으로 시간관리의 약간의 차질이 있었다.

⑤ 선교부의 경우는 강원도 북한선교회훈련원으로 되었던 실시장소가 수해로 교통이 두절됨에 따라 장소변경에 따른 대기시간이 상당이 걸었다. 또 원거리이동으로 대학부의 경우는 이동시간이 제일 길었다.

⑥ 각부의 시간표 진행담당자의 훈련부족과 참가자들의 시간관리에 대한 인식부족도 한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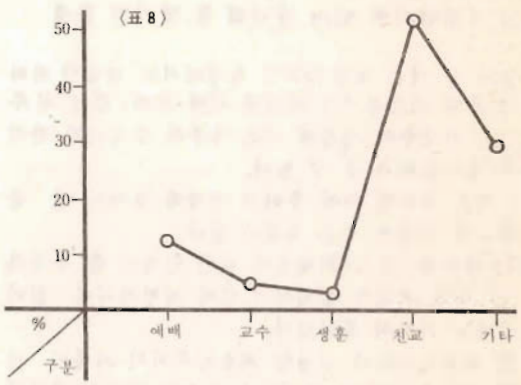
2. 재정관리

시간관리와 마찬가지로 재정관리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재정의 지출항목을 ① 예배를 위한 지출(예배와 부흥회를 위한 대내외 강사료) ② 교수를 위한 지출(교사·학생 교재비, 시청각교재비, 특강강사료, 학부모교육 강사료) ③ 생활훈련을 위한 지출(행사비, 시상비) ④ 친교를 위한 지출(주식비, 간식비, 소창비) ⑤ 기타지출(교통비, 서무비, 촬영비, 의료비, 평가회비, 준비비, 광고비, 잡비)등 5가지 기본항목으로 나누어 항목별 합계금액이 각부별 총 소요금액중 어느정도인가를 백분률(%)로 나타내었다.

이같은 요령에 의해 작성된 표가〈표 2〉「교과내용별 시간·예산 배정비율 통계표」이다.

(1) 13부 전체평균의 재정관리 그라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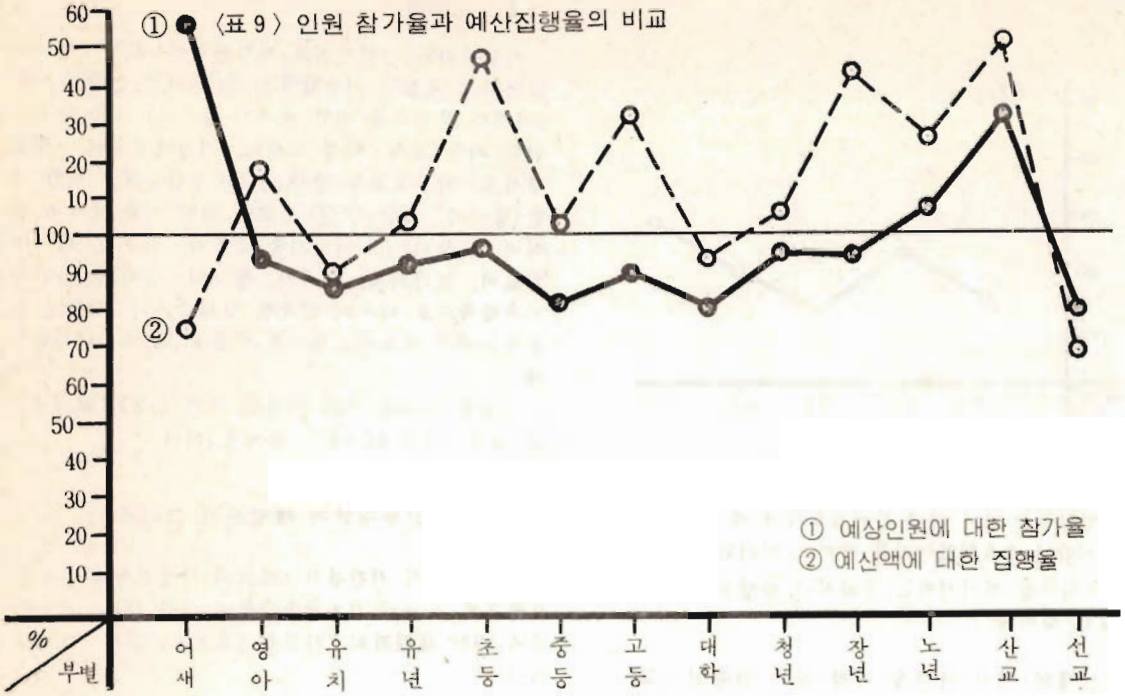
이를 또다시 시간관리그라프의 작성요령과 같은 요령으로 5가지 기본지출항목에 대한 13부 전체평균에 대한 재정관리그라프를〈표 8〉과 같이 그려보았다.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점은 식비와 간식비인 친교를 위한 지출이 52.9%로서 전체의 반이 넘는다는 점이다. 여기에 기타지출에 포함되어 있는 교통비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70%가 넘고있다.

이에 비하면 교수를 위한 지출이나 생활훈련을 위한 지출이 너무 낮고 이는 기타지출중 교통비를 제외한 비용이 13% 보다도 훨씬 낮은 점을 또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지면관계상 재정관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그 대신 각 부별 예상인원에 대한 참가율을 예산집행율을 나타낸 그라프〈표 9〉로서 대신하려고 한다.



(2) 재정관리에 있어 생각해 볼 몇가지 문제

앞서 올 여름 계절학교의 특징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올해 소요경비가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 된 주원인은 시간수의 연장에 따른 각부의 주식비와 간식비의 증가였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주원인 외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들로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직까지도 교회재정에 대한 인식이 좀 부족하고 또 상호 견해가 일치되지 않아 재정처리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지 못하였다.

② 교육위원회가 설정한 지출항목외의 지출이 전체의 8%나 되었고 예산보다 초과한 금액은 예산항목외 지출을 포함하여 전체의 19%라는 점이었다.

③ 대다수의 부가 교육위원회가 설정한 단가를 거의 무시하고 임의로 회수나 단가를 늘이었다.

3. 생활훈련

이번 계절학교 내용을 살펴볼 때에 대학부를 제외한 모든 부가 학생 생활훈련을 위한 시간·예산 배정에 있어 극히 소극적이었다.

평소 주일공부 및 행사를 통한 생활훈련과 좀 달리 집단생활을 통한 특별한 생활훈련의 기회가 있어야 된다고 할 때 이점이 특히 결여되어 있었다.

또한 계절학교 전체기간을 생활훈련기간으로 본다면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생활전체가 리드미칼하게 일관성있도록 진행되지 못한것 같다.

그리고 특별히 계획된 생활훈련의 프로그램이 미급하였고 또한 이같은 생활훈련을 담당한 교사들에 대한 더 많은 사전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다.

평소의 생활과는 전혀 다른 생활환경을 교육적으로 조성하여 평소 일상생활에서 체험하기 어려운 신앙체험을 할 수 있는 생활훈련이 없었던것 같다. 학생들이 되도록이면 좀더 잘 먹고 호감을 줄 수 있는 여건을 애써 마련해 주려고 하는 노력은 어떤 경우 도리어 생활훈련의 본래 목적과 역행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될 것이다.

◙ 문제점의 개선을 위한 제언

1. 시간관리

● 예배·교수·생활훈련·친교·기타 등에 대한 표준시간을 각부의 특성에 맞도록 조사 연구하여 설정하도록 하되 계절학교의 특성을 또한 살리도록 한다.

● 기도원에서 실시한 부중 단 한부도 자신의 시간계획표대로 진행한 부가 없다는 사실이 본래의 소기목적을 달성하는데 있어 가장 큰 장애였다는 것을 반성하고 각부가 실시과정에서는 반드시 이미 마련된 자신의 시간계획표대로 진행되도록 한다.

● 각부별로 계절학교 실시 연시간수의 하한과 상한을 두도록 하고 하루 일과의 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교육위원회에서 적절하게 제한할 필요가 있다

2. 재정관리

● 계절학교의 재정을 교육위원회가 일괄 관리하도록 하고 해당부는 계절학교에 대한 실시만을 관장토록 한다.

● 교회재정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교육을 교사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실시하도록 한다.

● 특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각부의 예산집행 실무자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한다.

3. 생활훈련

● 대부분의 교육이 주입식 교육방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수동적인 태도를 취할 수 밖에 없는 교육방법을 개선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특별활동이나 생활훈련등을 통하여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인내·협동·헌신 등의 생활훈련을 위하여 힘쓰도록하며 계절학교 기간동안의 합숙훈련시는 엄격한 규율생활을 하도록 한다.

● 학생 생활훈련이나 특별활동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도록 한다.

4. 기 타

● 충현기도원의 취사시설·조명시설·진입로 확장공사 등을 빠른 시일내에 보강토록 당회에 건의한다.

● 계절학교를 시작하기 전에 가졌던 전체교사기도회와 각부별 계절학교운영해설시간을 부활시켜 이를 교육위원회가 실시토록 한다.

● 계절학교의 효과를 연차적으로 비교 검토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변화의 내용과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설문조사서를 각부의 특성에 맞도록 작성하여 각부가 의무적으로 조사 보고토록 한다.

✪ 맺 음 말

계절학교의 교과내용구성과 운영방법등에 대하여는 사람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 서로의 의견을 달리할 수도 있다는 이러한 사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해되고 추진될 때 발전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고 본다.

그러나 주일학교 교육에 관한 한 절대로 의견을 달리할 수 없는 점이 있다. 그것은 우리의 헌신적인 봉사나 머리속의 지혜를 짜내어 가장 좋을 것이라는 방법이 결과적으로 교회의 유익과는 거리가 먼 것이며 복음의 확장이라는 우리의 사명과는 무관한 것이라면 일고(一考)의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주일학교 행사실시결과를 평가함에 있어 지나치게 수치화 하여 쪼개는 일은 곧 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에 역행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삼가해야만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 이러한 사람들의 말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아무리 정성을 쏟아 얻은 결과라 할지라도 즉시 버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교회와 같이 큰 규모의 교회행사에 있어서는 어느정도의 경영관리적 기술의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또 평가의 의도하는 바가 단순한 평가를 위한 평가가 아니라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면 꼭 그렇게 교회의 은혜로운 분위기와 행사실시결과의 평가와 연관시킬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아 올 여름 계절학교의 실시결과를 몇마디로 요약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숲속에 파묻혀 나무만을 보고 있을 뿐 산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으며 그것도 바로 옆의 나무는 아랑곳 하지 않고 자기에게 가꾸도록 책임지워진 나무만이 숲속의 유일한 나무인양 끌어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튼튼한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가 모여야 훌륭한 숲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산 전체를 보지 않으면 숲 전체 나무를 훌륭하게 키우기 어렵다는 사실을 모두가 외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축 교회설립 26주년

여 전 도 회



회 장	안율절
부 회 장	갠순자
	노양숙
총 무	이선일
서 기	박은숙
	홍혜순
부 서 기	임순절

회 계 검상순 부회계 박우순 이명자
특별회계전인화 전도부장 김정옥
전도부차장 유감순 이정애 이명자 허영자
지육부장 김정혜 차 장 명정옥 박영혜
봉사부장 정선화 차 장 심 숙 이부전
구제부장 원도화 차 장 황숙영 김영남
섭외부장 김정임 차 장 김증복 최복순
음악부장 김능선 차 장 황정숙 박월희
성미부장 김순애 차 장 김석윤
심방부장 허은애 차 장 안인현 노희춘 설영순
예전부장 이옥녀 차 장 민순애 석옥순
선교부장 유순녀 차 장 이명자 허옥가

윤리적 척도로서의 양심

김 하 진 목사
〈본교회 부목사〉

1. 양심에 대한 일반적 개념

먼저 양심이 무엇이냐에 대한 철학자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양심이란 하나님의 음성이며 명령이므로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에게는 양심이 없다고 주장하는 ①양심신성설(神聲說)과, 18세기 능력심리학이 발달(Faculty Psychology)한데 근거하여 독일 라이프치 대학 윤리학 교수이며 심리학교수였던 볼프(Chistian Wolff, 1679－1754)가 주장한 ②양심 능력설(Conseguence is Faculty), 그리고 칸트(Immanuel Kant) 철학에 기초를 두었던 ③양심 도덕의식설(道德意識說)을 들 수 있다.

또한 양심의 작용(作用)－도덕의 능력－에 대하여도 인간의 옳고 나쁜 것을 판단하는 ①이지적 작용(Intellectualism) (Socrates, Platon, Descartes, Spinozar, Kant 등)과, 나쁜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아프고, 선한 일을 했을 때 마음에 기쁨을 주는 ②감각적 작용(Emotionalism, Spencer, Mill 등), 그리고 생각하는 내가 생각되어지는 나를 개선, 개량하는 ③의지적 작용(Voluntarianism, Fichte 등)등 3가지로 주장하고 있다.

이밖에 스웨덴벌그(Swedenborg) "양심은 인간 속에 있는 신의 출현이다." (Conscience is Go 's Presence in man)라고 했으며, 죠지·워싱톤(George Washington)은 "양심이라 일컬어지는 하늘이 준 작은 불꽃이 너의 가슴속에서 타오르도록 힘써라"(Labor to keep alive in your breast that little spark of celestial fire, called conscience.)고 강조했다.

이렇게 양심이란 것을 한마디로 규정지어 말할 수 없는 복잡하며 신비스러운 무형적 존재라 할찌라도 양심은 인간의 과거, 현재, 미래간에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정하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죄하는 도덕적 의식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인간이란 의식을 그 특징으로 하는 의식적인 존재라 하겠다. 이같이 어떤 사람이 자기의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행위를 판단하는 도덕적인 의식이 곧 그 사람의 양심이다.

양심이란 말은 다분히 동양적이며 헬라적인 개념이지 히브리적인 개념은 아닌 것 같다. 동양의 성인인 공자나 맹자 같은 분들도 생각하기를 양심은 우주와 인간이 의거하는 천리(天理)나 도덕률 같은 것이며, 또 거기 의거한 인간성으로 말한다. 헬라 사람들도 양심을 "함께 본다"는 뜻으로 사용했고, "누구와 함께 안다"혹은 "나와 함께 안다"는 경우에 사용했던 것이다. 그들의 개념을 정리해 본다면 ①사람의 곤경을 깊이 체험하는 것 ②자신의 나쁜 행위를 비판 고소하는 것 ③과거의 경험을 대화자 서로가 회상하는 것 ④사람을 나누어 두 질서의 긴장속에 넣는 것 ⑤자신을 유죄 판결하는 것 ⑥책임짐과 결단의 추진력 등이다.

이외에도 객관적인 불합리한 신화적 소리로서 사람을 일깨우는 것 혹은 정의의 신, 복수의 신으로, 혹은 소크라테스의 다이몬등으로 인격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우리나라 헌법 12조에도 양심의 자유에 대하여 보장하고 있다.

2. 성경에 나타난 양심

구약에는 양심이란 말을 따로 사용한 일은 없다.

그대신 마음 이란 말로 그 뜻을 표시하였다. 직접 양심이란 말을 따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양심에 관계된 내용은 구약 여러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한 후 에덴동산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명령했다. 따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고 했으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치 못하고 뱀의 유혹에 빠져 범죄하고 말았다. 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수치스러운 몸을 발견하게 되었고, 결국 양심의 가책을 받아 무화과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웠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 숨게 되었다. (창3：1－10참조) 그 뿐 아니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이때 그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죄가 중함을 고백하고 말았다. (창4：13－14참조)

이와같이 구약에서 양심이란 말을 찾아볼 수 없다 하더라도 인간이 가진 양심에 관계된 내용들을 많이 찾아 보게 된다. (레26：36, 수14：7, 사28：65, 67, 삼상24：5－6, 25：31, 삼하24：10, 왕상2：44,

욥27 : 6, 잠28 : 1 등 참조)

신약에서도 마음(καρδία)이란 문자를 양심으로 사용한 예가 많이 있다. 요일 3장 19-21절에 보면 네 번이나 이 말을 사용한 것을 발견케 된다. 뿐 만아니라 베드로, 바울, 유다 등을 통하여서도 양심의 활동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수네이데시스(συνείδησις)란 말로 양심을 표현한 곳이 신약 가운데 30번 이상 기록되어 있다. (요 8 : 9, 행23 : 1, 24 : 16, 롬2 : 15, 9 : 1, 13 : 5 고전8 : 7, 9 : 10, 10 : 25, 27, 28, 29, 고후 1 : 22, 4 : 2, 5 : 11, 딤전 1 : 5, 19, 3 : 9, 4 : 2 딤후 1 : 3, 딛 1 : 15, 히 9 : 9, 14, 10 : 2, 22, 13 : 18, 벧전 2 : 19, 3 : 16, 21 등)

예수님께서도 양심이란 말을 직접 사용하지는 않았으나 그의 교훈에서 양심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찾아 보게 된다. 산상설교에 있는 "마음으로의 간음" (마5 : 28), "마음이 가난함"(마 5 : 3),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는 말(마6 : 21), 그리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마 6 : 6)같은 표현은 사람 깊은 곳에 있는 주체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의 빛(마 6 : 22-23)을 문제 삼고 마음에서 솟아나는 선과 악을(마15 : 18-20) 엄히 경고하셨다.

하임(K. Heim)이 말한대로 예수님의 산상설교는 "하늘로 부터의 땅의 진동", 즉 "양심의 진동"이라고 부른 것은 과당한 말인 것 같다. 양심은 고유명사를 가진 인간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되어 있는 인간이다. (G. Ebeling, Theological Reflections on Conscience)

3. 신앙과 양심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카(M. Heidegger)는 "양심은 침묵의 부르짖음"이라고 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자같이 외쳤다. (암3 : 8)

이와같이 양심은 인간을 향하여 호소한다. 그것은 침묵의 부르짖음으로 어떤 자세한 표현이 솟아날 것을 기대하는 호소이다.

그런데 양심과 신앙과의 관계는 어떤 것일까? 이에 대하여 바울은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 (롬10 : 10)고 말했다. 양심과 신앙과의 관계는 바로 이같은 것이라고 생각한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창조로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것은 각 개인에게 인격의 통일성으로서 또 갱신의 도약판으로서 주신 것이며 염려의 흔들림까지도 자신의 것으로서 아파하고 모든 것에 마음을 열고 자연 세계와 하나님의 사랑이 한 현실이 되기를 바라고 고통한다. 또한 양심은 개인의 통일 원칙이면서 사람과 대립해서 객관적으로 호소해 오는 소리다. 그리고 이 양심의 소리는 창조의 신비에 의하여 사회적이요, 집단적이요, 큰 덩어리가 되어서 부정과 부패를 책망하고 전력과 야심의 횡포를 규탄하고 역사를 전환시키는 큰 힘이 되기도 한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에서 생겨난다. 양심은 이와 같이 주어지는 믿음, 모든 것 가운데 모든 것으로 양자 택일하는 믿음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인격의 통일을 세워주고 잃어버린 자아(自我)와의 동일성을 확증하는 힘이다. 양심은 어떤 성문법이나, 어떤 제도나, 외적 세력에 얽매이지 않으려고 고민하며 그런 어떤 것에도 안식을 찾지 않는다.

그러므로 양심이 양심대로 성립하지 않으면 믿음은 "주여 주여!"하는 구호에 그치고 말 것이다. 양심은 믿음까지라도 비판하고 자신의 일로써 가누고 바로 잡으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양심은 실제로 질문하면서 질문 받는 체험자 자체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으로 변호해 줄 것을 호소하기도 한다. (욥19 : 25)

그러나 신앙이란 불가능의 가능으로 위로부터 주지 않으면 받을 사람이 없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했으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신앙이다. 그러므로 양심이란 이것을 자신의 일로 알며 능력의 하나님이 만나질 때까지 마음의 등불로서 주위를 밝히고 흩어져 가는 인간 주체의 의지를 하나로 통합하려고 애쓰는 것, 뿐 만아니라 자기와의 동일성을 세우고 세계와 인간과 하나님을 한 현실로 혼합하기 까지 믿음을 밝히는 것이다.

그런데 양심의 책망을 꺾지 않고는 인간의 인격의 통일성을 얻지 못하며 환경과 하나님을 한 현실로 획득하지 못한다. 그래서 복음은 회개를 요청하게 된다. 또한 양심은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머물러서 나와, 이 사회와, 종교계와, 나라와, 세계를 비판하고 고소하며 역사의 행로를 제시하여 전환시키지 않으면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양심은 어디나 인간이 있는 곳에 존재하며 부르짖고, 흩어진 인간을 통일성에로 정비하고 파산된 인간을 회복할 것이다.

* 연재순서 *

1. 기독교 윤리란 무엇인가
2. 구약에 나타난 윤리적사상
3. 신약의 윤리관
   Ⅰ. 신약의 도덕적 이상
   Ⅱ. 예수님의 교훈(윤리관)
4. 인간과 윤리
5. 초대교회의 윤리적 배경
6. 윤리적 척도인 양심
7. 크리스챤의 윤리적 이상
   Ⅰ. 사랑의 실천
   Ⅱ. 하나님나라 형성
8. 생활속의 윤리
   Ⅰ. 결혼과 가정·이혼문제
   Ⅱ. 경제와 윤리
9. 사회속의 윤리
   Ⅰ. 기독교와 인종문제
   Ⅱ. 국제질서·전쟁·평화
   Ⅲ. 기독교 윤리와 문화

* 편집실 칼잡 *

하나가 되자

고 제 원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의 의미가 새로와진다. 현대사회는 개인주의(이기주의)의 집합체라고들 하며 그것이 또한 특징이 되어지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을 자기자신은 자신이 돌보아야만 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불신풍조가 교회에 까지 침투해 들어 오고 있다. 이같은 풍조는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를 먼저 생각했기에 나타나는 현상일 것이다.

지극히 남을 위해야 할 교회에서 자기가 살아 있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주님께서 친히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몸소 받으신 것을 보더라도,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셨다면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위에 까지 오시지 않으셨을 것이다. 나보다 남을 불쌍히 여기셨기에 세상 고초 당하셨던 것이다.

이러한 기본원칙을 파괴하는 행동들이 교회내에서 만연되고 있다. 이럴수록 신앙상태는 자유주의에 흐르고 말씀을 멀리하면서 나 중심, 인간중심의 생활로 흘러가고 마는 것이다.

이같은 이기주의 사회에서 하나가 된 다는것은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현대사회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사 사랑으로 하나가 되라고 하셨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지 못할때는 역시 현대사회처럼 어려움을 당해야 하는 법이다. 아니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열이 오고 헐뜯고 파멸이 뒤따르게 되어 있는 법이다.

말씀을 좇아 행하는 길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길임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자기 자신을 버리고 말씀만을 순종하여 겸손한 생활을 할 때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하여 굳게 세워질 것이다. 아랫사람과 윗사람 사이의 원만한 관계와 나 이전에 남을 생각하여 일보 양보하는 미덕과 이해심, 이것이 오늘을 사는 지혜이며 화목을 이룩 할 수 있는 방법일 것이다.

주님 앞에 엄숙히 서서 주님을 위하는 길이 진정 어느 것인가를 곰곰히 생각해 보아 주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할 때가 된 듯하다.

* 찬송가 감상 *

이 땅에 왔던 왕들은

〈새 536〉

김 중 석강도사
〈성가부 · 산전교육부지도〉

이 땅에 왔던 왕들은
다 지나 갔으나
주님의 교회 지금도
한결과 같도다.

요즈음 한국 교회 성가대에서 즐겨 부르는 곡으로 약간 규모가 큰 "주의 이름은 크시고 영화롭도다"라는 딕킨슨 (Clarence Dickinson) 의 찬양이 있읍니다. 그 후반에 이르면 "옛 부터 도움되시고"라는 가사로 아주 장중한 선율이 나오면서 숙연한 분위기로 이끌어 신앙적 경건에 잠기게 합니다. 바로 이 곡이 크로프트 (William Croft 1678-1727)의 곡으로 안나 (St. Anne) 라는 명칭이 붙어있고 이달의 찬송 "이 땅에 왔던 왕들은 다 지나 갔으나" 도 이 곡조로 불려 집니다. 이 찬송의 내용은 이 땅에 왔던 왕과 제후들은 모두 사라져 버렸으나 주님의 교회는 한결같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과연 주님의 교회는 어떤 경우 어떤 정치 체제 어느 민족 가운데서도 면면히 서오고 있음을 봅니다. 정치 체제도 변하고 그 담당자인 사람도 다 쓰러졌으나 교회 만큼은 한결같이 서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성전 아름다웁고
그 광채 찬란해
끝없이 거룩한 찬송
늘 울려 퍼지네

9월이 되었읍니다. 충현교회가 창립된 지 26돐이 되었고 새로운 교회당 건축에 돌입하려 하고 있읍니다. 이 때에 우리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때보다 더욱 요청되고 있읍니다. 이 찬송은 교회에 대한 사랑과 영원한 교회에 대한 신념으로 차있읍니다. 큰 폭풍우와 지진이 위협하여도 교회는 이 세상 왕국처럼 넘어지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찬송시를 쓴 이는 미국 감독교회 뉴욕 서부 감독이던 콕스 (A.Cleveland Coxe 1818-1896 신학박사) 목사인데 미국 찬송가 발전에 공이 큰 분입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는, 박자를 엄격히 지키어 서둘러 부르기 보다는, "이 땅에 왔던 왕들은-"하고 끝음을 길게 부르고 침착하게 다음 구절을 부르는 편이 낫읍니다. 주님을 사랑하듯이 또한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가 많이 불러야 할 찬송이라 하겠읍니다.

* 도서정보 *

도서실은 여러분을 위해 문을 활짝 열어 놓았읍니다.

우리 교회의 도서실은 신학 및 기독교 관계의 그밖의 많은 서적을 구비하고 성도들이 문헌을 통하여 은혜를 받으며 신앙에 관한 진리 탐구를 하도록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읍니다.

- 8월에 들어온 도서 -

Ⅰ. 구입도서

1. 사전류

1) 성경인명대사전 : 김영국 지음. 백합출판사, 1418p, 1979

2. 구 약

1) 성서고고학입문 : 시그프리드 H. 호온지음. 장수돈, 오강남공역. 대한기독교서회, 151p, 1976.
2) 구약의 족장들 : 김희보지음. 총신대출판부, 187p, 1979
3) 신명기강해 : 매킨토쉬, C. H 지음. 권혁봉옮김. 생명의 말씀사, 499p, 1979.
4) 구약성서의 권위 : 브라이트, 존지음. 이군호 임태수지음. 컨콜디아사, 1979.
5) 외경이란 무엇인가? : 신구약 중간의 문화; 브루스 M. 메츠리지음. 민영진 옮김. 컨콜디아사, 1979.

3. 신약

1)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 : 셀릴, 존 L 지음. 김의자옮김. 보이스사. 241p, 1979.
2) 히브리서평해 : 스테드먼, 레이븰지음. 권달천옮김. 생명의 말씀사. 281p, 1979
3) 칼빈주석 : 신약성경주석 -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칼빈 존지음. 신교출판사 669 p. 1979.
4) 신약성서의 올바른 이해 : 듀네트, 월터지음 배제민옮김. 보이스사, 1979.

4. 변증학 및 윤리학

1) 기독교란 무엇인가? : 정진경지음. 성광문화사, 377 p. 1979.
2) 불사조의 노래 : 차윤순지음. 보이스사, 321p. 1979.
3) 삶을 위한 정치 : 차윤순지음. 보이스사, 243p. 1979.
4) 피플메이킹 : 세티어, 버지니아지음. 배영자 옮김. 보이스사, 403 p. 1979.
5) 하나님 드릴 말씀이 있읍니다 : 홈스, 말조리지음. 조영실옮김. 보이스사, 199 p, 1979.
6) 자기 · 문제 · 해결 : 크로포드, G. 로이드 지음 조영실옮김. 174p 1979.

* 책소개 *

김승곤 목사 지음

계시록 강해

국판 · 324 페이지 · 3,500원 · 성도출판사

우리는 지금 세대적 종말에 살고 있다. 뜻이 있는 성도라면 믿음대로 살려고 성경을 깊이 연구 애독하며 특히 계시록에 대하여 알고저 한다

그러나 계시록은 너무나 상징적으로 기록되어 평신도는 물론 신학자들까지도 계시록 해석에 난해를 느끼고 있다. 그래서 유명한 요한 칼빈도 하구 많은 서적과 주석을 썼지만 계시록에 대하여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다. 또한 현대에 일어나는 많은 이단과 신비주의의 불경건한 신앙운동도 계시록을 그릇되게 풀므로 생기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계시록을 분명히 알고 싶어도 너무나 상징적으로 쓰여졌기에, 잘못 해석하면 그릇된 길로 나가기에, 매우 큰 어려움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며 그러나 알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러던 차에 김승곤 목사님이 지은 계시록강해가 지금부터 10년전에 출간 되었다가 필자가 미국이민으로 품절되었는데 다시 성도들의 절실한 요구로 재판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이 책의 특징은 첫째로, 추천의 말에 박윤선 목사님이 지적한대로 칼빈주의적 입장에서 강해하였다는 것이다. 항간에 쏟아져 나오는 많은 계시록 서적들은 거의 다 자기가 체험한 경험을 교묘히 삽입해서 해석하거나, 저자의 주관과 사상을 교묘한 역사에 붙여 해석하여 억지로 해석하거나 일관성이 없이 단편적으로 해석하였지만, 본 계시록 강해는 칼빈이 주장한 성경에 의한 성경해석에 중점을 두고 해석한 것이다.

둘째로 본 강해는 강의 내용으로 독자로 하여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쉬운 표현과 적절한 예화로 본문이 주고저 하는 요점을 명백히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번 손에 잡으면 쉽게 손에서 떨어지지 않는 책이다.

세째로 이 책은 학자의 서재에서 가만히 앉아서 쓴 사색적인 책이 아니라, 직접 목회하며 쓴 책이기에 읽으면 독자로 하여금 생동력과 큰 감화력을 주는 책이다. 그렇다고 목회적인 입장에서만 쓴 것도 아니다. 여러 학자들의 학설을 성경입장에서 비판을 가한 그야말로 형지 병행한 계시록 진리의 안내서다.

계시록에 대해서 깊이 알고저 하는 성도에게 일독을 권하고 싶은 책이다.

조 준 상 전도사 〈선교부부지도〉

독자의 글



삶



조 현 명 장로
〈월간충현 편집위원장〉

세상은 참으로 많이도 변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변화는 급속도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변화란 다른 것이 아니고 새것의 수입이다. 물론 옛것의 훌륭함을 기르고 더욱 빛내는 일이나, 새로운 창조도 많이 이룩되고 있으나 그래도 중진국으로서의 한국 사회는 서구 문명의 수입에 거의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다.

그동안 우리는 숱한 문명의 이기(利器)를 갖추어 왔으며 무수한 학설이나 이론을 받아들였다. 우리의 시야(視野)는 보다 넓어졌고 보다 밝아졌다. 어차피 알고야 말것이고 또 변하고 말 것이거든 일찌감치 받아들이는 것이 차라리 좋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만약에 그 새것이 우리의 생리나 체질에 맞지 않는 것이어서 두려운 풍조, 무서운 부작용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며 그 새것 속에 무서운 유혹, 장래를 그르칠 각종 독소들을 어떻게 알아내며 그것을 어떻게 가려낼 것인가. 또 이른바 새 학설, 새 이론이란 것 가운데서 만약 궤변(詭辯)과 모순(矛盾)이 내재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알아낼 것인가?

20세기는 과학 문명의 시대이다. 그런데 인류의 행복은 과학 발달에 비례하여 증대하고 있는가? 계속되는 동서간의 핵(核) 에네르기 개발, 핵무기, 미사일 등의 제조 경쟁은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핵실험은 인류를 죽음의 공포에 몰아넣고 있다. 본래 인류를 행복하게 하려던 과학이 왜 이와같이 되었는지 반성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인간은 본래 물질과 신(神)의 호흡의 결합으로 그 생명은 시작하였다. 그러나 인류는 신의 호흡 즉 정신면을 도외시하고 물질면 만을 보고 생활해 왔다. 신을 떠난 인간은 오랫동안 자기 중심의 이기주의 가운데 생활해 왔다. 신을 떠난 인류, 이는 사랑 없는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며 신을 떠난 생활이란 사랑 없는 생활을 의미한다.

아담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으며 그 순간 그의 살아 있는 영혼은 죽게 되었고, 죄는 그 온 자손에게까지 파급되어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날 때부터 죽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을 죄와 죄의 결과로 초래할 죽음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그 외아들 예수를 내려보내시어 그를 십자가에서 죽게함으로 인류의 죄를 대속하여 구원의 길을 완전히 열고 은혜로운 선물로서 인간을 구원하여 다시 생명에 들어갈 수 있게 하며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시게 되었다. 예수께서는 "생명의 임금"이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스스로 증거하신 것이다.

인류의 과학이 고도로 발달하고 눈부신 진보로 과거 불가능 하다고 하던 것이 하나 하나 해결되고 있다고 하여 오만한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등 망발을 하기도 한다.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病菌)에게 정복을 당하는 약자가 아니며, 자연을 정복한다고 떠들면서 한해(旱害)나 풍수해를 못막아내는 속수 무책(束手無策)의 어리석은 자가 아니며, 심장과 폐를 이식한다고 하나 죽음에 대하여는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인간이 아닌가!

「이는 이 세상에 속한 여러 모양의 세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개인의 정력이나 담력 같은 것으로는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라고 성경에 밝히 말씀해 주셨다. (슥4:6)

반세기 전의 일이다. 중학교 1학년 시절에 "먹기 위하여 사느냐?" "살기 위하여 먹느냐?"란 문제를 놓고 토론한 일이 있었다. 지금에 와서는"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산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겠으나 그 때에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못하였고 "삶이란 죽음으로 들어가는 문 어귀요…"란 김 모 시인의 시를 읽을 때라 그저 죽기 위해 사는 것같은 느낌마저 들었었다.

몇해 전 일이다. 지금의 제 2 지구안에 있는 어떤 구역 예배의 강사로 나갔었을 때이다. 나이 많으신 여집사님 한분은 "모든 것 다 쓸데 없어 거저 죽으면 좋겠다"고 되풀이하며 젊은 여집사님들은 "하나님 앞에 가도록 그리고 육신도 고생 없이 편하게 죽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세요"라고 위로 겸 권고함을 보았다.

성경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했지만 우리 생명을 꼭 70으로 보장 못하는 인간이니 어처구니 없는 사실이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인생의 무상함을 말하였다. 모세는 내 앞에 있는 인생의 길이를 알고 기기 대처하는 응분의 몸가짐으로 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였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90 : 12)

이스라엘 왕 솔로몬은 거만(巨萬)의 부(富)를 만지고 수천(數千)의 종을 부리는 호사(豪奢)속에 있었으나 인생의 황혼기를 맞았을 때 「헛되다는 한 마디로 부귀 영화의 덧 없음을 개탄(槪嘆)하였다.

예수께서는 미련한 부자 비유를 통해 물질의 무상함을 가르치셨고, 인생 생활의 원리는 하나님의 뜻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다. 주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에 그 생활의 근거를 내리고 사신 분이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기 위하여 그의 남은 생애를 사람의 정욕을 좇아 살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주 예수께서는 인간이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공하셨고, 바울은 부끄러움 없는 삶, 후회 없는 삶, 자신 있는 삶, 죽음을 초월한 삶,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찾는 영원한 저축에 힘쓰는 낭비없는 삶을 살아 순교로 성공하였다.

인간이 저지른 죄악으로 아름다운 지구가 오염되어 자연의 균형이 깨지고 중병에 걸려 있고 이 세상은 점점 인정이 메말라가고 있다. 부조리(不條理)를 많이 안고 있는 사회에서 누구 하나 믿을 수 없고 기댈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아무 희망도 없고 우정도 없고 고독만 느끼며 육과 영이 방들어 죽게된 인간은 끝없는 근심과 공포에 싸이게 되었으나 영원한 삶을 얻은 우리들은 신령한 삶·값진 삶·기쁨의 삶을 살아야 하겠다. 자기 희생의 동기로써의 봉사는 그것이 사랑에서 발할 때 기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가 대처한 일대 국난을 타개하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긴요한 것은 불신(不信)을 일소(一掃)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야만 죽음에 이르는 불안과 공포가 없는 세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감사의 기쁨 없는 짜증만의 비참한 생활에 빠뜨리는 불평과 항상 불행으로 이끌어 행복을 빼앗는 불만병(不滿病)에 걸린 우리들은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고, 교만·반역·분열에서 멸망에 이르는 원망의 말을 하지 않고 웃 사람에게 순종하고 아랫 사람과 자식들에게 축복의 말을 하며 전철(前轍)을 밟지않고 영생의 길을 걸어 영원한 삶을 얻어야 하겠다.

십 자 가

이끼 낀 바위여
먼 옛날 어느 누가
푸르름의 단장을 했는고
비바람 몰아 칠 때
어느 누가 너에게 휘장을 둘렀는고

너의 위엄있는 그 웅장한 자태
어느 누가 헤쳐 버렸는고

해묵은 이끼 낀 그 모습
저 동녘 아침 햇살 비칠 때
움쳐졌던 어깨를 펴 기지개를 켜라
아 아! 힘있는 너의 모습
그대로 발가 벗어라

이끼낀 푸르름 떨쳐 버리고
숨김없이 펼쳐 버려라
오늘도
너에게 밝은 빛 비취나니

그 터위에 붉은 피로 새롭게 하라
저 언덕 골고다의 십자가여!
소망이며, 생명이신 재 붉은 피로

너의 벌거벗은 깊은 촛점까지
십자가의 쇠못으로 깊이 박으리

감 경 자

바위처럼 굳고 딱딱한 우리 심령위에 "죄" 라는 무서운 죽음이 우리에게 덮쳐 꼼짝 달싹 못하게 사로잡혀 어두움에 허덕이면서 살았저맏하나님의 넓은 사랑 자비로운 손길이 뻗쳐 질때 활짝 어깨를 펴고 십자가 밑에 무릎 꿇으며 새생명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읍니다. 하나님의 그 넓은사랑 깨달으며 그 은혜 얼마나 감사 하온지…… 오 주여! 이제라도 늦지 않았읍니다. 앞으로의 생활은 주님 손길에 사로잡혀 사는 우리의 삶이 되여지기를 고대하면서 할렐루야. 영원히 주님께 찬양하리

수많은 인류가 이 땅을거쳐 가면서 숱한 문화를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갔을지라도 "인류는 항상 진보하나 인간은 동일하다"는 괴테의 말대로 인간의 근원적인 울음과 투쟁은 변함없이 반복되고 있다.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까만 하늘 만큼이나 미지에 쌓여 있는 각 인생의 여정은 불멸의 서사시들의 주제처럼 투쟁과 방랑"의 과정을 통해 죽음과 삶의 기로에서 죽음으로 혹은 삶으로 인도받는다. 하나님은 계속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고 난 가만히 지구의 돌아가는 소리에 귀 기울인다.



동방박사의 여정

김 수 진
〈대학부 4 년〉

인식할 수 있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존재의 고통을 알아간다. 그리곤 주위에 와 닿는 모든 외계에서 고통을 감지하게 되고 때로는 그 모든 외계가 곧 고통이다. 근본적인 부패성에 눈뜨게 되고, 점차 분열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조금씩 인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한걸음 한걸음 주님께서 처음 만드셨을 때의 충만된 상태를 회복하기 위한 필사적인 투쟁과 방랑의 길은 시작된다.

근본적인 분열, 하나님과의 분열로 인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온갖 분열 - 외부와의 분열 그리고 우주 만큼이나 넓은 자기 내부의 엄청난 분열, 그래서 에릭 프롬은 소외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게 되었고, 창조주의 영을 받은 인간이 또 하나의 창조자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세계의 중심으로, 자기행위의 창시자로 경험하지 못하고 도리어 그 행위의 결과가 주인이 되고 인간이 거기에 숭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었나 보다. 이것은 참으로 절망이며 죽음에 이르는 병임을 알기에 키에르케고르는 방랑의 길을 나섰다.

1단계 : 감성적 실존 혹은 쾌락적 실존의 단계로 기분에 따라 그때 그때의 쾌락에서 즐기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쾌락을 즐긴다해도 그 뒤에 오는 권태를 이기지 못하며, 자기에게 혐오를 느끼게되어 결국은 또 절망한다. 거기에서 초쾌락적 극복을 모색하게된다.

2단계 : 윤리적 실존이다. 윤리적으로 산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로써 끝까지 다 이루어 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시 한번 절망과 불안을 느낀다.

여기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게 될 때 마지막 단계에 이른다. 3단계 : 종교적 실존에 이른다. 이는 하나의 약함이고 하나님께 이르는 변증법적 초극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주체성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래서 실존은 그제야 본래의 자기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사도바울의 고백,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악과 죄를 극복해보려는, 소외된 비참함을 극복하고 본래적인 자아를 찾으려는 사도바울의 생사의 절규를 생각케한다. "내가 하는 일을 나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가 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지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고 있으나 말입니다. 나는 선을 하려는 의지는 갖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읍니다. 내가 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들어있는 죄입니다. 이런 경험에서 나는 한 법칙을 발견했읍니다. 곧 내가 선을 행하려 할때는 언제나 바로 곁에 악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맘속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지만 내 몸속에는 내 마음의 법과 대결하여 싸우고 있는 다른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그 법은 나를 사로잡아 내 몸속에 있는 죄의 법에 종이 되게 합니다 아!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내 줄 것입니까?" 히브리인중의 히브리인이고 율법에 있어서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열심에 있어서는 교회를 박해(당시엔 이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인 줄 알았으므로)한 사람이며 율법을 지킴으로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조금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던 바울의 고백이기에 더욱 소외된 인간의 한계를 보게한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곧 이어

이렇게 말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해 주실 수 있읍니다. 하나님께 나는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단코 정죄받는 일이 없읍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죽음의 법(소외의 사슬)에서 해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소외, 분열을 극복한 승리의 개가! 승리의 개가이다.

인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분열로 인해 광활한 밤하늘의 알지 못하는 어느 부분엔가, 아득한 산과 바다의 숨겨진 그 어느 부분엔가 그리고 잊혀져가는 사랑하는 이웃들의 마음 어느 한 부분엔가 심어 놓았던 숱한 슬픔과 고뇌를, 죄악을 티끌 만큼도 남기지 않고 거두어 들인 후 값없이 모두 제하여 주시곤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소망의 영원한 장막 안으로 인도하셨다. 찬란한 십자가의 승리가 온 세계를 밝게 환하게 비추고 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 5 : 17)

이제는 아버지의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일에 동참케 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천하에 알리도록 하시는 분, 그 분이 노아에게 죄악의 사회속으로 생명의 배를 띄우게 하셨고, 포로된 백성에게 해방을 주기 위해 모세를 통해 그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 내어 참된 해방으로까지 이끌게 하셨고, 그 분이 아모스에게 부패와 부조리의 사회속에서도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게 하셨고, 호세아에게 더욱 더 깜깜해져가는 사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게 하셨고, 예레미야에게 굳어져가는 어두운 영혼들을 울며 끊임없이 생명의 길을 외쳐대게 하셨고 그 분이 이사야를 통해 암흑과 절망의 환경속에서도 "고난의 종"의 사명감을 불어넣어 희망을 끊이지 않게 하셨던 분이다.

그 분이 이제도 링컨대통령에게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의 방향으로 이끌도록 하셨듯이 우리들 한사람 한사람에게도 이 사회와 역사에 대한 사명감을 주시면서 역사에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일어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행을 하기에는 1년중에서도 가장 나쁜 때에 혹독한 추위속에서도 발따라 사명감을 가지고 따뜻한 연구실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동방박사들. 길은 질퍽질퍽하고 날씨는 살을 에는듯한 한 겨울에, 낙타의 발은 껍질이 벳겨져 무르고 쓰라려서 때로는 고집을 피우며 반항하기도 하고, 눈속에 드러누워 일어나려 하지 않을 때도 있었고 그래도 사명감 앞에 머리 숙이고 한걸음 한걸음 내 디디는 엄숙한 발걸음. 낙타모는 사람들은 투덜대며 욕하며 술과 여자를 요구하며 도망쳐 버리기도 했고, 밤엔 불이 꺼져 추위에 떨기도 하고, 가는 마을마다 적대적이고 불친절하고 비싼 숙박료를 청구하고 몇번이나 외롭고 서글퍼지며 따뜻한 고향을 그리워 했던가. 때로는 못찾게 되지는 않을까 혹은 이 모든 것이 어리석은 짓은 아닌가 하고…몇번이나 약해지기도 하였지만 하늘에 선명히 빛나고 있는 별을 볼 때마다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서는 서로 서로의 예물(황금, 유향, 몰약)을 소중히 간직하면서 다시 걸었다. 너무 늦게 도착하지는 않을까 불안해 하며, 밤엔 잠을 안자고 낙타등에서 밤새도록 꾸벅거리며 졸면서 서두르기도 하였고…이윽고 한 새벽녘에 풀냄새가 은은하게 풍기고 설산 아래의 골짜기에서는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간간히 들리고, 낮은 하늘엔 세그루의 나무가 서있는 작은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 온세상에 전령을 알리듯 백마가 초원을 가로질러 달려가고 있었다. 생명의 기운을 피부로 느끼며 벅찬 가슴을 조금씩 진정시키면서 바로 그 장소에 도착했을 때는 1초도 빠르지도 늦지도 않고 예비하신 바로 그 시간에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릴 수 있었다. 얼마나 감사하며 겸손하게 무릎을 꿇었을까? 경배하며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에 넘치던 그 순간은 이전의 그 어떤 어려움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동방박사들은 탄생과 동시에 죽음(이전의 죄악, 분열, 형식, 속박들의…)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보았던 그 별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지금도 선명히 길을 비추고 있다. 바로 곁에서 동행하시고 계신 주님의 손길이 포근하다. 예비하신 그 곳을 향한 동방박사의 여정은 어떠한 고난이 따를지라도 기쁨의 길 일뿐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정리해야 할 때에, 우리의 생명권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향하게 될 그 날에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라고 부족한 저희들도 부끄럽지 않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저 영원한 세계를 향해
우리의 짐을 불태울 수 있는 능력을주소서.
훗날 장송곡이 아닌 승리의 개선가를 부르며 그 나라로 떳떳히 향할 수 있게 하소서. Amen!

몽학선생 (夢學先生)



정 영 남집사
〈대학부 부감〉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4~25절에 몽학선생이란 말이 두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은 꿈에 대한 학문을 가르치는 교사라 해석하기 쉬우나 실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뜻이 있음을 밝히고저 한다.

〔낱말풀이〕

헬라원어 : 파이다고-고스($\pi\alpha\iota\delta\alpha+\gamma\omega\gamma o s$)=〈$\pi\alpha\iota s$ (어린아이,소년)+$\alpha\gamma\omega\gamma os$(붙잡아 인도하다, 안내하다) ※"주인의 아이를 맡아 인도하는 종"

영어성경 : school master(남자교원, 교장)
charge(관리, 보호, 책임)
custodian(관리인, 후견인, 보호자)

국문성경 : 몽학선생, 가정교사, 개인교사, 후견인, 스승.

이상과 같은 뜻이 있으나 성경에서 인용한 몽학선생은 우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율법이 몽학선생으로 이름을 바꾼 것이다. 그러므로 율법은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을 예비하는 몽학선생임을 가르친다. (갈3 : 19-25) 「몽학선생은 교사라기 보다 인도자로 생각된다. 몽학선생이 그 맡은 아동을 어떤 장소나 사람에게 인도하는 것처럼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믿게한다」 (박윤선박사 : 바울서신주석 p41참조)

율법에 대하여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므로 모세는 율법의 중보자이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만물의 영장을 삼으시고 여러가지 특징을 부여했으나 그 중에서도 이성(理性)을 허락한 것은 사리를 옳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라고 하신 조치이시다. 그런고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잠1 : 7)고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의 이지(理知)대로 판단하므로 하나님의 징계와 채찍이 항상 어리석은 자의 뒤를 따르게 하였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더 범죄치 못하도록 가두어 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율법은 구속의 능력이 없고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릴 뿐이며 그리스도께서는 저주 아래에서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자이시다. 율법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 그리고 율법은 죄인을 감옥에 가두어 더 범죄치 못하게 하는 간수의 역할이며 용사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때까지 율법은 몽학선생으로 죄와 의를 가르쳐 주는것

복음에 대하여

복음은 옛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말함이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으므로 예수님은 복음의 중보자이시다. 하나님은 한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중보도 한분이시니 곧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딤전2 : 5)고 하신 신약의 중보이시다.

우리는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와 합하였고 그리스도로 옷입었다.

복음은 축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었은즉 모든 신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복음의 씨가 하나님의 뜻에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나 그 자손이 다 함께 축복을 받게된 것이다. 그런즉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리스도가 주체요 율법은 그 주체를 보조하는 종이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인들에게 복음을 진실하게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단마음으로 믿게 하였다. 그러나 갈라디아인들은 어리석었다.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미혹하여 신앙에서 넘어졌으니 지조가 없는 신앙이었다. 아브라함은 율법의 시작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이 의를 얻은 것은 복음의 신앙에서 얻은 것이었고(창15 : 6)의를 얻은 결과는 할례를 행함으로 증거한 것에 불과하다.(창17 : 23-27) 즉, 아브라함은 구약에서 부터 믿음을 가지고서야 의를 얻었는데 지금에와서 믿는 사람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분명히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것이다. 율법주의자들이 제아무리 감언이설로 꾀인다 할찌라도 예수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신 것이 눈앞에 똑똑히 보이는데 이것을 부인하고 율법주의자들의 꾀임에 넘어가는 것은 참으로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도바울은 십자가를 재인식하라고 강조하며 믿음이 오기 전에는 몽학선생 아래 매인 바 되었으나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최고의 지식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최고의 지혜이다. 우리가 이미 얻은 축복을 스스로 빼앗기거나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말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몽학선생인 율법에 매여 살 이유도, 필요도 없는 것이다.

시편에서 줍는
주간의 만나

시62 : 1－2

선한 싸움을 바로 싸우는 성도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다윗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자기의 소욕이나 스스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봄이다라고 했다. 나의 중심이 나의 인격이 요동치 않고 굳게 서서 사람에게는 입을 봉하고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가지를 믿고 섬긴다. 산신, 석신, 목신, 수신, 등을 의지하고 기우제를 드릴 때는 뢰천지신 산천지신 대천지신을 써 붙이고 돼지를 잡아 제사를 한다. 바로 사람이 사람, 물질, 지식, 권세 등 별것을 다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란다 했는데 그것은 나의 구원은 오직 그에게만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 했다. 울어도, 힘써도, 참아도, 할 수 없는 인생이 흉악 중에 있어 무엇을 의지하고 구원을 얻으리요?

교회의 문제가 있으면 사람의 방법, 욕심에 포로가 되어 움직이지 말고 쓸데없이 원망말고 하나님만 고요히 바라는 것이 구원의 최대비결이다.

오직 저만이 나의 반석, 구원, 산성 즉 보호자, 피난처, 안식처가 되시니 내가 요동치 않으리로다. 인간인지라 처음에는 갑갑하고 원망할 수 밖에 없고 당황하지만 고요히 침착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때 요동하지 않는 법이니 하나님만 바라보아 요동치 않는 생활을 합시다.

시62 : 5－8

자기 백성에게 권면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에게 나의 소망 전부가 있고 그만이 나의 소망을 성공시켜 주신다. 요셉, 모세, 야곱도 하나님만 바라보아 소망을 이루었다.

다윗은 어려운 환란에서 구원함을 얻은 사실과 지금까지 누려온 대왕의 영광이 내 수단으로 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 하였다. 원수를 이긴 힘, 위험을 면한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며 보호라고 고백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정당한 백성들아 너희는 나와 같이 즐거운 때나 어려운 때, 젊을 때나 늙을 때 시시로 하나님만 의지하라. 공연히 마음이 흔들려서, 유혹을 받아서 갈팡질팡하지 말고 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다 토하라. 네 인간의 생각과 방법과 수단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기고 기다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만 하여라. 그 하나님은 나와 너의 피난처시니라 라고 권면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만 믿다가 그 다음에는 사람을 믿고 인간적 방법만 쓰고 하나님에게 그 중심을 털어놓지 않고 사람과 의논하면 필경 죄의 종이 되고 피난처를 헐어 버리는 위험에 자기가 들어가게 되니 하나님만 의지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삽시다.

시62 : 9－12

모든 것이 헛되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임김보다 경하리로다』

세상에서 지위도 없고 보잘것 없는 자들이 세상의 부패한 세력에 앞잡이들이 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한 일인가. 세상에서 높다고 뽐내는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거짓말을 너무 잘하고 있으니 그것도 잠시동안 뿐이다.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 보면 공기보다 더 가벼워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뿐이다.

인간의 권세 부귀영화. 당시에는 굉장하지만 가치없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한국의 이승만, 이기붕 세력 참 허무할 뿐이다.

그런고로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악을 고집하지 말며 약자와 정직한 자를 구박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 두었던 소망을 옮기지 말라.

그 세력 재산 다 꺾어지고 없어지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으로 처리되고야 만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권위있는 권세의 심판은 하나님의 형벌의 심판과 인자한 사랑 두가지로 나타나신다.

언제 어디서든지 어떠한 사건에도 낙심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신앙을 갖고, 권세, 돈이 있다고 뽐내지 말고 하나님의 인자함을받을 수 있는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사랑주시면 성공은 내것이니 성공적 삶을 위하여 힘쓰는 삶을 삽시다.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인도네시아 – 서 만 수 선교사

***기도 제목**

금년으로 비자연장 완료되는 현지 상황에 따라 앞으로 인도네시아 선교를 위하여

홍 콩 – 홍 종 만 선교사

1. 구룡지구 홍콩선교 교회(중국인교회) 창립예배에 참석
2. 일본인교회와 홍콩한인교회 연합예배 드림
3. 중국 심양지구와 기타 지역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성경우송을 확인함
4. 인도네시아 선교보조비 미화369불 송금
5. 마카오에 중국인교회 건립 계획
   ○ 소요경비 : 창립비 100만원
   월간유지비 20만원

***기도 제목**

1.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2. 마카오 중국인교회 건립을 위하여



〈마카오 개척교회 설립을 위해
애쓰시는 홍종만선교사〉

애 굽 – 김 신 숙 선교사

1. 카이로 한인 연합교회로 부터 한국 외무부 대사에게 보낸 공한에 의하면 고 이연호선교사 후임자의 시급한 파송을 요청하는 내용이 다음과 같이 왔음.
   "카이로 한인 연합교회의 입장으로서는 후임 선교사의 파송이 시급한 실정이며 또한 후임자의 조속한 파송만이 고 이연호목사께서 이제까지 이룩한 과거의 업적을 계승하여 계속적인 종교 활동과 선교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길이라고 사료되어 전 카이로 한인 연합교회 교인을 대표하여 간곡히 청원하오니 신임 이준교목사의 카이로 파송에 필요한 제반 절차에 수반되는 업무를 관계 당국과 협조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카이로 목회 활동이 종전과 같이 정상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 기도 제목**

1. 김선교사님과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2. 후임자의 조속한 파송을 위하여

서 독 – 육 호 기 선교사

1. 육선교사님 가정에 득남하심(아들이름 : 육 종승)

*** 기도 제목**

교회부흥과 교통안전을 위하여

호 주 – 김 태 현 선교사

*** 기도 제목**

교회부흥과 원주민 선교를 위하여

아르헨티나 – 백 성 룡 선교사

*** 기도 제목**

교회부흥과 선교사님의 가족을 위해

해외복음선교회가 제공하는

선교월보

서 독 - 박 용 삼 평신도선교사

박사학위 논문을 쓰시기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는데 그 일부를 소개하겠다.

할렐루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리면서 온 교회와 해외복음선교회 여러분들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주보 사이에 끼워 보내주신 8월의 기도 제목에서 부족한 저와 저의 가족을 위해서 교회에 기도를 부탁한 내용을 읽고 가슴이 벅차는 감사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읍니다. 쉬임이 없으신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에 힘입어 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여러가지 어려움들을 이겨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연호 선교사님의 순직 이래도 아직도 답답한 마음 금할 길 없읍니다만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 충현제단을 사랑하셔서 미망인을 다시 선교사로 임명하셔서 보내시고 이준교 강도사님을 또 파송하실 계획을 세우신 것 정말 슬픈 가운데서라도 놀랍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했읍니다. 또 오래동안 본 교회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시며 애쓰시던 백성룡목사님을 아르헨틴 선교사로 파송되셨으니 이제 우리 충현제단은 오대양 육대주에 복음 전하는 교회가 되었읍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저와 저의 가정도 계속 기도하겠읍니다.

김영휘전도사님께서 홍콩 등 동남아지역을 시찰하실 수 있도록 하신 것은 너무나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읍니다. 선교계획의 크게 보탬이 되는 여행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겠읍니다.

그러면 남아 있는 기간도 열심으로 노력하여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계속 기도로 밀어 주시며 지도와 편달해 주시기 바라옵니다. 교회에 우리 그리스도의 평안과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서 간구하겠읍니다. 안녕히 계십시요.

서독 튜빙겐대학에서 박용삼드림

일 본 - 유 병 세 평신도선교사

유선교사님은 일시 귀국하셨다가 8월18일 다시 임지로 떠나셔서 지금 선교 활동중에 계심

1. 새벽기도회 계속 시편 강해
2. 새벽기도회 때마다 전도의 결신자를 위해기도를 함.
3. 병원대합실 전도 실시
4. 환자 개인 전도 실시

선교본부 - 해외복음선교회

1. 선교회 회장이신 위영환장로님은 2~3개월 정도 미국에 계신 자녀들의 초청으로 도미하심.
2. 제2학기 선교주일학교가 개강되어 현재 공부중에 있음.

축 교회설립 26주년

해외복음선교회



회 장 위 영 환
부 회 장 한경일 김봉재
서 기 조 선 근
부 서 기 정 하 우
회 계 김 성 태
부 회 계 신 현 상

실행위원

강순용	김기정	김차생	위영환	조선근
최석주	한경일	김봉재	김순호	민순애
박순옥	안윤진	여옥기	유순녀	이의복
이영주	이옥녀	전순자	정봉조	정선화
김성택	김영환	남선우	신동수	신현상
이창업	정하우	김남조	문명애	박영업

성경통신 8월호

모 범 답 안

번호	정 답	번호	정 답
1	인도에서구스까지127도	36	화목
2	○	37	하나님의 말씀
3	다	38	다
4	라	39	가
5	나	40	성령
6	마	41	○
7	사	42	라
8	12월 13일	43	40 : 12
9	4 : 14	44	무소불능
10	나	45	나
11	왕과 하만(국무총리)	46	5 권
12	왕이 에스더에게	47	119 권, 176 절
13	부림절	48	복있는 사람
14	우스	49	여호와(하나님)
15	다	50	길에서
16	다	51	○
17	엘리바스	52	나
18	다	53	○
19	5 : 17	54	라
20	가	55	놋활
21	다	56	고멜
22	가	57	마 27 : 46
23	라	58	위험의 극단
24	나	59	나
25	마	60	○
26	가	61	7 번
27	다	62	나
28	바	63	원천, 광명
29	라	64	×
30	9 : 3	65	하나님
31	지혜, 모략	66	모르드개와 하만
32	다	67	나
33	17 : 9	68	66 : 12
34	다	69	요 2 : 17
35	가	70	○

8 월중 새 교우 명단

새 교우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1 지구

광희①구역 / 이광자 중구 오장동 127 26 / 1
삼양③구역 / 허옥자 도봉구 미아 5 동 447 - 23 6/1
광희①구역 / 이근애 중구 광희동 1 가 73 - 1 5/5
광희①구역 / 김명이 도봉구 미아 3 동 762 - 3 38/4

• 2 지구

신당②구역 / 정춘화 중구 신당동 233 - 52 15/1
중 화구역 / 김인석 동대문구 묵동 77 - 12 3/7
신당①구역 / 김순이 중구 신당동 386 - 91 4/1
전 중구역 / 최성심 동대문구 답십리 1 동 149 - 38 20/4
답십리구역 / 이금자 동대문구 전농 3 동 APT 5 동 205호
신당①구역 / 강종남 중구 신당동 235 - 275

• 3 지구

이태원구역 / 전효준 용산구 이태원동 261 23/8

• 4 지구

인현①구역 / 김동철 중구 충무로 4 가 147
화 원구역 / 이윤자 중구 충무로 4 가 94
진 양구역 / 이형래 중구 인현 2 가 192 - 30 신성APT 818호
신 길구역 / 박병채 영등포구 도림 1 동 77 - 104 3/5
시 흥구역 / 신명철 안양구 호계동 142부록 3 놋트 4/5

• 5 지구

효 자구역 / 김연순 종로구 옥인동 옥인APT 8 동 4 호
을지②구역 / 정영길 중구 방산동 150
초 동구역 / 한영석 중구 을지로 3 가 272번지 5 통 1 반
갈 현구역 / 정석란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동산리 129 - 44
화곡③구역 / 김명옥 강서구 신정 1 동 436 - 13 9/1
을지①구역 / 이정자 중구 입정동 84 3/4
을지②구역 / 윤영진 중구 주교동 203 - 1

새로 나오신 분은 장년새신자부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장년새신자부는 매주 오전 11시50분에 동관 3 층 장년새신자부실에서 모입니다.

*축하합니다(8월중 결혼)

정재모군과 김현미양 / 20일 12시 본 교회당에서

*위로 드립니다 (8월중 별세)

이용흡씨(삼선구역) / 31일 별세, 2일 장례

구역권찰회 인사이동

구역장 경질 장충②구역 박철구집사를 면하고
한 복집사를 명함

구역원에게 알려드립니다.

① 매일 구역단위 철야기도회가 모입니다. 각 구역원은 늘 주보를 보시며 해당구역의 철야기도회를 기억하시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구역단위철야기도회는 매일 오후10시에 시작합니다.

② 월간충현 9월호에 지난달에 못 실린 구역공과 23, 24과를 싣습니다. 많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10월 구역예배 공과인 25, 26과도 실립니다. 구역예배에 많이 참석하시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데 열심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③ 구역요원 특별훈련이 10월 1일 오후 7시 모입니다. 구역 담당권사, 구역장, 권찰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 권찰수첩⑧ *

추계 대심방을 못하는 이유와 그 대책

김 재 창목사 (부목사 · 구역권찰회회장)

매년 봄 · 가을 2차례에 걸쳐 온 교인의 가정을 심방하던 대심방이 금년에는 가을 대심방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대심방의 중요성과 그 의의 등을 모르는바가 아니나 어쩔 수 없는 여건으로 실시하지 못하게 됨으로 온 교인이나 교역자가 모두 섭섭하고 안타까운 마음이다. 이에 서로의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가을 대심방을 못하는 이유와 그 대책을 밝히려 한다.

1. 금년 가을 대심방을 못하는 이유

1) 민족복음화의 일환인 군전도에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군종 하사관과 사관생도의 훈련이 잦게 됨으로 여러 교역자가 현지 출장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에 심방에 전력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2) 교역자들의 업무량 증가로 기한내 전체 신자의 가정심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3) 내년부터 대심방을 봄과 가을로 나누어 년 1회씩만 실시하게 되는데 그것을 금년부터 앞당겨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2. 대 책

1) 성도 여러분 각자가 주일 성수는 물론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과 전도하며 헌신, 봉사하는 모든 분야의 책임에 충실하여 내 믿음을 내가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자.

2) 유고심방과 목회상담을 통하여 신앙성장을 돕고 갖가지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려고 한다.

3)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혹 어려운 일이나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직접 연락하시든지 구역권찰님들을 통하여 꼭 알려 주시기 바란다.

4) 각 구역 권찰 여러분께서는 교인들과 그 가정의 변동사항(이사, 건축, 개업, 결혼, 출생 병고, 입원, 퇴원, 재난, 이민, 별세, 기타 감사할 일, 기도할 일 등)이 있을 때마다 지체하지 말고 전화로나 구두로 담당 교역자에게 보고하여 주어야 한다.

5) 신앙문제로 고민하는 구역원이 있을 때 심방을 요청하든지 교회에 나와 교역자와 상담 할 수 있도록 친절히 안내하셔야 한다.

6) 구역심방과 구역집회 구역단위 철야기도회를 통하여 성도간의 사랑의 유대를 갖고 신앙성장의 도움을 얻게 하며 교회봉사와 천국건설의 역군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7) 특별심방이나 상담을 원하는 교인들에게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부담을 갖지 않게 하고 본교회 모르게 타교회 교역자나 소위 은사받은 사람을 청하여 가정제단 쌓는 폐단을 조장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제23과 화목제(和睦祭)

읽을 말씀 : 레3 : 1 -17

"화목제"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제바흐셀라밈" 인데 "화목제의 희생"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화목제는 하나님의 어린양이 되시고 우리 영혼의 식물이 되시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화목제를 "평안제" "감사제" "구원제"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 감사제

화목제는 번제와 같은 자신의 전적 헌신이나, 소제와 같이 자아 검손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죄받은 자가 기뻐서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과의 영교(靈交)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집안에서 같이 감사의 식탁을 갖는 축제를 말한다. 그러므로 화목제의 특성은 축제의 제사이다.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받지 못한 자는 하나님과의 즐거운 영적관계를 맺지 못한다.

이때에 드려지는 예물은 일부분은 하나님의 제단에 화제로 드리고, 다른 부분은 제사장과 그의 가족에게로 돌아가며, 남은 부분은 예물을 드리는 자와 그의 일행이 회막 안에서 먹는다.

이와같은 의식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영적교제로 인해서 생긴 기쁨과 즐거움을 사실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와 보호하심에 대한 겸손과 감사의 표현인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관계를 확고히 하며, 성직자와 친구들과 평화와 우정과 우애를 돈독히 하는 것이 화목제의 근본원리다.

이것은 성만찬의 예표이기도 하다.

2. 화목제법

①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어야 한다. 흠이 없는 예물만이 하나님께 열납된다. 그러므로 흠없는 예물을 드리려면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유 1 : 24 - 25)

②예물을 드리는 자는 예물의 머리위에 안수를 해야 한다. 이것은 동물에게 자신의 죄의 전가(轉嫁)를 뜻하고, 동물의 대속적 고통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속의 고통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생생하게 보여 주셨다.

③제물은 "회막문"에서 잡아야한다. 문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양의 우리에 들어갈 수 없다. (요10 : 7 - 9, 14 : 16)

④피는 제단 사면에 뿌려야 한다.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밖에 없다. 피흘림이 없으면 사죄도 없다. (히9 : 22) 그 사죄의 은총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다. (요일1 : 7)

3. 생축의 기름으로 화제를 삼음

화목제에서는 생축의 내장에 있는 기름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렸다.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했다. (레3 : 3 -5 , 9 - 10, 15 - 16)

이것은 다음의 중요한 뜻을 내포한다.

①기름은 제물 중에 가장 값진 것을 가리킨다. 시 63:5에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고 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먼저하며,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 중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②이와같은 제물은 우리의 감사가 속에서 나와야 될 것을 가르쳐 준다. 시 103 : 1 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고 했다. 우리의 감사는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마음 속 깊은 데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감사를 드려야 한다.

4. 결론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기쁨은 하나님과의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짐승을 잡아서 희생제물로 드리기 전에는 성막이나 또는 잔치에 참석하지 않았다. 반드시 양이나 염소의 피로 속죄를 행한 뒤에 제사장과 백성들이 주 앞에서 기쁨을 나눌 수 있었다 이것은 첫째가 정결이요, 둘째가 평화라는 뜻이다. 그 후에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식탁을 마련할 수도 있고, 장차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기를 갈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진정한 회개와 용서가 없이는 결코 어린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없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회개를 하고, 그의 속죄제사를 신뢰한 후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과 같이 잔치에 참석해야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요일2:2)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하게 되어진 (롬5 : 10) 성도들은 날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정한 감사와 찬미의 제사를 항상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히13 : 15)

질문

1. 날마다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가?
2. 성도간에 진정한 우애와 우정이 있는가?
3. 항상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제24과 속죄제 (贖罪祭)

읽을 말씀 : 레 4 : 1 - 35

속죄제란 말의 히브리어는 "죄" 란 뜻이다. 속죄제는 사람이 연약하여 지은 죄를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제정된 것이다. 번제, 소제, 화목제는 자발적으로 마음의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려졌으나, 속죄제는 명령적이다.

이스라엘 족속이 순간적인 범죄라도 행했을 때에는 예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했다. 엄밀히 말해서 예물로 드리는 제물 자체는 죄를 깨끗케 할 만한 효력이 없으나 상징적인 면에서 볼 때 효과가 있을 것이므로 제사에는 반드시 예물이 있어야만 된다. 우리의 사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피의 구속 사역을 통해 완수되었다. 그리고 속죄를 위해 드린 이 예식은 신약시대의 세례의 예표가 되었다.

1.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

엄숙한 종교의식, 개인의 양심이 하나님과 영적 친교가 상실 되었다고 의식할 때, 불결한 것을 만졌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터 범법행위자로 규정되었을 때 등등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했을 때에는 속죄제를 드린 후에 비로소 성민의 반열에 참석할 수 있었다.

2. 속죄제는 신분에 따라 구별된다.

(1)제사장을 위한 속죄제 (4 : 1 - 12)

제사장이 모르고 지었을 경우 그도 속죄제를 드리라고 했다.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사장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위치에 서 있는 것이며, 그의 성직자로서의 직책이 전혀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다.

㉠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제물로 삼는다. (3절)

이것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드리는 속죄제물과 같은 제물이다. (14절)

그런데 다른 지도자나 일반사람들은 "수염소"를 드리게 된다. (23, 28절)

이것은 제사장의 피가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나 사람에 대한 그의 신분과 지위의 고위성이 그의 범죄를 매우 무겁게 하는것이다.

㉡ 제물을 드리는 자의 손으로 그 제물의 머리를 안수해야 한다 (4절)

이것은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엄숙한 회개의 고백을 뜻한다 (레16 : 21).

죄의 고백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 (시32 : 5, 잠28 : 13)

㉢ 수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향단 뿔에 바르고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아야 된다.

이 의식으로 죄인이 자기의 피가 그렇게 물처럼 땅에 쏟아졌어야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 짐승의 머리와 몸, 가죽과 기타 모든 것은 진밖으로 내다가 태워 버렸다. (11, 12절) 이것은 매우 의의 있는 행동이다.

첫째는 회개의 의무를 뜻한다. 회개란 우리의 영혼이 증오하는 죄를 제거하는 것이다.

둘째는 사면의 특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실 때 그 죄를 완전히 도말하시고 내던져 버리신다. (렘50 : 22, 히13 : 11 - 13)

(2) 회중을 위한 속죄제 (4 : 13 - 21)

전 회중을 위해 제사를 드릴 때는 장로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물의 머리에 안수 하도록 되어 있다.

㉠ 이 속죄제물의 피는 "여호와 앞에서 7번 뿌리라"고 했다. (17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와 그것으로 인하여 신실한 영혼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심을 의미한다. (히10 : 14참조)

㉡ 그 피는 향단 끝에 뿌리라고 했다. 성경에서 향은 성도의 기도를 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기도는 제단의 끝에 뿌려진 속죄제물의 피로 인하여 열납되고 유효됨을 나타낸다. (계8 : 4 - 5참조)

㉢ 제사가 완료되면 "속죄가 이루어 졌으니, 곧 그 죄는 사함을 얻는다"고 했다. (20절)

즉 전 민족의 심판이 돌이켜 지고 용서 된다는 뜻이다. 나라와 민족의 구원은 그리스도의 속죄와 중보에 의해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3) 족장을 위한 속죄제 (4 : 22 - 26)

하나님은 지도자들의 죄를 주목하시고 노여워 하신다. 남을 다스리는 권력자들도, 통치자 중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는다.

㉠ 아무리 신하거나 위대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양심의 가책과 친구들의 책망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23절)

㉡ 족장을 위한 속죄제물은 수염소이다.

다른 평민들은 암컷을 드려도 된다. (그것은 가치에 있어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죄악은 하나님께 더욱 나쁜 범죄가 된다.

그러므로 교회나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범죄는 심각하게 취급된다.

(4) 평민을 위한 속죄제 (4 : 27 - 35)

㉠ 평민의 하나가 범죄 했으면 속죄제물로 암염소를 드린다.

㉡ 하나님은 평범하고 낮은 사람의 부지중에 범한 죄도 제사를 요구 하신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비난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듯이, 아무리 미련한 자라도 하나님의 정의의 관할구역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3. 속죄제가 주는 교훈

(1) 죄를 미워하며 경계하라는 것이다. 속죄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흠없고, 유용한 짐승들이 죽임을 당하고 찢겨져야 한다는 것은 실로 매우 불행한 일임에 틀림없다.

(2) 그리스도 곧, 참된 속제제물의 신 그리스도의 진가를 바로 알라. 그의 피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유대인은 물론 이방인을 위해서도 그리 하신다.

(3)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는 지도자들은 더욱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고 모든 성도들과 평민들에게 본이 되어져야 한다. 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온 백성을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질문 : (1) 날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딤전 2 : 1 - 2)

(2)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밑에서 사는가?

(3) 나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내나는 기도인가?

제25과 나실인

읽을 말씀 / 민 6 : 1 - 21

나실인의 의미는 하나님을 "구별된 자"를 가리킨다. (2절) 나실인의 서약은 평생토록 하는 것도 있고, 일정한 기간만 한정된 것도 있다. 삼손,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평생동안 나실인으로 살았고, (삿13 : 5, 눅 1 : 15) 사무엘은 자기부모의 소원에 따라 일생을 나실인으로 살았다. (삼상 1 : 11)

이 제도는 영적으로 절대 완전하게 하나님께 헌신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1. 나실인의 규례.

나실인의 규례에서 나실인이 구별해서 떠나야 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자체적으로는 죄가 되는 것은 아니로되 진정한 나실인의 철저한 헌신의 마음을 방해 하는 것들이다.

1) 나실인은 포도주를 마셔서는 안된다.

어떤 형태, 어떤 모양이든 포도나무에서 나온 포도열매는 나실인에겐 금물이다. 포도주나 독주, 포도씨나 껍질, 건포도 조차 먹어서는 안된다. (3 - 4절)

왜냐하면 포도주는 세상 향락의 상징이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쉽사리 탐익할 수 있는 세속적인 기름의 표현인 것이다. 나실인은 이것에서 부터 자기 자신을 구별해서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

나실인은 강주(强酒)로 기분을 흥분시켜서는 안된다. 그가 구별되어 있는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삼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육의 모든쾌락 및 단순히 이 세상의 모든 쾌락에서 부터 철저하게 분리하는 의미와 능력에 어느 정도 까지나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것을 실로 중대한 문제이다.

혹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 조그마한 재미나 오락등에 무슨 손해가 있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즐길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지 아니 하셨는가?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을 즐기는 것이 권리가 아닌가?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한다. 그것은 이것 혹시 저것 또는 어떤것을 접촉함으로 받는 손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일반적인 법칙으로 보면 포도주에는 해가 없다. 포도나무에도 무슨 나쁜 것이란 없다.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다. 나실인이 되고자 한다면, 주님께 거룩히 구별 받은 자가 되기를 갈망한다면 포도주나 강주의 사용에서 전적으로 삼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을지 모르나, 나실인은 거기에 접해서도 안된다.

우리가 진정 몸과 영혼에 있어서, 하나님께 철저히 구별된 자로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기를 갈구한다면 우리는 단순한 육의 쾌락을 즐기고 있는 모든 것에서 부터 분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보기에 하찮것 같은 것인지 모르나 그것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줄을 끊고, 우리의 거룩성을 빼앗

아 가는 것이라면 아무 것도 하잘것 없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머리를 깎아서는 안된다. (5절)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는 것이 권위를 결여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전 11 : 14)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살기를 간구한다면 우리의 권위를 포기할 준비가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온전히 이 일을 행하셨다. 그리스도는 자신을 명성있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다. 모든 것에 있어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셨다.

우리가 나실인이 되고자 한다면 육의 권리를 포기하고 세상의 쾌락을 버려야 한다. 이 세상사람들은 모든 것을 즐기며 그들의 온갖 힘을 다해 그들의 권리와 그들의 권위를 유지하려는 것이야말로 온전히 정당하며 자연적이며 타당할 것임이 분명할 것이나, 하나님의 나실인에게는 부적당하며 부자연스럽고 부당한 것이다. 하나님과 세상, 육과 영은 합하지 않으며 합할 수도 없다.

진실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전심으로 헌신의 길을 추구해 나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세상의 쾌락에서 떠나 육의 권위와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 그러므로 나실인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침이 되었으니만큼 자기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식한다는 표식이 된다.

3) 시체를 가까이해서도 안된다. (6~12절)

이것은 상징적인 교훈을 준다. 죽음은 죄악의 결과이다. (창 2 : 17, 3 : 19) 이와같이 나실인은 죄는 멀리하는 의미에서 시체도 멀리하도록 되어있었다. 부모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렇다. 왜냐하면 자기 친척들에게 지나친 애정을 기우려서 그들이 죽었을 때 하나님께 대한 기쁨과 복종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마 8 : 21-22)

만일 그가 부지중에 시체를 가까이 했을 경우엔 그는 다시 지켜야 할 규례가 있다. 그것은 엄격하여 하나님께 이중으로 제사를 드리게 될것이다. 첫째는 그 더러운데서 정결함이 되게하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둘째는 하나님께 자기자신을 다시 바치는 의미로 속건제를 드린다.

그가 부지중에라도 자기자신을 더럽히게 된 것 때문에 이렇게 여러번 제사를 드리게 된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가르쳐 준다. 곧, 나실인과 같이 특별히 성결하게 헌신하는 자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이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범한 과오도 원통히 여겨 깊이 회개하고 또 심각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다.

2. 맺는 말

하나님의 나실인들은 자기들을 정결하게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힘을 잃는다. (삿 16 : 16-21) 나실인들의 경우엔 정결과 힘은 불가 분리적이다. 그들은 내적 거룩이 없이는 진행할 수 가 없다.

그런 즉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는 말을 명심하고 있어야 한다. 거룩이 나실인의 모든 날의 아름답고도 불가결한 특징이다. 그런즉 거룩이 탈취 당하면 나실인의 신분은 끝이 난 것이다.

질문 : ① 내가 끊지 못한 향락은 없는가 ?
② 모든 생활에서 하나님께 절대 복종하고 그 권위 앞에 순종하는가 ?
③ 부모 형제 자매 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가 ?

제 26과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읽을 말씀 / 민 11 : 1-23

1. 여호와의 불 (11 : 1-3)

1)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나온다.

그것은 하나님을 원망함에 있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출발에서부터 하나님이 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편의를 제공하시고, 좋은 물을 먹이고, 여행중에도 많은 보호를 하셔서 저들의 발이 부풀거나 의복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신것을 생각해 볼때 (신 8 : 4) 범사에 감사할 일인데도 그들은 원망장이 들이었다. 신앙이 부족한 자는 하나님의 좋은 은혜를 받고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한다.

2)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원망하는 죄를 범해 왔다 (출 14 : 11, 15 : 24, 16 : 2, 17 : 3 참조) 그러나 그럴때마다 그들의 불평에 대한 재앙이 내렸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그들을 보살펴주시는 하나님의 큰 관심과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불신한다. 그일은 더 이상 용서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하나님의 불을 내렸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보게된다. 그 불이 진 끝을 사르게 하셨다는 점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중에도 큰 은혜를 베푸신다.

3) 중재자 모세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실 분인 여호와의 모형이다.

2. 만나 (11 : 4—9)

만나의 모양은 진주와 같고 그 맛이 기름절은 과자 맛 같았다고 묘사한 것을보아 만나가 매우 먹음직하고 또 좋은 음식이었음을 알게된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좋은 음식을, 그것도 그들이 노력하나 없이 거져받아 먹는데도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했다"(6절) 만나는 그리스도를 비유한 음식이다 (요 6 : 31—32) 그러므로 그리스도처럼 이스라엘에게 거저주신 선물이었고, 만나는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에게 충족하게 내렸으며 만나는 날마다 내렸으니 그와같이 성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매일 신령한 양식을 받아야 된다.

3. 지도자의 낙심 (11 : 10—15)

이스라엘의 원망때문에 모세 자신도 신앙적으로 약하여져서 하나님께 애소(哀訴)하는 기도가 기록되었다.

1) 하나님께서 모든 백성을 자기에게 맡겨 자기를 괴롭히신다고 함 (10—12)

2)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수 있는 고기가 없다고 탄식함 (13)

3) 그가 죽기를 원함 (14—15)

그러나 이것은 모세의 잘못된 판단이요 그의 불신앙에서 나온 일시적인 낙심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셨으나 사실상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난제들을 홀로 해결해 주시지 않았던가? 이스라엘의 모든 짐을 참으로 부담 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시 68 : 19) 그리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실 수 없는가? 그리고 마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구한것 처럼 (왕상 19 : 4) 피로워서 죽기를 간구한다는 것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순종이다. 그러나 은혜가 많은 사람도 시험에 빠지면 탈선된 행동을 하게된다.

그러므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한다 (고전 10 : 12),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주기도 (마 6 : 13)을 날마다 드려야 한다.

4.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11 : 16—23)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백성에게 각각 필요한 난제를 해결해 주신다.

1) 모세의 무거운 짐을 덜기 위해 장로 70인을 세워 별도로 세우라고 하심 (16—17)

보조자들을 세워 모세로 하여금 그의 일을 더욱 손쉽게 해주셨고 그 백성의 짐을 질 수 있도록 해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모세에게 주셨던 지혜와 사랑과 용기의 영을 부어 주시겠다고 하였다. 그렇다고해서 그들이 모세와 동등해진 것은 아니고 여전히 모세를 필적할 자는 없었다 (신 34 : 10)

2) 고기먹기를 원하는 백성에게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심 (18—20)

여기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 보다는 경고하신 것이라고 함이 좋겠다. 즉 그들은 고기는 실컷 먹게 될 것이다. 하루, 이틀, 닷새, 열흘, 이십일이 아니다. 한달동안 고기잔치를 갖게 될 것이다. 코에서 냄새가 나 싫증이 날때까지 먹게 될 것이다 (19—20) 그런데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의 실현가능성을 의심했다 (21—22) 마치 벳세다 들밖에서 제자들의 반문과 똑같다 (막 8 : 4)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제공해주신 하나님이 이제 그와같은 방법으로 그 무한한 권능을 동원하여 그들에게 다시 고기를 제공할 수 없다는듯이 그들의 수효가 너무 많다고 이의를 제기했던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소유자시며, 온 땅의 창조자되시는 하나님께서 장정 60만명분의 고기를 공급하실 수 없을까, 신앙은 하나님을 모든 일의 정면에 위치시킨다. 그런고로 신앙은 어려운 점이라고는 절대적으로 모른다. 그렇다, 신앙은 불가능을 조소한다. 신앙의 판단에 의하면 하나님은 모든 문제의 아름다운 해답이다. 하나님은 온갖 난점의 아름다운 해결책이다. 신앙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돌린다. 그런고로 고기를 먹어야 할 대상이 60만명이든, 혹은 60억이든 신앙인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불신앙은 "그런일, 저런일들이 어떻게 해결되느냐" 묻는다. 불신앙은 "어떻게"라는 말투성이다 그러나 신앙은 일만 종류의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해 하나의 위대한 해답이 있다. 그 해답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23)고 도리어 반문하신다.

애굽에서의 재앙과 홍해를 육지처럼 만드신, 바위를 갈라 물을 내신, 하늘에서 떡을 비같이 내리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없어졌다는 것인가? 하나님은 과거 당신의 행적에 권태를 느끼신 것인가?

아니다 결코 하나님의 손은 짧아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교사·학생 출석동향

교 사

8월의 교사 출석률은 94%로서 7월에 비해 낮아졌는데 이는 올 들어 제일 낮은 수준이었다.

매해의 월별 교사 출석 통계를 보아도 어느해나 8월의 출석률이 가장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하절기의 무더위와 휴가기간이라는 원인이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

8월의 교사 재적수는 474명으로 올들어 1월 이후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 1월 이후 8월 말 현재 교사 증가수는 445명에서 474명으로 29명이며 이는 6.5%가 증가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의 학생 증가율 8.3%보다는 낮은 것이지만 1월부터 8월까지의 학생 증가수가 340명인데 교칙에 따라 평균 1학급 학생수를 15명으로 한다고 할때 실제적으로는 23명 정도의 교사만 증가되면 된다. 이렇게 본다면 실제 교사 증가수는 6명 정도였다고 말할 수 있다.

학 생

교사와 마찬가지로 학생 출석률은 64%로서 올 들어 가장 저조한 형편인데 매해의 월별 학생 출석통계 또한 언제나 8월이 가장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일년중 8월에 가장 낮은 출석률을 보이다가 점차 증가하여 12월에 이르러 항상 최고의 수준을 이루는데 이같은 출석동향은 앞으로의 남은 행사계획에 참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7월에 비해 8월중 학생 출석률이 상승된 부도 있는데 고등부와 장년부 뿐이고 다른 12개 부는 모두 하락되었고 선교부는 휴강이었다.

8월말 현재 학생 재적수는 모두 4416명으로서 이는 1월의 4076명 보다 340명이 증가된 숫자이며 출석수는 2772명 에서 2997명으로 225명이 증가된 것이다.

이제 9월과 10월에 걸쳐 주교각부가 가을 전체학생심방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9월과 10월의 학생 출석수는 8월에 비해 급증할 전망이다.

8월 주교 인사이동

● 교사임명

영어부 : 정 옥 남(여) 정 교 사
초등부 : 정 수 일(남) 정 교 사
차 의 숙(여) 정교사
이 영 수(여) 임시교사
유요안나(여) 임시교사
노년부 : 박 우 순(여) 임시교사

● 교사퇴임

초등부 : 박철구(남) 임시교사
안신덕(여) 정 교 사
이소규(여) 정 교 사
강병례(여) 임시교사
박현옥(여) 임시교사
홍화숙(여) 임시교사
김윤희(여) 임시교사

고제원 집사이민

월간충현에서 간사로 수고하던 고제원집사가 지난 9월13일(목) 이민차 미국으로 갔다. 고집사는 월간충현에서 수고하면서 대학부 교사로 남전도회 지육부차장으로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다방면에서 충성해 왔다.

8월 지교회 현황표

지원부서	교 회 명	교역자명	위 치	출 석		헌 금	
				7월	8월	7월	8월
전도위원회	태 평 중 앙	조 후 연	충남 대전	69	72	509,215	298,650
전도위원회	화 정	강 태 희	경남 의령	23	25	205,010	164,470
전도위원회	영 광	김 성 환	경기 성남	18	17	87,410	609,40
전도위원회	육 군 본 부	최 용 범	육 본				
남전도회	장 락	정 기 용	경기 가평	23	30	48,675	49,565
남전도회	금 현	원 치 연	경기 여주	13	17	61,120	27,445
남전도회	서 헌	박 창 덕	강원 인제	15	6	52,925	38,065
여전도회	광 염	최 동 호	경기 시흥	81	80.5	412,935	212,330
여전도회	매 현	김 요 석	충북 매포	36	44	198,734	176,880
여전도회	강남시립병원	신 옥 희	강남구				
청 년 부	신 현	강 성 철	강원 정선	20	45	48,090	70,390
	부 현	최 봉 철	강원 인제	25	18	79,650	59,206

추계성례식, 10월 11일-14일



우리 교회에서 1년에 2차례씩 갖는 성례식중 추계 성례식이 오늘 10월 11부터 14일까지 열린다.

성례식은 학습세례 문답과 세례식 및 성찬예식으로 나뉘는데 특히 성찬 예식은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함으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몸으로 지키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희생의 은혜를 영구히 기념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양육되고 자라게 하며 그리스도의 신비적인 지체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상호관계를 맺게 하여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자신을 바쳐 속죄의 제물로 십자가상에서 이룩하신 일을 기념하는 행사라고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은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성찬식은 예수님이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과 포도주을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 떡과 포도즙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최후의 유언을 따라 시작된 것으로 구약의 유월절을 대신하여 세우신 것이다. 주님의 이같은 명령에 따라 교회는 수시로 성찬식을 갖는데 우리 교회는 일년에 봄과 가을에 두차례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추계성례식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학습·세례·유아세례문답식/10월11,12일
세례식 / 10월 12일
성찬식 / 10월14일 (1~4부 예배시)

20년 근속 표창

교회는 지난 9월 2일 교회설립 26주년을 맞아 20년 근속자를 표창했다. 이 표창식은 9월 2일 3부예배시에 행해졌다. 표창자는 위영환, 최석주 장로와 양정백, 이희원, 김정례권사 등 5명이다.

청년부 면려회 총회

주일학교 청년부는 지난 9월 16일 면려회 정기총회를 갖고 79년도 사업보고와 80년도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 신임회장 에는 김경생집사, 부회장에는 노경로·강경자씨가 선출됐다.

28일, 장로투표

당회는 오는 10월 노회에서 장로청원 허락을 받아 오는 28일 주일에 장로 투표를 하기로 했다. 이번에도 전번과 같이 7명의 장로를 투표할 예정이다.

부흥회마쳐

지난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4박 5일간 광주군소재의 중현기도원에서 부흥회를 가졌다.

새벽, 낮, 저녁으로 모인 이부흥회에는 서대 신용산교회의 정문호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열렸다.

새벽기도회, 낮 성경공부, 저녁 부흥회로 모인 금번 부흥회에는 매일 300여명의 교우가 참석하였고 14일(목)에는 9월 교회전체 철야기도회를 기도원에서 함께 모이기도 했다.

축 교회설립 26주년

권 사 회



회 장	양정백		
부회장	신군자	김상권	
서 기	백죽섬		
회 계	신 숙		
부서기	장순실		
부회계	윤희순		
봉사부장	나화봉	차 장	김창란
섭외부장	이덕순	차 장	손명순
친교부장	정봉조	차 장	서 옥
지육부장	남숙덕	차 장	오희명
음악부장	박순봉	차 장	박샐자
심방부장	이희원	차 장	조활숙

계속되는 구역철야

지난 8월1일부터 실시 한 구역단위 철야기도회가 매일 계속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우리 교회의 당면한 문제를 놓고 하루라도 불이 꺼지지 않는 제단으로 하고자 지난달 1일부터 시작한 구역단위철야기도회는 날이 갈수록 많은 성도들의 호응으로 열을 더하고 있다.

이 철야기도회는 매일 저녁 10시에 시작해서 해당일 담당 교역자의 인도로 자정까지 예배 및 기도회를 가지고 자정 이후에는 각자 개인기도 시간을 갖고 있다.

350여명에 군종훈련

육군 ○○○부대의 군종요원훈련을 지난 9월 3~6일에 있었다. 전도위원회가 주관한 이 군종요원 훈련은 350여명이 훈련을 받고 십자가의 정병으로서 새롭게 무장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금번 군종요원훈련의 특징은 이제까지 연대 내지 대대급 단위의 군종요원을 대상으로 훈련을 실시했으나 금번에는 소대 단위 군종요원에게 훈련을 함으로 실제적으로 훈련받은 바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와 의의가 있었다.

토 막 소 식

*…**영아부**는 8월14, 15일 김재창목사를 강사로 모시고 "바람직한 부모상"이란 제목하에 학부모 교육을 가졌다.

*…**유년부**는 8월20일 영아부실에서 이두란 전도사를 모시고 "심방에 관하여 "교사특강을 실시했다.

*…**초등부**는 8월 9일 초등부 면려회 회원 친교회를 대능 푸른 동산에서 가졌다. 이날 친교회는 김석원 전도사가 인도·진행 했다.

*…**장년새신자부**는 8월 16 일 장년새신자부실에서 학생신앙 간증회를 가져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증회에는 6명의 학생이 나와서 간증했다.

*…**중등부**는 8월12, 19일 장충공원으로 36명의 학생이 노방전도를 나갔다.

*…**청년부**는 8월14일, 청년부실에서 설교발표회를 가졌다. 이날 발표회는 174명의 청년부 학생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새가정부**는 8월 26일 엄필성집사를 강사로 모시고 새 가정정의 구강위생이란 제목의 특강을 들었다.

충현기도원 안내

〈교 통 편〉

1. 교회버스편
   - 매주일 저녁예배 후
   - 매주 수요일 저녁예배후 교회 앞에서 출발합니다.
2. 시외버스편
   - 마장동 시외버스 터미날에서 이천·여주 방면 완행버스를(20분 간격) 타고 초월면 사무소 앞에서 하차하시면 됩니다.

〈주 소〉

130-12,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대쌍령리

〈전 화〉

교환 101번을 지셔서「경기도 광주초월 14」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각 종 통 계

1979. 8. 5 (매월첫주기준)

구분			남	여	계
집회	예배	주일낮 Ⅰ부	215	401	616
		주일낮 Ⅱ부	411	954	1,365
		주일낮 Ⅲ부	343	751	1,094
		주일낮 Ⅳ부	170	334	504
		주일저녁	211	372	583
		삼일	133	307	440
	주일학교	어린이새신자부	29	39	68
		장년새신자부	114	122	236
		영아부	150	138	288
		유치부	162	154	316
		유년부	188	195	383
		초등부	21	63	84
		중등부	141	136	277
		고등부	138	147	285
		대학부	54	64	118
		청년부	65	122	187
		장년부	18	276	294
		노년부	34	94	128
		산교육부	24	101	125
		새가정부	17	20	37
		선교부			
		계	2,638	4,790	7,428

신급별 교인현황

총세대수			3,218
교인총수	남		3,039
	여		4,530
	계		7,569
세례교인	남		1,698
	여		3,033
	계		4,731
유아세례	남		441
	여		344
	계		785
학습교인	남		275
	여		374
	계		649
환입교인	남		625
	여		779
	계		1,404

축 충현교회설립 26주년



禹基田漢醫院

〈漢方內科, 婦人科, 針灸科〉

원장 우 기 전 장로

서울 · 성동구 홍익동 202
(경찰병원입구)
254 - 8873

株式會社 **한국써프라이**



대표이사 안 중 현 집사

서울 · 영등포구 여의도동 1 - 696
782 - 6691~4

종 합 상 사

〈금성 · 삼성 · 대한 · 화신 및
가전제품 신품 도산매〉



대표 오 정 수 집사

세운상가 가동라열 - 335호
266
~~269~~ - 9226

화 성 상 회

〈의류부자재, 실, 단추,
재크, 바늘 도매〉



대표 趙聖行 집사

서울 · 종로구 예지동 247번지
(동대문 시장내)
267 - 2512

株式會社 **中央染織**

(各種化纖染色)

社 長 韓 明 奉 長老
副社長 崔 石 柱 長老

京畿道 龍仁郡 龍仁邑 502 - 1
전화 1335 - 3105~6

남 영 섬 유

〈화섬, 고압염색, 가공〉



대표 남 선 우 집사

제 1 공장 - 중구 오장동 206 - 6
267 - 4927 261 - 0715
제 2 공장 - 성동구 성수동 300 - 5
445 - 6738, 446 - 7547

고 려 문 화 사

〈사진식자 · 인쇄일체〉



대표 김 과 경 집사

중구 을지로 3 가 296 - 11
(명보빌딩 3 층)
265 - 9746

청산전자산업주식회사

〈전자부품 · 콘덴사류〉



대표이사 한 경 일 장로

강남구 풍납동 357 - 14
48 - 2646

축 충현교회설립 26주년



정음서림

성경 · 찬송가 · 종교서적
및 일반서적 도산매〉

대표 김 기 정 장로

서울 · 중구 을지로 2가 70-1
대체구좌 503268
776-7897, 7102



松林商社

〈건축 자재 판매〉

대표 李 炳 學 집사

서울 동대문구 망우2동 487-16
434-5165

株式會社 敬 天〈貿易〉

敬天染織株式會社

〈섬유제조〉



代表理事 申 東 數 집사
代表理事 申 東 錫

종로구 인의동 25 (763-7951~5)
경기 부천시 삼정동 34-2 (66-0660)

송월타올영업부(경북상사)

(타올, 시-드도매 보자
기 제조)



대표 최 대 원 집사

서울 종로 5가 193-7
(동대문극장 정문옆)
266-7715, 269-0026 나염공장

有實農園
宇宙洋行

〈各種 表面 處理〉



대표 金 鍾 周 집사

서울 · 마포구 신정동 2의2
35-6453

수 도 사 장

〈각종기념출사환영
기념앨범 제작 전문〉



대표 송 기 홍 집사

서울 · 돈암동 국민은행 옆
92-0922

五色社 • 五多社

(구슬 · 스판글 ·
악세사리 제조판매)



代表 朴 稚 民 집사

사무실 : 중구 남대문 3가 30-10
공장 : 영등포 신도림동 770-3
23-2304 68-2626

9월의 행사

2일	정기제직회 · 산업전도회 월례회 · 재정위원회
9일	남전도회 헌신예배 · 남전도회 · 권사회 월례회
11~14일	기도원에서 부흥회 (강사 : 정문호목사)
12일	교회전체 철야기도회 (기도원에서)
16일	여전도회월례회 · 재정위원회
17일	교육위원회 월례회
23일	여전도회 헌신예배 · 구역권찰회
	전도위원회 월례회의
25일	정기 당회

편집하고 나서

*……교회설립 26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호를 마련했다. 늘상 어려움을 느껴오면서 했지만 이는 정말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모두가 이 책을 받고 흐뭇해 할 것을 생각하며 열심히 했다.

이번 호에는 특별호답게 중량감이 나가는 글을 많이 다루었다. 특히 이종윤 박사님의 지상특강 "공산권 선교전략과 그 대책"과 김득룡 교수님과의 초청대담 "어떻게 주일학교 교사를 육성할 것인가"의 두 편의 글은 이번 특별호를 더욱 빛나게 해 주고 있다.

*……공산권 선교에 대한 대책이 전혀 서 있지 않는 우리들에게 이종윤박사의 특강은 많은 생각할 점과 공산권 선교에 대한 많은 가능성을 패 구체적 으로까지 다루어 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김득룡교수님과의 초청대담에서 다룬 교사훈련 문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보다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감이 있고 각 교사 개개인이나 일반 교우들에게까지도 주일학교 교육에 있어서 교사의 역할과 그 영향 등을 이해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내용이었다.

*……이 외에도 최초로 당회장 김창인 목사님의 전문 설교를 소개할 수 있는 점과 정상우 목사님의 기념설교는 이번 호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있다. 또한 김순애전도사님의 산업청소년 전도에 관한 논문, 김영휘 전도사님의 바울의 선교관, 손경수집사님의 평신도를 위한 사이비 종파의 현황과 문제점등과 같은 글도 다른 때에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귀한 글임을 모두가 알수 있으리라.

*……1979년의 여름행사를 모두 마치면서 분석, 정리, 평가를 한 「1979년 농어촌 파송전도를마치면서」와 「여름행사 결과 분석」 등의 글을 우리 모두가 잘 이해하여야 할 것들이다. 어려운 원고를 써 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특히나 광고로 지원 해 주셔서 불가능한 제작에 보탬을 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빼 놓을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격려속에서 월간충현의 앞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1979년 월간충현 조직

〈편집위원회〉

편집위원장 / 조현명 지도 / 정상우
서기 / 고제원 회계 / 이형수
편집위원 / 정상우 이준교 윤형철
조선근 김차생 박성수 손경수
오태용 이사례
주간 / 이준교 편집국장 / 이형수
간사 / 오태용 고제원

월간충현
9월호
제7권 통권 제69호
1972년 4월 30일 창간
1979년 9월 30일 발행

발행인 / 김 창 인
편집인 / 조 현 명
주 간 / 이 준 교
편집국장 / 이 형 수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100-서울 중구 충무로 5가36
267-9937 · 9738



음부와 지옥의 차이는?

음부 – 대 심판전의 멸망의 장소
지옥 – 대 심판후, 영혼과 몸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장차 맞이하게 될 내세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귀하는 내세에 관한 문제 가운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음부와 지옥"에 관한 질문을 주셨군요. 사실 이 문제에 대하여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읍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하는대로 답변을 해 보겠읍니다.

먼저 "음부"는 어떤 곳이며 누가 가는 곳일까 하는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지요.

"음부"라고 하는 말은 구약의 "스올"(sheol)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저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거나 (창37 : 35 42 : 38, 삼상2:6등), 혹은 "사망과 음부"를 동의어로 취급한것(시18 : 5, 잠5 : 5)을 볼 때 음부는 의인과 악인의 차이 없이 사람이 죽은 후에 내려가는 거처로 (왕상2 : 2, 9, 욥3 : 13, 30 : 23, 시89 : 48, 사14 : 9, 겔32 : 28)이해할 수가 있읍니다. 사실 이 말은 구약 전체를 통하여 65회나 나타나고 있는데, 그중 35회는 "무덤"으로 27회는 "음부"로, 3회가 "구멍"으로 번역되고 있으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등 선민의 조상들이 스올에 가서 만나게 되며 (창37 : 35, 49 : 33), 욥이나(욥14 : 13), 다윗(삼하12 : 13)같은 의인들도 가는 곳으로 나타나 있읍니다. 그런데 그곳은 보통 슬픔과 고통이 따르는 곳으로 나타났고 (창37 : 34 – 35, 삼하22 : 6, 시 116 : 3), 놀라움(민16 : 27, 34), 침묵(시 31 : 17, 6 : 5, 전9 : 10),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는 곳(전9 : 5, 6 : 10), 암흑(애가3 : 6)및 형벌 (민16 : 30, 33, 왕상2 : 6)의 장소로도 나타나 있읍니다.

또한 그곳은 땅의 깊은 곳(사44 : 23)이며, 적막(시94 : 17)하며, 망각의 땅(시88 : 22)이요 멸망의 웅덩이 (욥26 : 6, 28 : 22, 시88 : 11) 로도 표현되고 있읍니다.

또한 이말은 신약에서도 10차례 나타나고 있는데(마태, 마가, 사도행전에 각 2회, 계시록에 4회), 이 신약의 음부(ᾅδης)도 스올과 같이 선악의 구별없이 죽은 자들이 가는 거처로 표현되고 있읍니다. 그러나 신약의 음부(ᾅδης)는구약의 음부(sheol)와는 다르게 결정적인 형벌의 처소로 말하기도 했읍니다. (마11 : 23, 눅16 : 23등참조)

그렇지만 구약의 스올(sheol)이 하늘(shamayim)과 대조되고 있는 것처럼, (욥11 : 8, 시139 : 8) 신약의 음부(ᾅδης)는 낙원(παραδείσος, 눅23 : 43, 고후12 : 4, 계2 : 7)과 구별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이것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인 지옥과도 구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읍니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음부란 중간지대적인 장소로 구약과 신약이 말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읍니다. 다만 구약의 스올은 선악의 구별을 초월한 죽음, 또는 무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옥"이란 말은 "게엔나"(γέεννα)로 공관복음에 11회(마태 7회, 마가 3회, 누가 1회)와 야고보서에 1회(3:6) 나타나 있읍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 게힌놈(gehinnom)에서 왔는데 "힌놈의 골짜기"(수18 : 16)란 뜻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곳은 몰록의 신에게 아이를 태워 바치던 곳(대하28 : 3, 왕하23 : 10, 렘2 : 23, 7 : 31)이며, 그래서 이곳은 살륙의 골짜기(렘7 : 32), 형벌의 곳으로 불려 졌다. (사50 : 11, 66 : 24) 곳입니다.

이와같은 배경 아래 나타난 신약의 지옥관은 아주 명백합니다. 거기는 꺼지지 않는 불이 타는 곳이요(마5 : 22, 18 : 9), 구더기도 죽지 않는(막9 : 48) 불못(계19 : 20, 20 : 10)입니다. 이곳에는 원칙적으로 마귀를 위해 예비된 곳이요 그를 따르는 알삼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마25 : 41) 뿐만 아니라 거기는 모든 악인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몸과 영혼이 영원히 형벌받는 곳입니다. (마5 : 29, 10 : 28)

이상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음부(sheol)는 상과 벌의 개념이 없는 중간지대로서 대심판 전의 멸망의 장소이고, 지옥은 음부와는 달리 대심판후의 멸망의 처소로 영혼과 몸이 함께 들어가는 곳이라고 하겠읍니다.

김 하 진목사 〈본교회 부목사〉



교회의 이름을 「충현」으로 한 이야기

실로암 못가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에 교회명을 동일교회로 부르기 시작한 것은 부산 동일교회에서 서울 동일교회 설립을 계획한데서 부터 시작되었다. 3년동안 불러 온 교회명을 바꾸는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1954년 5월 1일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가 창설되어 소위 통일교 선풍이 한창 일어나 사회에, 교계에 큰 물의를 일으키게 되었다.

이에 동일교회란 발음이 이단종파인 통일교와 비슷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기도 하였고 또한 동일교회라는 이름은 원래 부산 동대신동 일가에서 「동」자와 「일」자를 딴것이라는 점이었다. 그리하여 당회는 교회명을 바꾸기로 결정하고 7월 29일 제직회에 광고하고 제직회에서 정식 결의하기로 하였다.

8월 12일, 41명이 참석한 제직회는 9개의 교회 개명한 중에서 충현교회가 31표를 얻어 확정되었다. 이것은 우리 교회 예배당의 위치가 야현동이었다가 충무로로 된 것에서 착안, 충무로의 「충」자와 아현동의 「현」자를 따 붙인 것인데, 충성된(忠) 고개(峴) 위에 세워진 이 시대의 등대로 풀이해서 좋을 것이다.

〈충현 25년사 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충현교회